



여름
2025

통권 제9호

이번호 주제: 함경북도 청진시(淸津市)

섭리 신학과 청진의 교회
북한의 중공업 도시 청진의 역사와 공간구조
청진 도시공간과 일상
철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 청진시 공간구조
청진시장의 어제와 오늘
달헌 문 너머의 청진(淸津) - 다시 국제도시를 꿈꾸다
청진과 그 주변(함경북도 남부)의 교회를 찾아서
동아기독교의 함경도 선교
청진을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
청진의 대표음식 외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2025 여름 통권 제9호

이번호 주제 : **함경북도 청진시(淸津市)**



- 02** 권두언 - 섭리 신학과 청진의 교회_ 김성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이사장)
- 08** 북한의 중공업 도시 청진의 역사와 공간구조
- 31** 청진 도시공간과 일상_ 이시효 (명지대학교 교육미션센터교수)
- 38** 철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 청진시 공간구조_ 김병욱 (북한개발연구소 소장)
- 43** 청진시장의 어제와 오늘_ 백명숙 (송실평화통일연구원 북한도시연구단, 한하나로연구소 연구위원)
- 49** 달인 문 너머의 청진(淸津) - 다시 국제도시를 꿈꾸다_ 전병길 (에스이노베이션 대표)
- 54** 청진과 그 주변(함경북도 남부)의 교회를 찾아서
- 68** 동야기독교의 함경도 선교 _ 안희열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 한국로잔위원회 중앙위원, 한국로잔교수회 회장)



Cover Story

청진은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함경북도의 도 소재지로 북한 북부 물류의 중심지이다. 청진항은 라진항과 더불어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된, 북한 최대의 항구 중 하나이다.

◆ 계간 북한지역연구 ◆ 등록일 : 2023년 7월 13일
◆ 등록번호 : 중랑, 바00020 ◆ ISSN 3022-0300
◆ 발행년월일 : 2025년 7월 10일

◆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E-mail : info@opendoors.or.kr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후원계좌(북한선교) 국민은행(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 76** 청진을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_ 강신재 소설선 『파도』
- 78** 청진의 대표음식_ 명태순대 / 섭국과 섭조개밥 / 영채김치
- 80** 청진의 이모저모_ 청진 6군단 반란 모의 사건
- 82** 청진 출신의 유명인_ 장성택 / 이철주
- 83** 청진의 사람 사는 이야기
- 91** 언론에 비친 청진의 모습들_ 북한, 청진에서 좌초했던 구축함 '강건호' 다시 진수 외
- 94** 청진의 각종 개발 소식_ 청진 중평온실농장, 5년간 채소 생산 외

섭리 신학과 청진의 교회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이사장 김성태 교수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할 때 거기에 신학적, 신앙적 고백이 내포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고, 조물주가 되셔서 통치하시고, 모든 일을 그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믿음의 내용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섭리라고 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믿는 개혁주의 신학을 가진 교회와 신자는 세상 만물의 모든 움직임을 단지 우연이나 인간의 인위적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가공물로 여기지 않는다. 범사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며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다. 이것을 섭리 신학 혹은 경륜 신앙으로 부를 수 있다. 청진이 개발되는 과정과 개신교 교회 선교의 시작 그리고 교회의 발전 과정과 북한이 공산화된 이후 청진의 교회와 신자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

1. 청진은 일본 식민시대에 개발이 되어서 중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와 국제무역의 거점과 중공업 산업단지로 발전이 되었다. 청진은 해방 이후에도 일본 식민시대에 개발이 된 중요 기간시설을 중심으로, 생태학적으로 자연 친화적 개발이 이루어졌고, 1990년도 중반부터 시작이 된 제일차 고난의 행군 시기에 많은 주민들이 쉽게 중국을 나온 도시이었다. 바로 이러한 청진의 입지 조건과 발전 과정은 청진 내에 지하에 숨어 있었던 교회와 교인들의 생존을 위한 토양이 되었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계기로 회령, 청진, 경성에 이르는 67마일 수압식 경편철도를 부설하였다. 중국대륙 침략의 야욕을 가지고 있었던 일제는 만주의 길림까지 연결되는 길림, 회령, 청진의 길회선을 개발하였고, 청진에서 나진까지 연결되는 함경선은 러시아의 하산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여 시베리아횡단철도인 TSR과 연결이 되었다. 1908년에 개항이 된 청진항은 1930년대에 서항이 새롭게 개발이 되었다. 일제는 1930년대를 전후로 하여 미쓰비시광업과 일본 제철 등을 동원하여 청진의 송평지역, 나남지역 등에 제철소, 제강소, 중화학공업단지를 개발하였다. 나남지역에는 일본 19사단이 주둔하였다. 1940년대 청진의 화물 물동량은 북한 전역의 거의 50퍼센트를 점유하였다. 구소련 러시아 해군이 1970년대까지 청진항을 사용하였고, 1990년도 초에 개발이 된 라선 경제특구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진을 거쳐서 가도록 도로망과 철도망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지정학적이고, 경제적 여건은 청진 주민들이 북한에서 누구보다도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게 하는 요인이었다. 또한 청진항은 1960년도 초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청진과 일본의 니가타 항구와 연결하여 북송선인 만경봉호의 모항 기지로서 북송 재일교포의 유입과 각종 일본 물품이 반입되는 특수한 지역이었다. 이러한 입지적 조건은 1990년도 중반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 전역에서 가장 큰 종합도매시장으로 발전이 되는 수남시장이 신설되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도 중엽의 사회안전성의 지역 보고에 의하면 수남시장에서 수만 개의 한국 드라마와 영화 및 음악 CD 알판이 적발되어서 몰수해 불태웠다는 보고문이 있었다.

이렇듯이 주변 나라에서 유입되는 K-문화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청진 주민들은 농경지가 적고, 주변 지역 광산과 광물들을 개발하는 중화학공업단지로 발전되었기에 제일차 고난의 행군 시기에 공장이 멈추고, 봉급과 배급이 중단된 상황에서 아비규환의 지옥도를 연출하는 아사 현상이 만연하였다. 청진에서 생존을 위해 중국이나 제삼국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들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많았다. 당시 청암 지역에 있는 청진 청년역은 아침만 되면 하룻밤 사이에 숨을 거둔 사람들의 시체가 그득하였다. 송평구역에 있는 수성동은 회령, 온성, 나진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교통로에 자리 잡고 있었다. 1950년대 말에 김일성의 지시로 당시 숙청당한 연안파 및 구소련파와 남로당의 종파분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제일 먼저 세워진 교화소 즉 정치범 수용소가 제25호 수성교화소였다. 고난의 행군 시기 중국에서 붙잡혀 온 북한 주민들이 무산, 회령 집결소를 거쳐서 중범죄자로 취급된 사람들이 보내지는 곳이 수성교화소였다. 여기에는 많은 신자들이 갇혀 있기도 하였다. 당시 중국을 오고 가던 북한 주민들에 의하여 수성교화소 내부 소식이 비교적

자세하게 알려졌다. 지면에 논하기도 어려운 가장 잔혹한 수용소였다. 병들고, 노쇠하여 더 이상 노동할 수 없는 수감자들을 종종 수송 벨트에 묶어서 전기로 가동되는 용광로에 그대로 던져 넣거나 때론 교인들이 군부와 연관된 실험소에서 각종 생화학무기를 실험하는 생체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이었다. 수성교회소 정문이 대로 위에 있고, 높은 굴뚝이 눈에 띄는데 그곳을 지나가는 모든 교인의 간절한 기도와 탄식과 눈물의 청원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 폴란드의 바르샤바 공과대학의 교수였던 자렘바가 청진 도시개발계획의 주역이었다. 그는 일본 식민시대에 개발이 된 청진의 도로망과 철도시설 그리고 기본 기간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변 환경친화적으로 순차적인 청진 도시개발을 시도하였다. 청진은 크게 다섯 구역으로 개발이 되었고, 기능적으로 그러나 상호 연관되어서 발전되었다. 김정은 최고위원장의 퍼스트레이디인 이설주의 고향이기도 한데 김정은은 청진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또한 해안관광 도시로 발전시키려는 계획이 있다.

중국의 모 지역에서 청진과 연관된 상당한 규모의 지하교회가 오랫동안 상호 왕래하면서 지하교회의 생존을 위한 제한된 도움을 받았다. 교인들의 생존 비결은 특별한 청진의 입지 조건이었다.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물질적인 지원이 아니었다. 생명의 양식인 성경과 신앙 자료들이었다. 청진과 주변 지역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다. 신자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며 음지에서 밝은 세상으로 나오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충성스럽게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가고 있다.

2. 청진의 교회 지도자와 신자들은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으로 교회를 섬겼으며 확산시켰고, 교단을 초월해서 연합하는 마음을 가졌다. 혹독한 핍박과 순교의 위험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며 서로를 돌보고, 지하로 잠적하여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다. 그분들은 교단을 초월하여 서로를 섬기고, 연합하면서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다. 이것이 청진교회의 영적 유산이고, 한국교회에 주는 생생한 신앙 간증이다.

청진의 교회 개척은 1892년 원산에 장로회 선교부를 개설하고, 원산을 중심으로 함경도 전 지역을 순회 선교하면서 활동하였던 게일과 스왈론 선교사가 사역한 결실이었다. 1898년 신암동 지역에 교회가 개척되었는데 중앙교회로 이름이 불리고,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로부터 함경도 지역을 이관받

은 캐나다장로회 선교부는 함경도 전 지역을 집중적으로 선교하기 시작하였다. 1901년에 함경북도 성진(현재 김책)에 선교부를 개설한 그리어슨 의료 선교사는 성진을 중심으로 동료 선교사인 럽 선교사와 함께 회령, 경성, 청진, 만주의 용정까지 광범위한 순회 선교사역을 하였다. 캐나다 장로회 선교부는 1910년부터 약 2년에 걸쳐서 맨스필드, 바커, 맥도날드 선교사를 파송하였는데 이분들은 청진을 포함하여 함경북도의 8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선교활동을 하였다. 청진에서는 선교사들의 개척 활동을 비롯하여 먼저 개척된 교회 교인들이 청진의 각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자발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초빙하는 일이 일어났다. 교인들이 이주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종의 콜로니(colony) 형태의 교회 개척이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영원동교회, 경성읍교회, 나남교회, 청진동부교회, 승암동교회, 포항교회, 사설교회 등이었다. 청진에서 교인들의 초빙을 받고, 청진에 있는 장로교회들을 돌보았던 캐나다 장로회 선교사는 그리어슨, 럽, 로스, 맥도날드, 바커 등이었다. 청진에 최초로 세워진 중앙교회는 1920년대에 자발적으로 수성동에 지교회를 세우기도 하였다. 경성읍교회는 나남으로 이주한 교인들을 중심으로 나남교회를 세웠는데, 1923년 나남교회와 협력하여 경성군에 전도인을 파송하여 주을교회를 세웠다. 모두가 목회자를 모신 조직교회로서 성장하였다,

청진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은 교단을 초월한 상호 협력과 교회 개척과 성결교회가 중심이 된 연합사경회를 함께 개최하는 일이었다. 1940년대에 감리교 선교부는 종로 삼청교회를 시무하였던 김진호 목사를 청진에 파송하였는데 사설교회의 장로로 수고하였던 신종악 장로의 도움을 통해서 청진 감리교회를 세웠고, 이를 기반으로 주변 지역 경성, 주을 등지에 교회를 세웠다. 김진호 목사는 어항동에 가서 직접 어항교회를 개척하기도 하였다.

성결교회는 1927년도에 이정원 전도사가 청진에 파송되어서 신암동에 청진성결교회를 세웠는데 십일조를 통해 교인들이 교회를 자급시켰고, 함경북도의 중심적인 성결교회로 성장하여 나남과 포항동 지역에 지교회를 세웠다. 성결교회는 다른 교단의 주변 교회들과 연합하여 사경회를 개최하였는데 강사는 성결교 목사뿐 아니라 장로교, 감리교 목사도 세워서 연합사경회를 하였다. 1939년 7월에 신암동 중앙광장에서 열렸던 연합사경회에는 하루에 4,000여 명의 신자들이 모이는 사경회였다.

침례교회는 말콤 펜윅의 오지 선교 전략(Frontier Mission Strategy)으로 원산에 선교본부를 두고, 함경도의 전 지역과 중국의 북만주 간도 지역, 러시아 연해주 시베리아 지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순회 선교사역을 실시하였다. 펜윅은 조선인 전도단을 조직하여 본인뿐 아니라 전도팀을 파송하였는

데 함경북도의 세 개 지역인 경흥군, 회령, 삼수 지역 등을 나누어서 집중적으로 교회를 개척하였다. 회령 지역에 포함되어서 청진침례교회가 설립되었다. 1910년대 함경북도 지역에 세워진 침례교회가 45개 정도 되는데 당시 전체 침례교회의 약 75퍼센트를 차지하였고, 청진을 포괄하는 회령 지역에는 약 14개의 교회가 세워졌다. 이것은 모두 조선인 전도단의 활약이었다.

청진이 일본 식민지 시대에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어 청진항은 만국 통상항으로 불리기도 하였는데 청진에 살았던 신자들은 새롭게 개발이 된 산업도시에 사는 주민들답게 외부 세계에 마음이 열려 있었고, 자급할 수 있는 물질적인 토대와 그 시대에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주변 나라들의 영향을 통해서 선진 문물에 앞서있는 분들이었다. 이분들에게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세워진 청진교회는 다른 어느 지역교회보다도 자발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재정적으로 자립을 시켰고, 교회를 확장해 나갔다. 청진에 있는 교인들의 열려 있는 마음은 교단을 초월해서 서로 연합하였고, 서로를 섬겼으며 공산화되는 과정에서도 함북신학원을 끝까지 운영하였으며 목회자가 없는 교회와 교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혹독한 핍박과 순교의 위험 가운데서도 지하로 숨어 교회와 교인들을 섬겼다.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과 연합 정신은 오늘날도 청진의 교인들 가운데서 계속되고 있다.

3. 청진은 북한 전역의 신자들에게 신앙 자료를 공급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이다. 북한 당국이 아무리 단속하여도 북한 내부 교인들은 온갖 창의적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다양한 신앙 자료들이 여러 형태로 반입하였다. 청진의 특수한 입지 환경은 이를 가능케 했다.

청진은 북한의 어느 지역보다도 외국인과의 교류와 중국, 러시아, 일본 심지어는 한국 물품까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유입되는 곳이며, 북한의 평양 입구에 위치한 평성시장과 함께 북한 최대의 종합도매시장인 수남시장이 존재하는 곳이다. 청진에 정착한 북송 재일교포들의 영향으로 많은 일본 물품이 거래되며, 러시아인들이 라선을 오고 가는 육로나 배를 통해서 자주 방문하며, 외국 선원들과 조선소 배 수리 관계로 방문하는 외국인들과 중국 화교들이 터전을 잡은 북한 화교총회관이 있는 지역이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등 각종 법 규정 등을 만들어서 남한의 문화사조와 신앙적 영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속하여도 청진의 주민들에게는 한계가 있다. 종종 청진에서 유통되던 신앙 영화 CD 알판이 적발되거나

신앙 자료가 담겨 있는 전자 기기들이 적발되어서 당사자들이 처형되는 일이 일어나곤 한다. 청진에는 함북 보위부 청사가 소재하고, 중국과 접경한 무산, 회령, 혜산과 도로와 철도망이 연결되고, 청진에서 두만강 역을 건너서 러시아의 하산까지 이르는 장거리 도로망과 철로를 보완하는 공사가 이루어졌다.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러시아 연해주의 하산과 주변 지역의 러시아 교회에서 북한에 복음을 전하려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러시아 당국이 아무리 단속하여도 교회의 선교 열정을 막을 수는 없다. 청진을 주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그분들의 영혼 양식과 경제적 필요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신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다. 그분의 신비한 경륜을 체험하게 된다. 

북한의 중공업 도시 청진의 역사와 공간구조

김정은의 아내 리설주의 고향으로 알려진 청진은 평양, 남포, 함흥에 이은 북한 제4의 도시이다. 청진의 지명은 청암산(靑巖山) 앞에 위치한 해안마을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원래의 지명은 ‘푸를 청’의 청진(靑津)이었으나 구한말 일본군이 청진에 진주하여 ‘맑을 청’의 청진(淸津)이라 기록하면서부터 淸津으로 굳어졌다고 한다.¹⁾ 청진은 원래 부령군에 속한 작은 어촌마을이었다. 1904년 러일전쟁 시기 일제가 청진을 상륙기지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1908년 개항 이후 항만이 개발되었다. 이후 1930년대 말 일제의 만주 침략과 함께 청진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일제강점기에는 미쓰비시광업과 일본제철이 합작으로 이곳에 광산을 운영했다.

일제강점기 시절 원산과 청진은 일본과 동해를 마주보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충분히 누린 도시이다. 다른 도시에 비해 일본의 물자가 활발하게 유통되었고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물자가 대량으로 유통되었다. 이는 북한정권 수립 이후 재일 교포를 통한 교류로 이어져 청진에서는 오래전부터 일본에서 수입된 각종 물품과 중고의류가 유행하였다. 북한은 미제국주의의 상징이라 하여 청바지를 입지 않으며 여성들이 자전거 타는 것을 미풍양속을 해친다 하여 타지 못하게 하는 지역이 많다. 청진에서만큼은 유일하게 청바지에 대한 단속이 없어 청바지를 입은 주민들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여성들이 자전거를 타는 것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도시가 청진이다. 1959년에 있었던 재일교포 복송사업은 니가타-청진 항로를 이용하였고, 1970년대 일본인 납치사건의 본부도 청진이었으며 공작선 역시 청진항을 모항으로 했던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청진은 일본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도

1) 勝村長平, 『淸津商工會議所史』, 1944, p.3을 심재욱 외 ‘일제강점기 청진의 팽창과 정어리 어업,’ p. 138에서 재인용.

시이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하여 북한의 대표적인 국제도시인 청진의 탄생과 발전 과정을 정리할 것이다. 또한 더불어 시장을 중심으로 발전한 청진의 공간구조를 분석하여 청진이 지닌 국제도시로서의 특성을 분석할 것이다.

1. 청진의 역사

1) 청진의 개항과 나남의 개발과 군사도시화

조선시대 함경도 북부의 중심지는 경성군(鏡城郡)으로, 1896년 경성은 정식으로 함경북도의 수부(首府)가 된다. 1876년 강화도조약을 통한 조선의 개항 이후 러일전쟁 이전까지는 성진을 경계로 북쪽은 러시아, 남쪽은 일본의 세력권으로 여겨져 일본인은 성진 이북으로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원산, 성진 등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조선인으로 변장하여 성진 이북 지방을 다니며 장사를 하다가 변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²⁾ 1904년 일본이 러일전쟁을 일으켜 일본군이 청진항에 상륙하며 청진의 발전이 시작된다. 청진항 주변으로 병력과 물자의 왕래가 늘어났고 시가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청진은 경성의 북쪽 부령군 청암면에 속하는 60여 호의 어촌마을에 불과했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반도 전역에 대한 지배력을 확고히 하였고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함경북도 지역의 개발에 열을 올렸다. 일제는 회령-청진-경성 총 67마일을 연결하는 육군 전용 수압식경편철도(手押式輕便鐵道)를 부설하였고, 청진에 항구 개발 계획을 세운다. 당시 그들이 함경북도 북부를 개발한 이유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 대항할 양항을 동조선에 개발해야 하는데, 대형 선박을 정박하기에 좋은 곳은 청진만한 곳이 없다’³⁾는 것이었다. 결국 일본은 조선 조정을 압박하여 1907년 공사비 37만 5천 원을 들여 축항 공사를 시작한다. 공사를 시작한지 4년만에 40,000㎡의 해변을 매립하여 490m의 방파제를 건설하였다. 이 공사를 통해 청진항은 면적 12,800평에 이르는 수면을 확보하게 된다. 일제는 축항 공사가 한창이던 1908년 청진항을 만국통상항(萬國通商港)으로 개항하도록 하였다.⁴⁾ 1909년 4월부터는 청진과 간도 지방의 무역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기 시작하였으며⁵⁾ 이때부터 청진 경찰서에 일본인 간부들이 부임하기 시작한다. 청진항을 중심으로 도

2) 최우길, ‘청진 개항과 일본인의 활동,’ 『한일관계사연구』 78집 (2022), p. 483.

3) 최우길, ‘청진 개항과 일본인의 활동,’ p. 487

4) 『승정원일기』 순종1년 정미(1907) 12월 4일을 최우길, ‘청진 개항과 일본인의 활동,’ p. 478에서 재인용.

5) 『승정원일기』 순종3년 기유(1909) 4월 6일을 최우길, ‘청진 개항과 일본인의 활동,’ p. 480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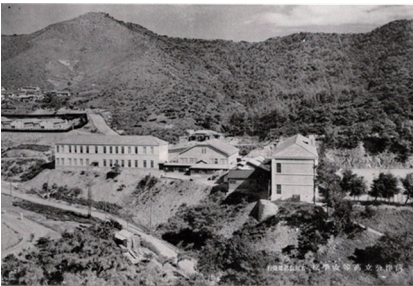


일제 강점기 시절의 청진 세관

시가 발전하여 인구가 늘어났으며, 일본인의 비중도 증가했다. 이때 일본인들은 주로 현재의 시가지가 아닌, 고말산반도 동쪽의 어항(漁港) 인근을 거점으로 삼아 개발하여 청진항과 어항 사이 구역이 개발되었다. 1914년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국토 행정 체계를 개편하며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는 조선의 12개 도시를 부(府)로 승격시키는데 이때 청진도 부로 승격하게 된다.

러일전쟁 시기 청진을 상륙기지로 활용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지배력을 확고히 하였으며 경성군 오촌면 나남동(현재 청진시 나남구역)을 군사기지화할 계획을 세운다. 당시 일제가 나남을 군사기지로 선택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나남(羅南)은 사방이 구릉이고 중앙에 나남천이 흐르며, 면적 100만 평의 광활한 땅이 있어 군용지로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나남으로부터 4.5리의 거리에 청진항이 있으며, 1리의 거리에는 함북의 수도 경성이 있으며, 0.5리에는 독진항이 있다. 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러시아와 중국 국경에 접할 수 있어 군사상 중요한 땅이다.”⁶⁾



청진에 있던 공립 고등여학교. 1920년 4월 15일 나남공립 여자고등보통학교로 설립되었으며, 1922년 3월 31일 청진공립고등여학교로 교명을 변경했다. 당시 청진 지역의 유일한 고등 여학교였으며, 조선인과 일본인 학생이 함께 다녔다. (사진 출처:https://blog.naver.com/quix-cha/223330126569)

1908년부터 일본의 조선주차군 건축과에 의해 나남에 군사기지가 건설되기 시작하여 나남에는 1908-1913년 사령부 청사, 각급 관사, 직원 숙사가 건설되었다. 1916년 일본의 19사단이 나남에 주둔하게 되었으며 1916-1922년 나남 제2차 기지 건설을 통해 나남의 시가지는 더욱 확대되었다. 나남은 군사기지로서 격자형 가로망과 비스듬한 남북형태의 교통축으로 개발되었다.

나남은 군사도시의 특성상 일본인의 거주 비율이 매우 높았다.

다음은 1907년-1919년 나남의 국적별 인구 통계이다.

연도	조선인	일본인	외국인	계
1907	70	158	0	228
1908	154	1,533	244	1,931
1909	1,044	3,270	98	4,411
1910	1,501	2,524	141	4,166
1911	1,510	2,854	80	4,444
1912	1,945	2,412	40	4,397
1913	2,088	2,308	48	4,444

6) 國井天波『大清津港』(元山: 元山毎日新聞社, 大正5[1916])을 김홍희, 「일제하 나남의 군기지 건설과 군사도시화」(한양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17) p. 10에서 재인용.

연도	조선인	일본인	외국인	계
1914	2,245	1,753	85	4,083
1915	1,781	1,808	30	3,619
1916	2,232	2,206	83	4,521
1917	2,195	3,034	115	5,334
1918	2,296	3,222	126	5,644
1919	2,519	3,504	129	6,151

[표 1] 나남의 국적별 인구 변화(1907-1919), 『승정원일기』 순종3년 기유(1909) 4월 6일을 최우길, '청진 개항과 일본인의 활동,' p. 480에서 재인용.

1917년 5월 함경북도 도청이 나남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1920년 11월 이전을 완료한다. 도청의 나남 이전 소식이 전해지자 청진의 지역사회에는 대규모 반발이 일어난다. 청진에서는 나남이 아닌 청진으로의 도청 이전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1925년 2월 9일 함경북도 도청이 화재로 전소되자 청진의 유지들은 주민들 명의로 도청 이전에 관한 의견을 총독부 내무국장에게 보내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청진 주민들의 노력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여 도청은 계속 나남에 남게 된다.

2) 청진의 발전과 팽창

일제강점기 청진에서는 정어리가 많이 잡혀 ‘정어리의 청진’이라 불리었다. 1920년대 중반부터 급증한 정어리의 회유와 서양 어법의 유입을 통해 정어리 포획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이는 1925년부터 1941년까지 이어졌는데 당시 동아일보는 함경북도지방의 정어리 어획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요사이 성진 부근의 바다에는 난데없는 고기 떼가 밀려와서 손으로라도 맘대로 건질만한 형편... 성진 해안은 마치 정어리 천지가 된 모양... 소금이 없어서 그냥 비료를 만들거나 ...수천의 사람들은 지금도 매일 떠내는 중...”⁷⁾ 1935-37년의 자료를 보면 당시 청진에서는 매년 15만-26만 톤의 정어리가 잡혔는데, 이는 청진 전체 어획고의 90%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이는 청진의 어업뿐만 아니라 수산물 가공업의 발전을 가져온다. 정어리에서 추출한 어분(魚粉), 어유(魚油)추출 공장이 청진에 앞다투어 세워졌으며, 당시 발전하기 시작한 통조림 제



1920년대 청진항 주변에 정어리가 쌓여 있는 모습, 1920년대 중반부터 급증한 정어리의 회유와 서양 어법의 유입을 통해 정어리 포획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7) “성진 근해에 소청어가...,” 『동아일보』 1923. 10. 31, 를 심재욱 외 ‘일제강점기 청진의 팽창과 정어리 어업,’ 에서 재인용.

조업도 청진에서 꽃을 피운다. 일제의 ‘정어리 식료화’ 정책으로 각종 조미료와 통조림이 제조되어 조선 전역과 일본, 만주로 판매되었다. 1910년대 중반 이후 일본에서는 정어리 기름을 가공한 경화유를 원료로 하는 화학공업이 발전하여 정어리에 대한 포획과 가공 산업이 발전하고 있었다. 청진에도 정어리 기름을 원료로 한 각종 화학산업이 발전하였는데, 그중에도 청진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정어리 가공 비료는 온유비(鰵油肥)로 불리며 전 조선과 일본에서 인기를 끌었다.



2020년 10월 태풍의 영향으로 수성천 다리가 붕괴되던 당시 수성천 주변 청진 시내가 침수된 모습. (사진 참조: 연합뉴스, SBS)

1920년대에 청진의 발전과 동시에 시가지는 청진 본항 서쪽을 따라 팽창을 거듭하여 수성천 유역의 수성평야 주변까지 거주지가 확대되었다. 수성평야 지대가 새로운 주거구역으로 고려되었으나, 문제는 매년 여름 반복되는 수성천의 범람이었다. 일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31-34년 대규모 배수로를 건설하여 홍수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때의 개수공사는 수성천 상류에서 인공 지류를 건설하여 배수를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때 건설된 배수로는 바로 현재 수성천과 구(舊) 본항 사이에 위치한 수남천이다. 개수 공사를 통해 확보된 수성천변에 위치한 수성평야 부지 1만 평의 부지에는 신시가지의 조성하여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공장을 유치하였다. 이곳을 중심으로 포항동, 송향동, 수남동 일대에는 조선유지주식회사, 북선수산공업주식회사, 일본유지 조선지점 등의 수산물 가공공장을 비롯한 관련 업종의 공장이 들어서게 된다. 당시 새로 조성된 부지에 들어선 공장의 면면을 보면 정어리 관련 공장, 기업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⁸⁾

193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청진의 도시 규모가 더욱 확대되며 수산업, 수산물 가공업 외에 중공업 기업이 청진에 진출하기 시작한다. 1936년 대일본방직주식회사는 조선에 생산기지를 세우기로 결정한다. 당시 생산기지는 조선뿐만 아니라 만주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공장으로 신의주와 청진이 후보지로 거론되었는데, 청진 지역 유지들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으로 공장 부지로 청진이 확정되었다. 대일본방직주식회사는 1937년 공장을 착공하여 1939년 5월 완성하여 가동을 시작한다. 당시 청진인건공장은 조선 최대 규모의 공장으로 최신 직조기법인 ‘크룹법’을 일본 최초로 시행한 공장이었다.⁹⁾

8) 심재욱 외 ‘일제강점기 청진의 팽창과 정어리 어업,’ p. 153

9) 송규진, “일제강점기 ‘식민도시’ 청진 발전의 실상,” 『사학연구』 110호 (2013) p. 345

1935년 미쓰미시광업이 무산철광의 원료를 염두에 두고 청진에 투자하여 1941년 청진 제강소를 건립하였고, 1937년에는 니폰제철이 청진에 제철소를 건설할 것을 결정하여 1942년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조선총독부는 1937-40년 총 공사비 680만 원을 투입하여 기존 청진항 서쪽에 1,150m의 방파제를 갖춘 서항을 건설하였다.¹⁰⁾ 1941년을 기점으로 정어리 어획량이 크게 줄어들며 정어리 관련 산업은 쇠퇴기에 접어들어 1944년 정어리 관련 공장의 40%가 폐업하게 되었다.¹¹⁾ 이로써 청진의 중심산업은 정어리 관련 산업에서 방직 산업과 중공업위주로 재편된다.

일본의 만주, 연해주 진출이 본격화되던 1910년 전후 웅기, 나진, 청진의 세 항구는 북선3항(北線三港)이라 불리기 시작한다. 북선3항을 중심으로 반경 1,500km 거리로 원을 그리면 소련의 연해주와 사할린, 일본 전체와 만주국, 중국의 화북, 화중지방까지 포함된다. 이를 2,600km의 원으로 넓히면 캄차카반도를 비롯한 소련의 동부 외몽골, 중국의 화남까지 포함되어 일제는 함경도가 대륙 진출의 발판이자 일본제국의 지리적 중심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본은 1906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를 건립하여 만주지방의 철도를 개발하기 시작하는데 1917년부터는 이 회사가 조선의 철도를 위탁 경영하기 시작한다. 이를 통해 일제는 철도를 통한 대륙 진출 계획을 세워 일본 본토와 만주의 중간에 위치한 함경북도 북부의 도시들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만주와 함경북도 북부의 항구를 연결하는 길회선(吉會線)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192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웅기, 나진, 청진 세 도시 간의 종착역 유치전이 치열하게 전개된다. 결국 1932년 길회선의 종단항으로 나진이 선정되었다. 길회선 종단역 결정 이후 나진에서는 기존 7원에 거래되던 땅이 22원 이상으로 폭등하는 등 부동산 폭등 현상이 일어났다. 청진은 종착역 유치에는 실패했으나 대규모 축항이 이루어졌으며 인접 도시 나진의 발전과 더불어 상승효과를 누리게 된다. 일본의 선진산업이 유입되고 일제의 대륙진출 발판의 거점이 된 청진에서 일본 기업가들과 기술자들은 사회의 중추를 형성하게 된다. 청진 개발 초기에는 일본인의 비중이 조선인보다 높았으나, 이때부터 조선인 노동자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일제강점기 중후반 청진의 인구 구성 변화는 아래



일제강점기 청진의 중심부 명치정통(明治町通)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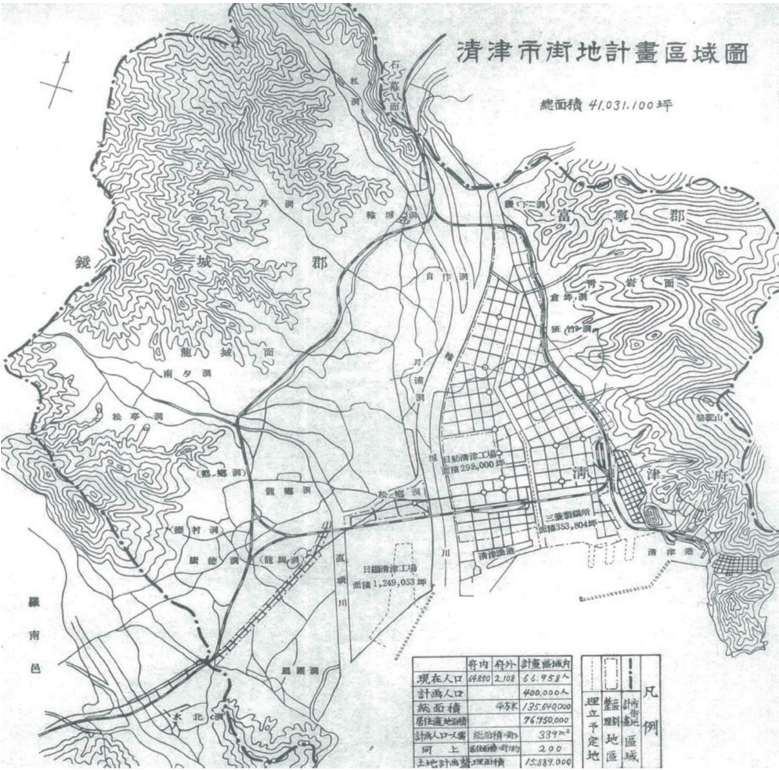
10) 심재욱 외 ‘일제강점기 청진의 팽창과 정어리 어업,’ p. 154

11) 김종연,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청진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p.15.

의 표와 같다.

연도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	기타 외국인	총 인구
1920	6,858	4,114	236	6	11,214
1925	13,367	6,126	1,073	17	20,583
1930	24,003	8,355	1,348	19	33,725
1935	38,785	10,313	968	19	50,085
1940(나남 통합)	126,977	26,747	1,856	16	155,596
1943	186,596	31,601	2,893	15	221,105

[표 2] 朝鮮總督府 統計年報(각 연호), 朝鮮統計年鑑(1948), 송규진, “일제강점기 ‘식민도시’ 청진 발전의 실상,” p. 351, 352 참고



1939년에 작성된 청진시가 지 확장계획, 위의 지도에는 이미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공장을 포함한 청진의 시가지 확장 계획이 담겨있다. 사진 출처: 심재욱 외 ‘일제강점기 청진의 팽창과 정어리 어업,’ p. 153.

매우 높은 수치이다. 같은 기간 서울은 4배, 인천 5.9배, 대구 4.6배, 평양 4.8배, 신의주 4.1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1944년 청진의 인구는 184,301명으로 경성 988,537명, 평양 341,654명 부산 329,215명, 대구 206,638명의 뒤를 이어 조선 5위의 인구수를 기록했다.¹²⁾ 1930년대 청진의 인구는 포항동, 신암동, 수남

12) 朝鮮總督府, 『1944年 5月, 人口調査結果報告』을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BUKHAN&menuId=M_02_02, 검색일: 2025. 04. 26)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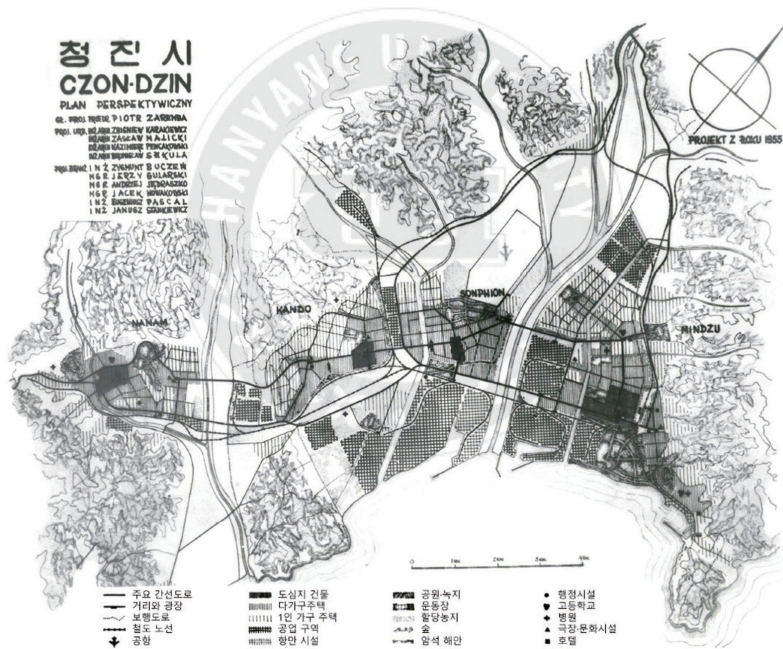
동, 송향동 등 시내 중심으로 증가하여, 1937년 네 개 동의 인구가 청진 전체 인구의 76.8%를 차지하였으며, 이 지역의 인구 밀도는 조선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여겨졌다.

3) 남북분단 이후 청진의 변화

해방 후 남과 북이 분단되면서 청진은 평양, 함흥에 이은 북한 제3의 도시가 되었다. 6.25전쟁으로 인해 대도시의 주요 시설이 파괴된 북한의 전후 복구 사업은 공산권 우방국들의 지원속에 진행되었다. 그중 북한의 3대 도시에 대해서는 주요 국가들이 책임을 맡아 재건을 주도했는데, 평양은 소련이, 함흥은 동독이, 청진은 폴란드가 담당하였다. 폴란드 정부의 대북지원과 재건과 관련한 협정은 1955년에 체결되었다.

이 협정을 통해 북한은 폴란드로부터 상당량의 면직물, 방수포, 설탕, 가공육, 베어링, 비누, 기계와 각종 부품 등을 원조 받았으며 폴란드 정부는 의사, 간호사, 광부, 도시계획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북한으로 보내 전문 지식을 전수하였다. 이에 앞서 1954년 2월 폴란드 정부는 바르샤바기술대학 피오토르 자렘바(Piotr Zaremba)를 청진에 파견하여 도시 재건을 위한 사전 조사를 하게 하였으며 7월 그를 도시계획팀 관리자로 임명하였다. 피오토르 자렘바는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1945년, 2차 세계대전 당시 파괴된 폴란드 슈체친 시장에 임명되어 5년간 전후 복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인물이다. 그는 청진의 재개발을 위해 청진의 각 구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민주 지역은 수성천을 기준으로 삼각주의 동쪽에 위치하는 지역이며 동쪽 산등성이의 골짜기에서 찬 공기가 흘러나와 해안가로 향한다. 지질 조건은 양호하지만 바람이 많이 부는 편이며 공업 구역이 위치한 지



피오토르 자렘바(Piotr Zaremba)의 청진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출처: Miasto 1957년 1월, JDGN 290; 김종연,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청진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p.62.

역은 공기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공기의 질이 좋지 못하다. 고말산반도와 쌍연산 사이의 저지대는 홍수로 인한 피해가 잦은 지역이다.

- 2) 송평 지역은 수성천을 기준으로 삼각주의 서쪽에 위치하는 지역이며 많은 면적이 논으로 사용되어 왔다. 지세가 낮고 토양이 질어 농경지로 사용되어 온 탓에 관개수로가 많이 분포한다. 이 지역 또한 바람이 많이 불며 해안가는 공업 구역으로 인해 공기의 질이 좋지 못하다.
- 3) 강덕 지역은 산등성이에 위치해 경사 지형에 위치하며 이 덕분에 북풍을 막기에 유리하다는 강점이 있는 지역이다. 이 덕분에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맑은 기후 조건을 가지며 해안가 일부와 서쪽 하천 인근을 제외하고는 공기의 질도 좋다.
- 4) 나남 지역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북풍과 남풍을 모두 잘 막을 수 있는 지역이며 하천 인근의 일부 습지를 제외하고는 토질도 양호하고 기후도 강덕 지역만큼은 아니지만 비교적 맑다.¹³⁾

자렘바는 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를 관통하는 기존의 간선도로 외에도 송평, 강덕, 나남의 중심구역을 관통하여 민주 지역 외곽의 순환도로와 수직으로 만나는 제2 간선도로를 설계하였으며 청진 외곽을 지나는 환형 화물철도 노선을 따라 민주지역 중심부에서 시작되어 동쪽 외곽을 따라 수성천 상류까지 올라가서 송평 지역의 북쪽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와 송평역 인근에서 제1 간선도로와 만나는 순환도로를 계획하였다.¹⁴⁾ 청진의 전후복구사업에 있어 자렘바의 계획은 일부만 실현되었다. 대표적으로 철도망은 기존의 철도망을 복구, 확장하는 자렘바의 안이 대부분 반영되었으나, 도로망의 복구에는 자렘바의 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강덕 지역의 남강덕역 인근 도시를 관통하는 도로 남쪽의 주택 구역은 계획안에 따라 저층 주택단지와 질서 있는 도로망이 건설되었으나 그 밖의 강덕지역은 전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주 지역 역시 중심구역에는 중앙광장과 해양대공원을 설계한 계획대로 넓은 광장과 공원이 건설되었으나 중앙광장에는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정치적 상징성이 강조되었고 해양대공원으로 향하는 도시 축이 넓어져 김일성 동상까지의 경관 중심으로 권력의 위상이 강조되었다. 나남구역 복구는 자렘바의 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 중심 구역에는 광장과 상징탑이 건설되었고 북쪽의

산골짜기와 계곡을 따라 교외의 고급 주택들이 건설되었다.¹⁵⁾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청진은 함경북도의 각종 광산지대를 배후로 둔 항구 도시이자 중공업 도시로 발전하였다. 6.25전쟁 이후로 청진의 복구가 진행되며 청진은 중공업 도시로의 명성을 회복하기 시작한다. 1973년 3월 15일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된 청진시의 발전 방향에는 중공업 기지로서 북한의 의지가 나타난다. “청진은 철광석 자원이 무진장한 무산광산이 가까이 있으므로 나라의 위력한 대야금 공업기지로 발전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청진항은 무역항으로 그리고 큰 수산기지로 전망이 크므로 건설을 많이 하여야... 청진시에서 현재 있는 공장들의 규모를 더 늘리고 차량공장들을 비롯한 새 공장들을 더 많이 들여앉혀 보다 더 현대적인 대공업도시로 전변시켜...”¹⁶⁾

청진시의 공업화와 이로 인한 공장지대 확장으로 인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악화되자 김일성은 남청진 지역에 신시가지 건설을 추진하였다. 1976년 ‘남청진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1,500가구의 아파트와 주거시설이 완공되었고, 1980년대 중반에도 청진 남부에 대한 대규모 주거지구 개발이 이루어졌다. 북한 당국은 이를 “노동계급의 도시로 웅장하고 화려하게 일어섰다.”(노동신문, 1991년 2월 10일)고 자축하였다.

고난의 행군을 지나며 청진은 중국과의 비공식 교류가 왕성하게 이루어졌다.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청진 주민들의 대규모 비법 월경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중국과의 교류가 급증한다.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 중 청진 출신의 비중이 높은 것은 당시 청진 주민의 비법 월경 상황을 반증한다. 2010년 이후 청진시에서는 포항구역의 재정비, 김일성광장에서 해안까지의 광장 정비, 해안도로 공사 등이 이루어졌다.

2. 청진의 지리와 교통

1) 청진의 지리

청진의 면적은 1,093km²로 북한의 도시 중 평양(1,849km²), 개성(1,297km²), 남포(1,295km²) 다음의 넓은 면적을 자랑한다. 인구 역시 667,973명으로 평양(3,255,288명), 남포(983,660명), 함흥(768,605명)에 이어 네 번째 규모의 도시이다.

13) Piotr Zaremba, “Polski Projekt Koreanskiego Miasta Czon-dzin,” MIASTO. 1957. 01, 5를 김종연,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청진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p. 39에서 재인용.

14) 김종연,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청진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pp. 60-64.

15) 김종연,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청진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pp. 71-76.

16) 박세훈 외, 『북한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실태분석과 정책과제』(서울: 국토연구원, 2016) p. 82.

	평양직할시	남포특별시	함흥시	청진시
면적(km ²)	1,849	1,295	556.4	1,093
인구(명)	3,255,288	983,660	768,605	667,973
인구밀도	1,760	758	1,381	661

[표 3] 북한 4대도시(인구기준)의 인구와 인구밀도, 2008년 북한인구센서스, UN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4 revision, 통계청 북한통계(<https://kosis.kr/bukhan/search/search.do>)를 참조로 필자 작성.

일제강점기 청진부(府)였던 것이 해방 직후 함경북도 청진시로 개편되었다. 1960년 나남시와 부령군이 편입된 이후 1963년 직할시로 승격되었다가 1970년 일반시로 강등되었으며, 1977년 경성군과 무산군을 흡수하여 직할시로 재승격되었다가 1985년 경성군과 무산군을 분리하여 다시 일반시로 격하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¹⁷⁾ 현재는 7개 구역(신암, 포항, 청암, 수남, 송평, 라남, 부윤) 82동 16리로 구성되어 있다. 동부와 북부는 라선특별시, 경흥군, 회령시와 맞닿아 있으며 서부와 남부는 부령군, 무산군, 경성군과 경계를 접하고 있다.

청진에는 북한의 주요 간선 중 하나인 평라선(평양-라선, 781.1km)과 함북선(청암-회령-라선, 326.9km)이 통과한다. 평라선은 청진청년역에서 지선 청진항선(청진청년-청진항)이 갈라지고, 남강덕역에서 지선 강덕선(남강덕-수성)이 갈라진다. 평라선에서 갈라진 이 두 노선은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철광석을 비롯한 공업원료와 연료, 금속제품 수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함북선은 청진시의 청암역을 기점으로 함북의 내륙을 통과하여 북쪽의 회령청년역을 거쳐서 국경선을 따라 온성, 라진까지 연결되는 노선이다.¹⁸⁾ 북한의 전체 철도망은 평양, 개천, 함흥, 청진, 라선의 5개 철도국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청진에는 청진철도국과 연관기관으로 청진기관차대, 청진객화차대, 청진철길대, 청진전기대가 자리를 잡고 있다. 청진철도국 산하 주요역으로는 송평역, 수남역, 청진청년역이 있는데, 그중 송평역은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주변 공장들의 물류를 책임지며 청진시 철도 화물 수송량의 50%를 점유한다.

1899년 함경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성진(현재의 김책시)이 개항되었으나 지역사회의 반발로 정상적인 개항장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1904년 러일전쟁시기 일본군이 청진에 주둔하며 청진항을 중심으로 청진 시가지가 발전하였고 이 시기 함경북도에 대한 일제의 관심이 급속도로 증대한다. 일본은 조선 조정을 압박하여 1907-1911년에 걸쳐 490m의 방파제

를 건설하였다. 이 공사를 통해 청진항은 면적 12,800평에 이르는 수면을 확보하게 된다. 일제는 축항 공사가 한창이던 1908년 청진항을 만국통상항(萬國通商港)으로 개항하도록 하였다.¹⁹⁾

1920년대부터 함경북도 일대에서 정어리의 어획량이 급증하였고 어항 수요에 맞춰 일본은 총 650만원이 소요된 제1기 공사(1922-1925)를 통해 고말산반도 동편에 어항을 만든다. 제2기공사(1926-1936)를 통해 범람이 잦은

수성천의 관개시설을 개선한 후 수성천 하류에 새로운 어항을 건설했다.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되며 일제는 군수품 생산을 위한 제철회사를 청진에 건설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와 연동하여 1937-1940년 신어항 서편에 항구를 건설하였다. 이때부터 기존 청진항은 동항으로 불리게 되었고 신항은 서항으로 불리게 되었다. 동항은 무역 화물 전용으로 서항은 청진제철소 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연간 하역 능력은 동항 87만 톤, 서항 1,069만 톤이다. 2007년 7월 24일 북한의 수산물 운반선이 청진항을 출발하여 속초항에 도착했는데, 이때 운반선이 청진항 동항에서 출발하였다.

청진에는 무궤도열차도 다닌다. 무궤도전차의 노선은 해안-사봉(10km), 청진-농포(10.5km), 라남-농포(5.5km), 해안-청암(8km)의



청진의 행정구역, 북한에서 발행된 지도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17) 평화문제연구소 『조선향토대백과 함경북도편』 1 (서울: 2006), pp. 63, 64.

18)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북한지리지 편찬실, 『북한지리지1』 (서울: 내슈, 2024) p. 183.

19) 『승정원일기』 순종1년 정미(1907) 12월 4일을 최우길, ‘청진 개항과 일본인의 활동,’ p. 478에서 재인용.

노선이 있다. 외국인들의 청진방문기를 보면 평양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어랑에 위치한 공항에 내려 청진 시내로 진입하는 중간에 라남-청진의 무궤도전차를 보고 신기해 하는 기록들이 있다.

2) 청진의 구역별 특징



2012년 해외언론사에 의해 촬영된 청진항 (사진 출처: 연합뉴스)

신암구역은 청진의 동부에 위치하여 전통적 부촌들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포항구역과 경계를 이루는 신암구역 서부가 발전하였는데, 일제강점기 일본인 부유층은 신암동에, 조선인 부유층은 해안동에 많이 거주하였다고 알려졌다. 신암동은 1900년대 초 청진항을 건설할 때, 천마산의 바위를 깎아 쓰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라남, 송평, 수남구역 등 여타 구역에 비해 아사자가 적게 발생했다. 북한정권 수립 후 김일성의 아내인 김정숙의 일가가 신암동에 자리를 잡았고 당 책임비서와 선전비서 등 핵심 인물의 관사를 신암동에 건축했다. 청진의 대표 시장은 수남시장이지만 신암동의 신암시장과 신암동과 멀지 않은 포항시장 역시 매우 발달하였다.²⁰⁾

라남구역은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본부가 위치했던 구역으로 해방 후 청진에서는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여겨졌다. 고난의 행군 시기 가장 먼저, 많은 사람이 중국으로 탈북한 지역이 나남구역이다. 고난의 행군 이후로 나남에서는 사적 어업이 급속도로 발전했다. 돈주들은 주로 군부대의 이름으로 배를 구입하여 운영하는데, 이들은 군부와 결탁하여 고기잡이를 독점하였다. 오징어철에는 배 한척당 최소 중국돈 2천~3천위안씩 버는데, 선주들은 수입의 10%를 선원들에게 급여로 주고 나머지 일부를 군부에 상납하며 막대한 자본을 축적하기 시작했다. 이들

중 다수는 7-8척의 배를 소유하고 있다. 배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연간 1만 5천 위안 가량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원들은 생활총화를 비롯한 당 생활에 얽매이는 관계로 선주들은 비당원 선원을 선호한다. 고된 육체노동과 고립된 배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인하여 선원들 사이에서는 마약이 일상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라남구역에는 중국과 러시

노동신문은 2020년 청진에서 생산된 신형 무궤도전차가 청진 시내에 도입되었다고 보도했다. (사진 출처: 통일뉴스)



20) 김동빈, "북한 주민들 속으로," 『북한』 (북한연구소) 2021년 11월호, 통권 599호

아 영사관이 위치하고 있다.

청진의 북부에 위치한 청암구역의 랜드마크는 청진에서 가장 큰 역인 청진청년역이다. 청진청년역은 고난의 행군 시기 함경북도의 극빈자들이 몰려 아사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점이다. 청진의 상인들 중 다수는 청진청년역이 위치한 역전동에 셋집을 가지고 있다. 마약, 외화를 비롯한 불법적인 물건들이 몰리기도 하는 지역으로 이들을 적발하여 뇌물을 얻기 위한 당국자들의 불심검문이 활성화되었다.²¹⁾

송평구역에는 북한 최대의 제철소인 김책제철련합기업소가 위치하고 있다. 제철소가 정상운영하던 시절에는 무산으로부터 청진까지 이어진 대형 수송관을 통하여 철광석을 운반했다. 제철소에는 북한의 대규모 기업소들이 그렇듯 구내 병원, 요양소, 공장대학 등이 있었다. 당시 제철소의 부속 기업소에서 제작된 자물쇠, 재봉틀, 재봉침 등의 물건이 직원들을 통해 사적으로 시장에 흘러나왔다.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의 모든 기업소가 멈추었을 때도 김책제철련합기업소는 가동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한운행이 시행되어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일하던 대규모 인원들은 돌격대에 동원되어 토목 건설 노동에 참여하는 비중이 늘어났다. 송평구역 북부의 수성동은 조선시대부터 황해북도 중심지인 경성에서 함경도 북부로 향하는 역참이 위치하였으며 지금도 청진에서 무산, 회령, 라진 등 다른지방으로 향하기 위하여 수성동을 거쳐야 한다.

포항구역은 청진의 시내에 위치하여 권력층과 돈주들이 많기로 유명하다. 다수의 외화벌이 기관들이 포항구역에 위치하였는데 특히 남강1동과 남강2동에 돈주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구역에는 청진제강소와 청진강재공장을 비롯한 공업단지가 있는데, 이 공업단지는 청진 시내 대기오염의 주범이다. 공장들에서 내다 버리는 불순물 때문에 주변의 땅은 늘 검붉으며 포항구역과 수남구역을 가르며 흐르는 수남천 역시 수질이 너무 좋지 않아 똥강(똥강)이라 불리운다.

부윤구역은 시의 남서부, 라남구역의 내륙에 위치하였다. 이 지역에는 조선초 6진 개척 시기에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어유간보 성터가 있다. 어유리에는 알카리성온천인 룡천온천이 유명하며, 온천수를 활용한 요양소가 있다. 부윤광산은 북한에서 가장 큰 니켈 광산인데, 니켈광 생산능력은 연간 4만 7천 톤에 이른다. 부윤구역 일대의 니켈 매장량은 약 150만 톤으로 추정된다.²²⁾



청진청년역 전경(사진 출처: 아시아프레스)

21) 김동빈, "북한 주민들 속으로," 『북한』 (북한연구소) 2021년 11월호, 통권 599호

22)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북한지리지 편찬실, 『북한지리지 1』 pp. 180, 205

3) 청진의 기업소



김책제철기업소 (사진 출처: 재미동포전국 연합회)

청진은 북한 최대 철광석 산지인 무산과 인접하여 제철업이 발달하였다. 무산의 철광산은 17세기 초반부터 소규모로 철이 채굴되던 것이 1913년 일제에 의해 개발이 시작되었다. 1925년에 소형 선광장이 건설되고, 채굴량이 확대되어 1935년에는 미쓰비시광업과 일본제철이 합작으로 청진제철소가 건설되었다. 청진제철소는 1974년 주변의 부속기업소들을 통합하여 김책제철련합기업소로 개편되었다. 철강공업에 필요한 전력은 3월 17일 발전소와 청진 화력발전소에서 공급을 받으며, 보조원료인 석회석은 금바위동의 무수광산에서, 흑연은 김책시의 업역광산에서, 내화품 원료는 단천지구와 경성군 생기령에서 공급을 받는다. 북한의 산업이 가장 잘 돌아가던 시기로 평가받는 1980년대 중반 김책제철련합기업소는 청진시 공업 생산액의 43%, 청진시 공업 관련 기업 종업원 수의 27%를 차지했다. 현재도 43만㎡의 부지에 5만여 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다. 제강 능력은 연간 240만 톤으로 북한 전체 능력의 41%를 차지한다.²³⁾ 김책제철련합기업소는 북한의 선철 생산량의 2/3 이상, 압연 강재 생산량의 절반을 생산하는 북한 최대의 제철소이다. 북한은 2009년부터 자체 개발한 용융환원공법으로 생산된 철을 “주체철”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주체철은 코크스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되는 특징을 갖는다. 북한정권은 청진의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2018년부터 100% 주체철을 생산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²⁴⁾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산하 기업으로 청진제강소가 포항구역 남강동에 위치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2023년 100%삼화철에 의한 철강재 생산 공정을 확립했다고 전했다. 삼화철은 철광석, 무연탄이나 갈탄, 석회석을 저온에서 가열하여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는 채탄기, 컨베이어 등 광산 채취 기계 및 일반 산업기계를 생산하는 공장이다.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말한 ‘라남의 봉화’라는 말이 유명한데 그 ‘라남의 봉화’가 바로 이 기업소를 두고 한 말이다. 기존 북한의 기계생산업체는 대부분 동구권 우호국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과 설계도를 이용하여 물품을 생산했다. 1990년대 후반 라남의 탄광기계련합기업소는 여러 기계에 대한 독자설계를 완성했다. 북한정권 입장에서 이 성과는 고난의 행

군 시기로 사회의 각 시스템이 무너져가는 시기에 얻은 가뭄에 단비 같은 희소식이었다. 김정일 위원장은 2001년 7월 - 8월 24일간의 러시아 방문을 바치고 귀국하는 길에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를 방문하여 “동무들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이런 기계를 만들어 내자니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는가!”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의 성과는 ‘라남의 봉화’라 불리게 된다. 이후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는 무산광산,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등에 기계를 공급하고 있으며 노동신문에 의하면 2012년 검덕광산 선광장의 현대화기기를 제작보급하였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청진제강소로 인하여 청진에서는 철강재와 철강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청진은 경공업에 있어서도 철재와 관련된 제품 생산이 발달하였다. 청진 청년자전거공장에서 자전거를 생산하며 함북조선소련합기업소, 5월10일공장에서는 각종 철제일용품을 생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라남구역의 청진 시계생산협동조합과 포항구역의 만년필공장이 있다.

4) 청진의 시장

청진은 해안 도시로서 오래전부터 수산업과 물류가 발전하였다.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된 라선과 연결되어 있어 주요 원자재(천, 가죽, 가공 의류 및 신발 부속 등)를 대량 도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²⁵⁾ 청진은 북한의 내륙 시장들



청진의 주요 시설, 북한에서 발행된 지도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23)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북한지리지 편찬실, 『북한지리지 1』 pp. 210-214.

24)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과학기술의 위력이 안아온 주체적 금속공업 발전의 튼튼한 토대로,” 노동신문, 2018. 09. 05, 를 김이경, 『구석구석 북녘 탐방』 (서울: 내일을여는책) pp. 287-289에서 재인용.

25) 강채연, 『북한 도시 이해』 (서울: 바른북스, 2024) p. 92



과 라선을 연결하는 통로로 기능한다. 북한의 물류는 북부의 수남시장을 중심으로 한 청진지구와 남부의 중심도매시장인 평성시장의 평성지구로 양분되고 있다.

북한의 시장은 지역의 인민위원회 상업관리국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통제, 관리되고 있다.

다. 2000년대 초반까지 북한에서 시장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나 사회주의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 요소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관리는 편법을 통하거나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02년 7.1 경제관리조치와 2003년 시장을 공식화한 내각지시 24호가 발표되면서 시장이 양성화되었다. 이후로 상업관리국에서 ‘시장관리소’라는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직접 시장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각 시장의 명칭은 시장이 위치한 해당 지역이나 리의 지명을 따르는 것으로 하였고 “시장표준설계” 규정에 따라 건설을 감독하기 시작했다. 시장사용료(장세)의 액수를 결정하는 책임은 상업성, 재정성의 판단과 함께 도인 민위원회와 해당 기관들에게 부여되었다. 2004년 북한 당국에 의해 발표된 “재정성 지시 제30호”에는 종합시장의 장세가 명시되어 있다. 곡물 100원, 채소(납새) 80원, 의복 120원, 해산물 200원, 전자기기 250원, 고기류 250원 등이다.²⁶⁾ 그러나 2009년 화폐개혁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최근 실제 장세 현황과 비교해보면 10배에서 40배까지 차이가 난다. 통일연구원의 분류에 따르면 청진은 평양, 함흥, 원산, 신의주, 평성, 남포와 함께 1등급으로 분류되어 가장 높은 금액의 장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²⁷⁾ 청진에는 23개의 공식 시장이 존재한다. 청진시에 위치한 시장의 명칭과 규모는 아래와 같다.

시장 이름	위치	면적(㎡)	시장 이름	위치	면적(㎡)
수남시장	수남구역 청남동	30,887	청년공원시장	신암구역 관해동	10,313
봉천시장	나남구역	320	신 신진시장	신암구역 신진동	1,522
방진시장	청암구역	100	송평시장	송평구역 송평동	5,837
낙산시장	청암구역	560	강덕시장	송평구역 강덕1동	1,507
해방시장	청암구역 해방동	1,080	수성시장	송평구역 수성동	747
낙양시장	청암구역 낙양동	2,407	은정시장	송평구역 은정1동	1,581
청암시장	청암구역 청암2동	1,545	제철시장	송평구역 제철동	4,153
연진시장	청암구역 연진동	1,507	낙원시장	나남구역 낙원1동	5,037
관해시장	청암구역 관해동	1,106	나북시장	나남구역 이북1동	6,596
수원시장	포항구역 수원동	12,074	이곡시장	나남구역 이곡동	5,688
남향시장	포항구역 남향동	6,489	산업시장	포항구역 산업동	2,649

[표 4] 참고, 홍민 외, 『2022 북한 공식시장현황』, (서울: 통일연구원, 2023), pp. 148, 149.

청진시 수남구역에 위치한 수남시장은 북한 최대의 시장으로 청진을 북한 물류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수남시장의 규모는 서울 동대문시장의 두 배의 면적을 자랑한다. 초기의 수남시장은 해안방향으로 위치한 화학섬유공장 슬래그 부지(산업폐기물 부지)에 임시로 조성되었다. 1990년대 초부터 주민들은 출입제한으로 통제된 농민시장보다 이용이 편리한 불법 장마당에 집중되었는데, 당시 수남시장의 장소는 불법 장마당 확산을 막기 위해 청진시 당국이 선정한 지역이다. 이후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곳에서 불법 장마당이 확산됨에 따라 지방당국이 산개한 장마당을 한 곳으로 집중하여 수남시장이 되었다.

수남시장은 1996년 이후 급속도로 확장하며 2018년까지 총 5차에 걸쳐 대규모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에는 기존부지의 서쪽 방향으로 두 배로 확장하였으며 2017년 12월 수남시장 남서쪽 화학섬유공장 부지에 6,400㎡ 규모의 시장을 확장했다. 2018년 10월에는 시장 북쪽입구에 1,000㎡ 시장 건물을 추가 조성하였다. 이때 반원통형 지붕을 새로 설치하고 지붕 도색을 통일하는 등 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현대화 작업이 이어져 오고 있다. 수남시장의 확장은 주변지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시장의 북부지역 농경지는 시장과 연계된 건재업, 물류업, 외화벌이 단지로 변모했으며, 시장 동남쪽에는 자전거 보관소가 생기고 시장을 벗어나 서쪽으로 50m 지점에는 수산시장에서 파생된 메뚜기 장이 생겨나기도 했다. 2017년에는 수남시장과 연계된 산업단지들이 청진에 다수 들어섰고,



북한의 주요 시장 (그림 출처: 통일부)

26) 홍민 외, 『2022 북한 공식시장현황』, (서울: 통일연구원, 2023), pp. 50-53.

27) 홍민 외, 『2022 북한 공식시장현황』, pp. 64,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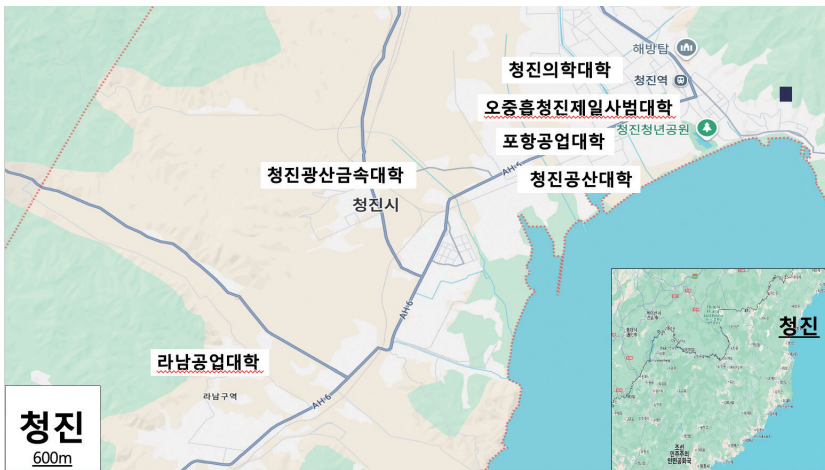
수원시장 중심부 중국옷 판매 구역

2022년에는 시장 주변의 일부 소규모 과수밭과 온실을 제외 하면 대부분의 공간을 물류기업소들이 차지하고 있다. 1990년부터 현재까지 수원시장의 확장 면적을 계산하면 9만4천 평(31ha)에 이른다. 이는 농경지가 시장으로 전환되는 수요의 증가로 인한 시장 확장의 전형적인 예이다.²⁸⁾

수원시장은 2019년 지붕, 매대 전체를 개선하는 작업을 완료하였다. 2010년대 청진시를 해양관광도시화하려는 계획이 추진되며 도심 포항구역의 주거, 관광 분야 건설투자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2019년 수원시장 주변 반경 500m 내에 12-22층의 16개 동 고급 아파트가 건설되는 등 시장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수원시장의 현대화를 추진하였다.

청진시 봉천시장은 기존의 장마당에 2020년 새롭게 시장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에는 1990년대부터 작은 골목 장마당 수준의 시장이 있었는데, 2020년 320㎡ 규모의 시장으로 조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진의 대학²⁹⁾



청진의 주요대학. Google Earth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이미지 날짜: 2025.06.01.)

청진시는 중화학 공업의 중심지로, 청진의 대학들은 주로 이러한 산업적 수요에 맞춰서 전문 인력들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북한에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글을 읽는’ 학생들이 많은데 바로 ‘일하면서 배우는’ 공장 대학의 근로자 겸 학생들이다. 라남구역에 있는 공장대학 ‘라남공업대학’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1984년 세워졌다. 인근 지역의 공장과 기업소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28) 홍민 외, 『2022년 북한 공식시장 현황』 pp 88-90.

29) NKCCC 제공

고등교육을 제공하며, 이들을 해당 산업 부문의 기술 관리자로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졸업생은 현장 직원으로 바로 투입된다. 포항구역에 있는 ‘포항공업대학’ 역시 공장대학이다. 청진시 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지식인으로 육성시킴으로써 나라의 공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표를 표방하고 있다.

청진의 유일한 중앙급 대학으로 ‘청진광산금속대학’이 있다. 청진시는 김일성 시대부터 중공업의 중심지였다. 인근에 북한 최대 철광석 산지인 무산광산이 있고 소위 “북한의 포항제철소”라 할 만한 ‘김책제철련합기업소’가 위치해 있다. 김정일도 아버지의 유산을 계승한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 몇차례 방문하며 인재 양성을 독려할 만큼 청진광산금속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북한의 자원 개발과 중공업 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청진광산금속대학은 청진의 중공업을 이끌어갈 전문 인력을 공급하는 핵심 기관이다. 한 탈북민은 이 대학에는 갱 건설학부가 있는데 광업 인력을 양성하려는 목적보다 남한 침투용 땅굴을 파기 위한 기술을 가르쳤고, 남한 군의 대응에 따라 더 이상 남침 시도가 어렵게 되자 핵실험용 지하 땅굴을 파는 기술연구와 인력 양성에 주력했다고 증언했다.³⁰⁾ 또 다른 탈북민에 의하면 이 학교를 졸업하면 광부가 아닌 당의 간부가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한다.

‘오중흡 청진제일사범대학’은 청진시의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북한은 후대들에게 혁명 정신을 교육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기 위해 학교나 기관에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오중흡’은 김일성과 함께 항일무장투쟁에 참여한 혁명가이다. 북한 사범대학의 교육목표는 체제 유지와 주체사상의 정신을 가르치고 이어나갈 교원을 양성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신뢰도가 학업 능력보다 우선시되며, 입학 후에도 사상 검증이 지속된다. 학업을 마친 졸업생들은 국가 배치에 따라 전국의 학교로 발령되는데 출신 성분이 좋은 혁명가, 당 간부의 자녀들은 평양이나 대도시로 배치되는 반면 토대가 좋지 않거나, 뒷배가 없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방 변두리 학교로 배치될 확률이 높고 향토 발전의 명분으로 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 산골 오지나 외지 분교로 발



청진광산금속대학을 시찰하는 김정은 (사진: 연합뉴스 2009.12.18)



실기 수업중인 대학생들 (사진: 노동신문 2025년 5월2일)

30) “남침용 땅굴 파는법 가르치는 북 대학의 정체는,”.. 서울신문 2023.02.15.

<http://www1.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215500004> (검색일: 2025. 04. 21)

령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전했다.³¹⁾ 이 외에도 청진에는 청진시 안의 당, 기관의 간부를 양성하는 청진공산대학, 보건일꾼을 양성하는 청진의학대학 등이 있다.

6) 청진의 인권 관련 시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현황
(그림 출처: 통일부)

함경북도 청진시 수성동 수성역에서 1.5km거리에 위치한 송골 골짜기에는 '25호 수성교회'가 있다. 함경북도의 교회소로는 회령의 전거리교회와 수성교회가 있는데 그중 수성교회는 정치범수용소로 알려졌다. 수성교회는 현재 북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네 개의 교회소(14호 개천, 15호 요덕, 16호 화성, 25호 수성) 중 하나이다. 북한에서 정치범들이 갇히는 감옥은 교회소와 관리소(수용소)로 나뉜다. 부락 형태로 가족과 함께 수용되는 여타 수용

소와 달리 청진수성교회는 감옥형태로 개인이 수용되고 수감자의 생존률도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성역 청사 옆 건물은 이곳으로 수감되거나 이송되는 정치범들을 특별 관리하는 '연락소'가 있다.

수성교회는 1960년대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6m 높이의 담장에 전기철조망이 쳐져 있다. 이곳에는 2017년 기준 5,000명 정도의 1급 정치범들이 수용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³²⁾ 수성교회소에는 형벌이 무거운 간첩 혐의자와 체제전복, 반당·반혁명 종파분자로 불리는 권력에서 숙청된 자들 그리고 도당 보안부장,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등 고위직 출신들이 주로 수감됐지만 최근에는 탈북하다 붙잡힌 사람들과 종교인들도 수용되고 있다.

교회소 내에서는 라디오에터, 무동력 냉장고, 무쇠밥솥, 재봉틀, 자전거 등을 생산하며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른다. 특히 이곳에서 생산되는 '갈매기' 상표 자전거는 북한산 자전거 중 최고품으로 꼽힌다. 자전거 생산에 필요한 특수강

판은 김책제철소에서 공급받고 있다. 이 자전거는 국가안전보위부나 인민보안성(경찰) 요원들에게 주로 공급되지만 민간인들에게도 많이 흘러들어 부(富)의 상징처럼 여겨진다. 이곳은 새벽 4시 30분부터 하루 일과가 시작되고, 해가 질 때까지 노동이 계속된다. 여름철에는 저녁 8~9시까지 일한다. 야간에는 북한

노동당 규약을 외우고, 노래를 자정까지 배운다. 수감자들은 20명씩 한 방을 쓰며 안에서는 탈주를 막기 위해 2인 1조씩 행동하게 돼 있다고 한다. 두 명 중 한 명이 밤에 화장실에 가도 함께 일어나 가야 한다.

수성교회는 2010년을 전후하여 규모가 580㎡에서 1천㎡로 72% 확장되었다. 당시의 분석으로는 김정일로부터 김정은으로의 권력 세습 과정에서 숙청된 간부들, 중국으로부터 북송된 인원의 증가, 회령 22호 관리소와 북청 18호 관리소의 축소 혹은 폐쇄가 원인으로 지목됐다.³³⁾ 2021년 코로나 시기 경제난에 따른 민심 동요 및 사상 이완에 대한 공포정치의 일환으로 정치범수용소가 확장될 때 수성교회소도 관리 초병을 늘리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³⁴⁾

그 밖에 청진시의 보위부와 함경북도 보안서는 청진시 포항구역에, 청진시 노동단련대는 수남구역 마전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함경북도 집결소는 송평구역에, 라남구역 집결소는 라남구역에, 여행자 집결소는 수남구역 추평동에 위치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북송된 탈북민 중 화룡변방대, 용정변방대, 도문변방대를 통해 북송된 인원은 각각 무산군 보위부, 회령시 보위부, 온성군보위부를 거쳐 송평구역에 있는 청진시집결소에 모여 처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진수성관리소(25호교회소) 주변 연계 (참고: 2025년 5월 탈북민 김OO 인터뷰, 북한연구소, 『북한』 2021년 10월, 598호 p. 145.)

31) “북, 일부 사범대 졸업생들에게 산간오지 학교행 강요,” RFA,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03152022132144.html (검색일: 2025. 04. 21)

32) “Diplomacy in Action, 2017,” (U.S.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 and Labor)

33) 북한, 청진 정치범수용소 크게 확장, VOA 2013. 2. 27, <https://www.voakorea.com/a/1611234.html> (검색일: 2025. 05.. 08)

34) <https://www.dailynk.com/%ea%b5%90%ed%99%94%ec%86%8c%2%b7%ec%a0%95%ec%b9%98%eb%b2%94%ec%88%98%ec%9a%a9%ec%86%8c-%ec%8b%9c%ec%84%a4-%eb%b0%8f-%ea%b4%80%eb%a6%ac-%ec%9d%b8%eb%a0%a5-%ed%99%95%ec%b6%a9-%ea%b3%b5%ed%8f%ac/>



사진 출처 (연합뉴스)

나가며

이상에서 우리는 북한의 대표적인 국제도시인 청진의 탄생과 발전 과정을 정리하였으며, 시장을 중심으로 발전한 청진의 공간구조를 분석하였다. 청진은 한일강제병합과 일제의 대륙진출을 통해 탄생하고 발전한 도시이다. 무산, 부령, 경성 등에서 나오는 천연자원은 청진을 북한 최대의 중공업도시로 성장시켰으며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함경북도의 도소재지로 북한 북부 물류의 중심지가 되었다. 청진의 수납시장은 북한 북부를 넘어 명실공히 북한 최대의 도소매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풍성한 천연자원과 이를 기반으로 한 공업의 발전,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지리적 밀접성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발전한 물류와 시장은 이미 청진을 북한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만들었다. 이후 북한이 제한적으로라도 개방이 된다면 청진에 축적된 물적, 인적 인프라와 청진이 보유한 시장과 네트워크는 도시의 발전과 더불어 외부 세계와의 교류를 위한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청진 도시공간과 일상

이시효 (명지대학교 교육미션센터 연구교수)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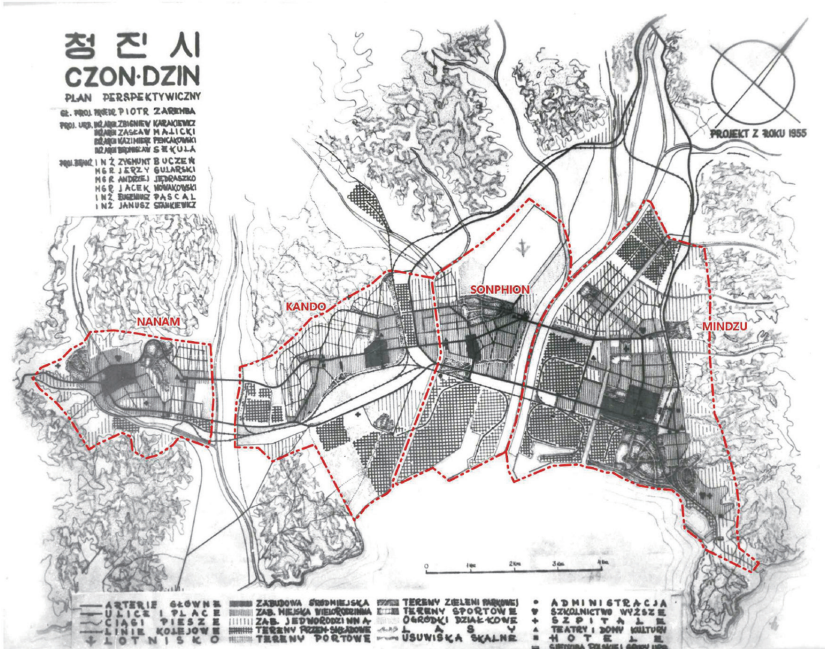
함경북도의 도청소재지 청진시는 1980년대까지 북한의 주요 공업도시 중 하나에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가장 큰 도매 시장이 들어선 최근 북한 변화를 볼 수 있는 대표적 도시이다. 청진시는 물류 유통의 중심지로 철도는 북쪽으로 무산, 회령, 라선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가, 남쪽으로는 수도인 평양이 연결되며, 동쪽 청진항을 통해서는 러시아, 일본 항로가 연결돼 무역 및 밀수를 통한 물품이 집결되는 곳이다. 청진은 북한 변화 연구의 중요성과 비교적 이탈주민 수가 많아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청진 구역별 공간과 일상에 대한 실증적, 양적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글은 위성자료(remote sensing data)와 인터뷰를 통해 아직 논의되지 않은 청진 도시공간의 특성과 일상을 밝히려 한다.

청진에 대한 기존 연구

1900년대 초 청진은 어촌에 지나지 않았으나 러일전쟁 군수품 수송을 위한 철도가 부설되고, 1908년 청진항이 개항하면서 도시가 급격히 발전했으며 1944년에는 인구가 한반도에서 네 번째로 많은 대표적인 '식민도시'가 되었다.¹⁾ 청진은 일본의 대륙침략을 위한 '북선루트'의 식료품 공급기지로 청진항 인근 신암구역이 우선 개발되었으며, 포항구역과 수남구역 일대에는 1930년대 미쓰비시 광업공장, 대일본방직 주식회사가 들어서고 1941년에는 청진제철소가 건설되었

1) 송규진. 2013. "일제강점기 '식민도시' 청진 발전의 실상." 사학연구 제110호. 327-389쪽.

〈그림 1〉청진시 마스터플랜 (1957)



김종연·정인하(2020) 재인용, Zaremba, P.(1957). Polski Projekt Koreańskiego Miasta Czon-dzin, Miasto, 4-11.

획’을 진행했지만, 중앙 당의 자재와 인력 자원 부족으로 미흡한 개발로 중단되었다.⁴⁾ 공업을 기반으로 인구밀도가 높고 북방의 찬 기후와 척박한 땅으로 농업생산면적이 제한적인 청진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도시이다.⁵⁾ 1995년 이후 청진시 전체가 본격적인 식량 미공급에 들어갔으며 도시 곳곳에 시장이 들어서고 수남 장마당이 급격히 커졌다.⁶⁾ 홍민 외(2023)의 연구에 따르면 청진시 시장은 22곳(총 71,892㎡)으로 북한에서 평양 다음으로 규모가 크며 ‘도매시장으로서 압도적 위상’을 갖고 있다.⁷⁾ 시장의 성격도 신의주나 해산이 교역도시로 외지인이 도시로 유입되는 ‘도시 내파’ 성향을 보이는 것과 달리 청진 시장은 주민이 외지 진출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해가는 ‘도시 외파’ 모습을

다.²⁾ 한국전쟁 이후 청진 도시 복구는 폴란드의 도움을 받았으며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했던 평양, 함흥 등 도시와 달리 광장 주변에 문화시설, 학교, 공원을 두는 ‘탈 스탈린식’ 도시계획에 지형과 생활상을 따라 선형도시로 건설되었다.³⁾ 1976년에는 매연과 분진으로 열악한 환경에 거주한 송평구역 노동자를 외곽 라남구역으로 이

보인다.⁸⁾ 공업도시이자 항구도시인 청진은 1980년대에도 재일교포 등을 통해 외국 옷이 유입 및 모방되어 ‘평양보다 유행이 앞서는 도시’로 불렸으며, 시장도입 이후 일본산, 남한산 옷을 정교히 모방해 도매시장을 통해 북한에 유통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⁹⁾

연구를 위한 자료 준비

필자는 청진의 도시공간을 분석하기 위해 청진시 행정구역 1,855㎢ 전체를 7개 구역 122개 ‘동’ 단위로 분리했다.¹⁰⁾ ‘동’ 단위 지리정보는 무료 제공 프로그램인 QGIS(Quantum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활용해 벡터 형식의 디지털 자료(shape file)로 생성 및 분석했다. 청진시 분석을 위해 구분된 7개 구역 122개 동 단위 분할은 〈그림 2〉과 같다.

122개로 분할된 지역에 대해 위성자료를 추출했다. 추출한 자료는 인구수, 건물밀도, 야간조도(불빛)이다. 인구수와 건물밀도는 GHSL Data,¹¹⁾ 야간조도에 VIIRS Data¹²⁾를 추출했다. 필자는 자료를 추출 후 QGIS 프로그램을 통해 122개 지역에 따른 개별 자료의 밀도를 파악해 공간 특성을 분석했다. 이후 청진시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다가

〈그림 2〉남포 122개 ‘동’단위 연구 범위



출처: 필자 작성.

2) 권경선. 2023. “근대 동북아시아 사회 하층 고찰을 위한 기초연구: 근대 청진의 도시화와 주거를 중심으로” 해양도시문화교섭학 제28호. 201-237쪽.; 배석만. 2010. “조선 제철업 육성을 둘러싼 정책 조율과정과 청진제철소 건설(1935-45).” 동방학지 제151집. 331-385.

3) 김종연, 정인하. 2020.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청진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피오트르 자렘바의 도시계획 방법론을 중심으로.” 2020년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40권 제2호(통권 제74집) 2020. 10. 26~10.30

4) 장세훈. 2004. “북한 대도시의 도시화 과정: 청진, 신의주, 해산의 공간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제65권. 296쪽.

5) 강은주. 2015. “북한판 남대문시장, 청진 수남시장” 『월간북한』 7월호.

6) 최봉대, 구갑우. 2005. “북한의 도시 ‘장마당’ 활성화의 동학: 1990년대 신의주, 청진, 해산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8권 3호. 72-110.

7) 홍민, 차문석, 김혁. 2022.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 통일연구원.

8) 장세훈. 2005. “북한 도시 주민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 청진, 신의주, 해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9집 2호. 132쪽.

9) 강은주. 위의 글. 81쪽.

10) 행정구역 상 청진시는 7개구역 93동 14리로 구분되어 있다 (한국평화문제연구소. 『조선향토대백과: 함경북도』 2003. (사)평화문제연구소). 대상 지역은 크게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청진시 동별 행정구역 구분 정보는 도엽번호를 가진 1:5000 종이 지도를 포함해 정확한 자료가 없다. 이에 연구자는 기존 자료와 위성영상을 고려하여 ‘동’을 구분했다.

11) <https://data.jrc.ec.europa.eu/dataset/2ff68a52-5b5b-4a22-8f40-c41da8332cfe>

12) <https://eogdata.mines.edu/products/vnl/#monthly>

남한으로 온 이탈주민 3명(A: 40대 장사, B: 50대 무역, C: 60대 교사)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질문은 청진의 도시공간 위성자료 분석 내용에 대한 교차검토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것이었다.

청진 도시공간의 특성

〈그림 3〉 청진 도시공간 건물밀도 분포 (2020년 기준)



출처: 필자 작성.

거 밀집지역인 청송 1, 2동이, 수남구역은 수남역 인근 말음1동이, 신암구역은 항구 북쪽 근화동이, 송평구역은 제철소 인근 노동자 거주지역인 제철동과 남포동이 건물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라남구역은 도심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게 나타났다.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건물밀도는 낮아지며 농촌지역의 밀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청진시 122개 ‘동’ 단위 공간 인구밀도 현황은 〈그림 3〉과 같다.

청진시 122개 동별 야간조도는 EOG(Earth Observation Group)에서 제공하는 VIIRS(resolution 463.83m) 자료를 추출했다. 야간조도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변수로 북한 연구에서도 경제활동과 야간 시간 활동, 빈곤 지역연구에 사용된다.¹³⁾ 남포의 도시 경제 상황을 간접적으로

위성자료를 분석 결과 청진 도시공간은 장소에 따라 서로 다른 공간적 특성을 보인다. 먼저 ‘동’별 건물밀도 결과는 도심지역인 포항구역과 수남구역, 송평구역, 신암구역 도심지역 밀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건물밀도가 높은 곳은 도심 고위층 주거지역, 공업지역 노동자 주거 밀집지역 인근이었다. 구체적으로 포항구역은 광장 북쪽 주

확인할 수 있는 야간조도를 분석해 보면, 대체로 건설이 집중된 도심지역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4〉 참조). 하지만 〈그림 3〉의 건물밀도와 야간조도는 ‘동’별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건물밀도는 도심쪽이 가장 높은 반면 야간조도는 기차역과 바닷가 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야간 불빛의 특성상 야간 활동이 활발한 지역의 불빛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된다. 야간 밀도가 높게 나타난 지역은 청진역 인근 청암구역 역전동과 포항구역 수원1동, 제강소 인근 남강2동,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송평역 인근 서향2동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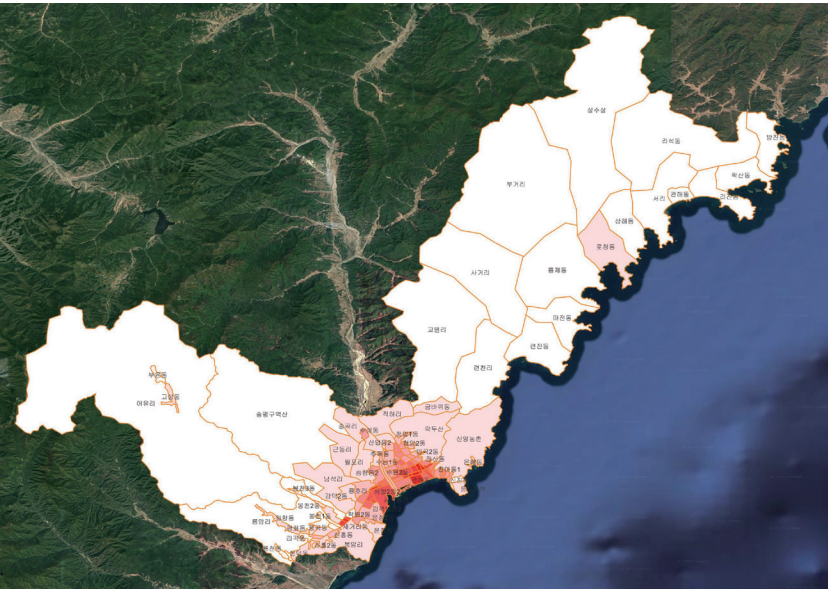
청진시의 일상

청진시 출신 3명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청진시 주민들은 청진을 ‘제2의 평양(A)’이라 불릴 만큼 경제력을 가진 도시로 인식하고 있었다. 경제난 이전 1980년대 청진에는 외국 상선이 드나들고 이들을 위한 외화상점이 있어 길거리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인을 일상적으로 볼 수 있었다(A). 그들은 다른 지역 주민들을 만날 때 ‘자부심은 아니더라도 밀리지 않는다(C)’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청진을 그래도 북한에서는 제일 살기 좋은 곳이라고 자칭하며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국경이 가까우니까. 국경 쪽에서 중국 분들이 많이 넘어오니까 사람들이 유통하기도 사는 데도 좀 유리하지. (B와 인터뷰)”

청진은 1990년대 경제난과 대량 아사가 발생한 ‘고난의 행군’을 심각하게

〈그림 4〉 청진 도시공간 야간조도 분포 (2024년 기준)



출처: 필자 작성.

13) Lee, Si-Hyo., Suh, Moon-Gi., Kim, Sung-Bae and Baek, Myeongsook. (2024). Urban poverty patterns in Pyongyang (North Korea): A deep-learning-based spatial analysis. Cities 151. <https://doi.org/10.1016/j.cities.2024.105109>

겪은 도시다. 청진은 농경지 면적이 작고 공업도시로 대부분 주민이 제철소 노동자였다(A). 경제난에 따른 배급 중단은 공업 중심 청진에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할 만큼 어려움을 주었다(C). 2000년도 초 라남구역에 거주했던 C는 아사자와 생계를 찾아 중국에 간 주민들로 아파트는 곳곳이 비거나 관리되지 않아 ‘유령도시 같았다’고 증언했다.

“배급을 안 주니까 굶어 죽는 사람 길에서 이 옆에서 이렇게 죽어서 누워 있는 시체들을 그때는 경험할 정도로 엄청 심각했거든요... 94년도부터 한 5년을. 98년부터 조금씩 조금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TV 가지고 나가서 진짜 강내이 10kg, 5kg 바꿀 정도로 그때가 많이 심각했거든요. (B와 인터뷰)”

농경지가 적고 노동을 통한 배급 체계가 붕괴된 이후 청진 주민들은 교통의 집결지이자 국경 인접 도시라는 특성을 활용해 장사와 밀무역에 뛰어들다(A, B). 특히 라선 경제특구가 발달하면서 중국과 교류가 해산-청진-라선 루트로 확장되면서(B) 청진 시장은 북한 최대 도매시장인 수남시장을 중심으로 확장되었다.

“평양 다음에 청진이지 않을까. 모든 물품이 이게 삼각 지점이, 전국 각지의 물품이 다 여기서 모여서, 또 전국 각지로 다 퍼져 나가고 하니까. 전국 각지의 도매지라고 보면 되죠. 아마 평양보다도 사실은 전국 각지 이게 도매 유통이 더 잘 된다고도 볼 수 있죠. (B와 인터뷰).”

청진에 부유층과 빈곤층, 재일교포 거주지역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다(C). 하지만 인터뷰에 따르면 구역별로 거주자 특성에 차이를 보이는데 도심 지역인 포항구역, 수남구역, 신암구역은 주로 고위층과 부유층이, 라남구역은 상대적으로 중하층 노동자 거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 B, C). 특히 고위관료와 부유층은 포항구역 수원동과 남강동 최근 건축된 고층 아파트와 신암구역 산 중턱 고급 단독주택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인다(B, C).

“도당 간부들, 시당 간부들이 사는 동네가 따로 있거든요. 국가가 지어준 집이고, 임기가 끝나면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는 이런 사택들이 있거든요. 독채로 멋있게 지어진... 신암구역 해안동, 신암동, 천마동에 (이런 집들이) 대체로 집결돼 있거든요. 골짜기 보면 그 집들이 ‘휴양소인

가’ 이럴 정도로. (C와 인터뷰)”

시장이 발달하고 물품이 모이는 청진은 외부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으며, 이는 주민들의 생각의 폭을 넓히고 있다. 국경 도시 청진은 TV에 중국 드라마 방송이 잡히며(A), 시장을 통해 중국, 한국 드라마 등을 접한 기회가 많다(B, C). 주민들은 드라마를 통해 한국이나 중국의 발전된 모습을 알게 되었으며, 패션과 사상 등의 영향을 받는다(A, B).

“자본주의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생활 수준이, 지금 세계적 수준은 이렇구나’하는 게. 뭐 영화마다 다 거짓말이겠어요. <가을 동화>도 그렇고, <아름다운 날들> 이런 것들 보면 그게 지금 현실이 그대로 반영돼 있고. <남자의 향기> 무슨 이런 게 다 좋은 배경만은 아니더라고요. (그걸 보셨을 때 진짜일 것 같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렇죠. 청진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지금 흐름은 어떻고 국경에 지금 중국 쪽에 가면 어떻고 이런 걸 많이 깨고 알고 접하고 있지. (B와 인터뷰)”

나가며

중국과 러시아 국경에서 멀지 않은 청진은 회령, 무산, 온성, 라선 등을 통해 외국 물품이 집결되고 북한 전역에 전파되는 도매시장의 중심 도시이다. 1930년대 중공업도시로 성장한 청진은 1980년대까지 북한의 주요 공업도시로 역할을 했지만, 1990년대 경제난 이후 물류 도시로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에도 청진시의 위상은 떨어지지 않고 ‘고난의 행군’ 이후 오히려 경제적 부에 자유로운 시장체제를 더한 발전을 이루었다(B). 위성자료 분석 결과 청진은 포항구역, 수남구역, 신암구역 등 도심을 중심으로 건설활동과 경제활동이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는 청진시 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서도 검증되었다. 완고한 전체주의 성격의 정치체제와 비교적 자유로운 시장활동이 공존하는 청진시는 현재 북한 사회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곳이자 미래 라선과 회령 국경지역의 개방, 통일 시대 한반도 북동쪽 핵심 도시 발전상을 가늠할 수 있는 도시이다. 향후 청진시에 대한 관심과 많은 연구가 이어져 통일 시대 발전과 복음 전파에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

철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 청진시 공간구조

김병욱 (사단법인 북한개발연구소 소장)

I. 청진시 역사와 지역 발전의 뿌리

북한 지역에는 전국적인 철강재 생산의 1위로 불리며 최근에는 주체철 생산의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청진시가 있다. 지역 인구수에서 평양시, 함흥시에 이어 세번째라고 하지만, 이곳 주민들은 광복 전 항일투쟁 업적, 그리고 광복 이후 북한 정권 창출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업적 등으로 으뜸가는 도시로 여기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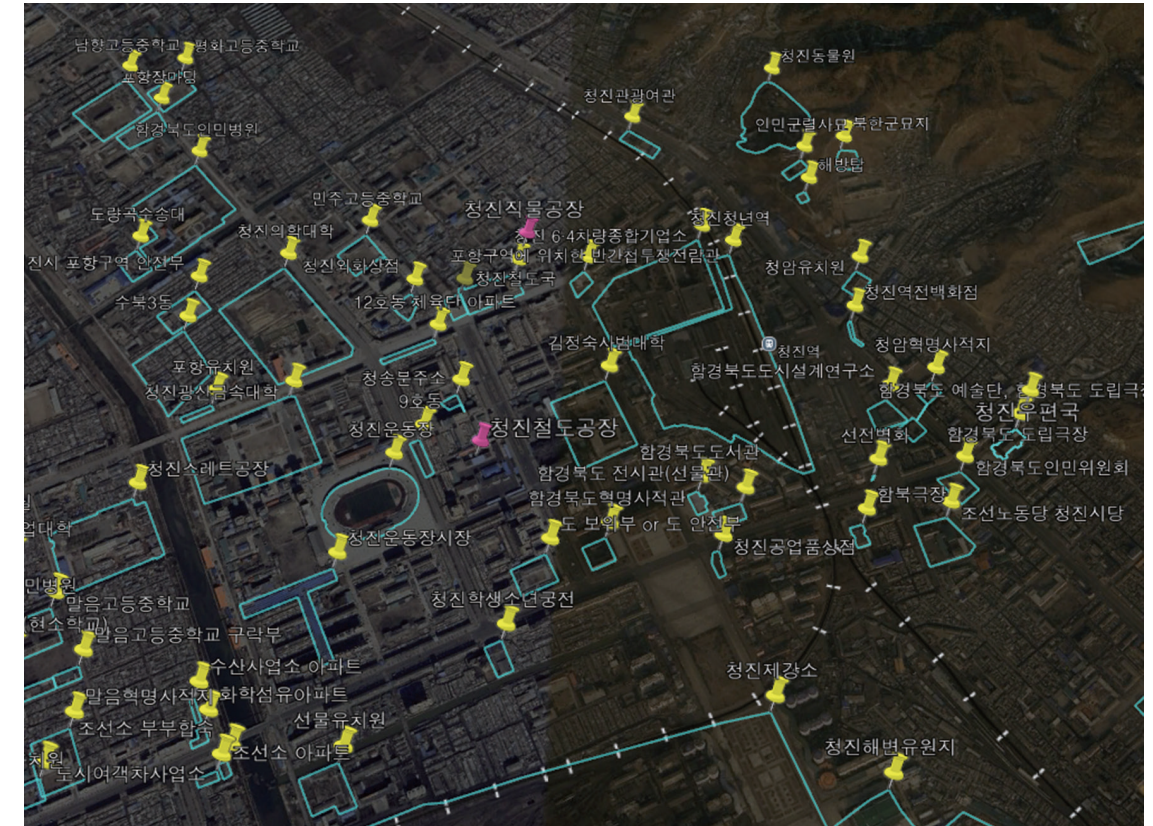
청진시는 북한의 함경북도 동해안에 있는 항구도시이자 도청 소재지이다. 북부는 부령군과 회령시, 경흥군과, 서부는 무산군과 경성군, 동부는 나선시와 접해있으며 남부는 동해에 면해있다.

청진시 구역별로 인구수를 보면, 김책제철연합기업소나 청진화력발전소가 있는 송평구역이 제일 많고 산지가 많은 부윤구역이 제일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제강점 이후 청진 지역은 한반도 북쪽으로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동북쪽으로는 중국 침략을 위한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과 자본세력의 공동의 이해관계에 의해 산업지형이 이루어졌다. 당시 일제는 대륙침략에 양호한 한반도의 전략적 위치에 일본군을 배치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 광복 전 한반도에서 일본군이 주둔한 지역이 두 곳이었는데, 한 곳은 19사단이 주둔하였던 오늘의 청진시 나남구역이고 다른 한 곳은, 20사단이 주둔하였던 서울시 용산구이다. 청진지역은 태평양전쟁 말기에는 소련군이 당도한 최남단 지역이었으며, 한국전쟁 당시에는 국군 수도사단이 점령했던 지역이기도 하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청진시는 폴란드의 지원하에 도시설계가 이루어졌는데, 이 지역의 산업은 경공업 우선이나 중공업 우선이나, 기계에서 밥이 나오느냐는 논란속에 김일성이 중공업우선정책을 표방하면서 급속히 성장했다.

〈표 1〉 청진지역 주요 기관 배치



II. 기능별 분포: 산업, 행정, 주거의 배치

청진시 중심부는 포항구역이며 부윤구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동해안을 접하고 있다. 이 지역의 산업 및 주거 공간구조는 기능별로 뚜렷하게 분화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과 사회 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암구역에는 북한에서 남포항 다음가는 청진항이 있다. 동향과 서향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무역화물, 여객선박, 수산선박 등 7개의 전용부두가 있다. 포항구역에는 청진제강소, 청진철도공장, 청진공작기계공장, 청진정밀기계공장, 신발공장, 조선옷공장, 관공장 등이 있다.

송평구역 제철동에는 김책제철연합기업소가 있다. 무산광산에서 생산된 철광이 열차와 수송관을 통해 공급되며, 생산된 선철, 철강재 등은 전국각지로 공급되고 있다. 이 지역의 대부분 공장, 기업소, 사업소는 김책제철소와 연계되어 있다. 청진 서향의 경우 김책제철소 원료 자재운반으로 특화된 항구이며, 청진화력발전소가 인근에 있어 김책제철소의 전력을 담당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제2금속연합기업

소, 청진벽돌공장, 칠보산제약공장 등이 있다. 수남구역 어항동에는 북한에서 3대 조선소의 하나인 청진조선소가 있으며 청남동에는 청진화학섬유공장이 있다.

나남구역은 청진시 중심에서 35km 떨어진 지역으로, 뒤늦게 형성된 구역이다. 1990년대 초반에 있는 ‘6군단 사건’¹⁾으로 한국사회에 알려진 지역이다. 함경북도 최대 기계산업지이며 나남탄광기계연합소, 나북천기계공장, 관모봉기계공장 등이 있다. 북한에서 4대 제약공장에 속하는 나남제약공장이 이곳에 위치해 있다. 또한 이 지역에는 나남자전거공장, 나남농기계공장, 난남견직공장 등 주요 경공업공장들이 있다.

청진지역의 주거 공간은 사회적 계층에 따라 뚜렷하게 구분된다. 포항구역과 신암구역은 고층 아파트가 밀집한 상류층 주거지역으로, 당 간부, 외화별이 기관 종사자, 특수기관 관계자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다. 신암구역은 해변에 가까우며 자연 지리적 환경이 좋다. 청진시 당위원회, 함북 일보사, 함경북도 임업관리국 등이 있다. 주요 문화관광시설로 도 예술단이 있으며,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천마산 호텔, 청진시 최대 규모의 놀이공원 등이 있다. 대남연락소 출신 아파트 등 특수계층이 대거 밀집해 있다. 중산층은 청암구역 해방동, 포항구역 수원동, 나남구역 새거리동과 나흥동 등에 분포해 있다. 노동자 계층은 산업시설이 위치한 송평구역과 수남구역에 주로 거주한다. 송평구역은 산지와 평지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시가화 구역에서 가장 넓은 평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청진 핵심산업의 중심지이다. 부윤구역은 나북천과 남석천 등으로 흘러내려오는 하천들이 부윤구역의 산줄기에서 이 지역에서 시작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산간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니켈광산과 군수공장인 동해약전기계공장이 있다. 사람이 살기 척박한 지역이며, 청진시에서 추방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항구역은 함경북도 및 청진시의 주요 행정 및 정치 기관이 집중된 지역이다. 도당위원회와 도 인민위원회, 도 안전국과 시 안전국, 도농촌경영위원회 등 지역의 핵심 기관들이 위치하고 있다. 함경북도 혁명사적관, 도립극장 등 문화·예술·체육 관련 시설도 있다.

청암구역의 시가지는 대부분 주거지와 공공기관 또는 사업소가 있으며, 외곽 지역으로는 작은 규모의 수산 기지들이 위치하고 있다. 함경북도 보위부, 청진시 도시설계 사업소를 비롯한 여러 사업소들이 있다. 청암구역에는 여러 가지 광산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금바위동에 위치한 석회석광산과, 자철광 광산이 대표적이다. 청암구역에는 청진동물원, 청진학생회관 등 문화 여가 시설이 있으며, 소련군

묘소, 전쟁승리 기념탑 등 기념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수남구역은 포항구역과 마찬가지로 산지가 없고 평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해바다와 인접해 있다. 이 지역에는 항공관련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청진항공대학이 있으며 공군인력을 양성하는 김책공군대학이 있다.

나남구역에는 나남공설운동장, 나남청년공원과 김진군관학교(대학편제), 나남설계전문학교, 청진산업전문학교, 함경북도자동차운전사학교, 청진농업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외 도육아원, 도애육원, 도초등학교와 같은 특수시설도 있다.

Ⅲ. 연결과 구조: 축선, 위계의 형성

청진시의 공간구조는 철강재 생산의 집단화와 주민 생활의 집단관리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북한당국의 계획적인 설계를 통해 형성되었다.

도시의 산업 기반은 주로 청진 남동부 연안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 지역에는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청진제강연합기업소, 청진조선소 등 중공업 기반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청진항과 철도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원료의 해상 수입과 철도 운송, 그리고 제품의 내륙 이동 및 수출까지 일관된 물류 흐름을 가능하게 하여 생산 효율을 극대화한다. 즉, 항만과 철도를 중심으로 한 산업벨트가 해안선을 따라 구축되어 있다.

주거지역은 산업 생산지와 연계되어 설계되었다. 송평구역이나 나남구역 등 노동자들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과 기업소와의 거리를 최소화하여 대부분 도보로 통근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생활과 생산을 통합된 단위로 관리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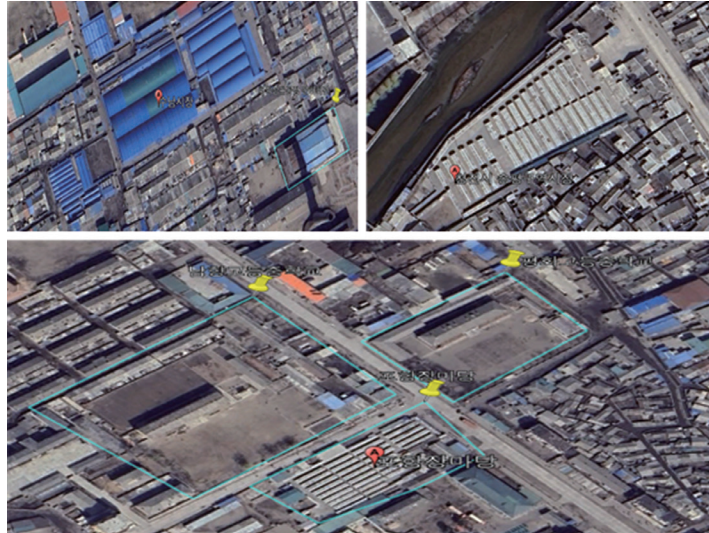
도시 전체는 포항구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중심부에는 행정, 교육, 문화 기능이 집중되어 있고, 이로부터 산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바깥으로 퍼져 나가는 구조이다. 이 구역들 사이의 연결은 도로와 철도를 통해 이루어지며, 특히 청진-김책-회령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은 산업물류의 중심축이자 청진의 산업 기반을 외부 지역과 연결해주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한다.

또한, 나북천, 남석천 등 주요 하천은 산업지구와 주거지구,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을 자연스럽게 구분짓는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도시 확장의 물리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계획적 도시관리와 집중화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1) ‘6군단 사건’은 군단장을 비롯해 군 고위 관료들이 중국을 통해 한국의 안기부와 접촉하여 북한 군 정보를 유출하고, 드러나게 되자 반란을 시도했던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Ⅳ. 청진시 내 시장의 공간구조와 기능

〈표 2〉 청진지역 주요 종합시장



청진시에는 6개 구역에 약 20개의 종합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곳 시장은 지역 경제와 주민 소비 생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곳은 수남종합시장이다. 청진시 최대 규모일 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도매시장이다. 수남시장은 약 30,887㎡로 북한 전국적으로 면적에서 1위를 차지한다.²⁾ 이 시장은 품목별 전문 매대를 갖추고 있어, 공업품, 육류·수산물, 종교 의류, 잡화 등 다양한 상품이 분류되어 판매된다. 특히 종교 옷 시장은 평안남도 평성의 '옥전시장'과 더불어 북한 내 대표적인 의류 유통 거점으로 평가된다.

청진시의 종합시장들은 무산, 회령, 남양, 삼봉 등 육로 통로를 통해 중국산 원자재와 제품을 전국으로 유통하고 있다.

Ⅴ. 철과 주민 삶의 축소판

청진지역은 철이 도시를 만들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곳이다. 뜨거운 쇳물이 골조를 세우고, 집단거주지와 산업시설은 체제가 요구한 질서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지역의 공간구조는 단순한 지리적 배치를 넘어, 역사와 산업, 체제와 주민들의 삶이 복잡하게 얽힌 하나의 공간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도시의 공간구조는 기능적으로 분화되었지만, 그 안에서의 삶은 체제와 산업, 역사와 일상이 겹쳐있다.

청진지역은 "강철로써 당을 받들자"는 구호 아래, 청진은 북한 산업의 중추로서 철과 사람, 체제와 시장이 충돌하고 공존하는 삶의 현장이다.

청진지역의 공간구조는 철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의 물리적 배치를 넘어, 북한 사회에서의 철과 주민들의 삶을 이해하는 축소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

2) 홍민 외,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 KINU 연구총서 22-28, p.39.

청진시장의 어제와 오늘

백명숙 (송실평화통일연구원 북한도시연구단
한하나로연구소 연구위원)

함경북도의 항구도시이자 경제개발구인 청진¹⁾은 북한에서도 시장이 상당히 발달된 도시로 손꼽힌다. 청진은 해상무역이 가능한 지리적 위치와 함께 북한의 다른 도시와는 차별화된 도시구조를 가지고 있는 도시이다. 또한 중국과 인접한 접경도시와 북한 내륙도시에서 유입되는 다양한 인적/물적 교류가 가능한 도시이기도 하다.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청진은 북한 전역에서 도매시장으로는 압도적인 우위를 자랑하는 곳이 되었다. 이 글에서는 청진시장의 발달을 가능하게 했던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고 청진시장의 발전양상을 논한다. 이어서 청진시장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시장상인 간 비공식 송금 네트워크를 소개하고 향후 청진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전망한다.

1. 시장발달을 가능하게 한 청진의 지역적 특성

1900년대 청진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각축장으로 활용되었던 한반도의 상황이 압축된 도시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청진이 속한 함경도는 중국과 러시아의 팽창이 표출되는 공간이었다. 1860년 북경조약으로 인해 연해주가 러시아의 영토가 되면서 러시아는 미개척지 개발을 위해 농민들과 국경수비대를 연해주로 이주시켰다. 그 과정에서 함경도 변경민과 연해주 거주민 간의 다양한 교역이 밀무역의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함경도는 중국과 러시아의 접경지대로서 물적, 인적 자원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었다. 함경도 중에서도 특히 청진은 동해를 인접하고 있어서 만주와 러시아로 진출하기 위한 일본의 거점도시로 활용되었다. 이전까지 청진은 함경도 중동부의 작은 어촌에 불

1) 북한 “청진, 국제화물중계수송 결합한 경제개발구로 건설”. The NK Economy 2022년 7월 8일 기사.
<https://www.nk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75>



청진 시내 전경(사진 출처: SPN)

과했지만 1904년 러일전쟁을 계기로 일본의 군수물자 운송을 담당하는 곳으로 주목되었고, 1908년 청진항이 개항하면서 일본군인들과 일본 상인들의 만주 진출의 교두보가 되었다. 일본은 청진을 항구로만 활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국 길림과 함경북도 회령을 잇는 길회선 부설계획을 실행하며 만주 진출을 구체화하면서 청진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다(송규진, 2012; 이은상, 2020). 이

후 청진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었다. 청진은 조선의 미곡 수출과 일본의 공산품 수입을 담당하는 지방 대도시로 성장한다. 1930년 식민지 공업화 과정에서 일본은 청진제철소, 청진제강소, 청진화학섬유공장 등 주요 공업시설을 건설하며 청진은 중공업 도시로 급성장한다(장세훈, 2004).

이처럼 청진에서는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강대국들의 각축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집단의 교차가 형성되면서 무역과 시장거래, 중공업이 발달한 도시로 성장하게 된다. 이와 같은 특징은 한국전쟁 이후 청진에 대한 북한 당국의 도시계획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제 강점기에 조선 식민통치의 거점으로서 그 역할을 이루기 위해 건설되었던 청진의 행정기관, 시가지, 도로, 중공업 시설과 같은 도시 인프라는 전쟁 속에서도 비교적 손실이 적었다. 전쟁 이후 북한 당국은 식민지 잔재 청산과 전후복구를 위해 북한 전역에 국가주도형 사회주의 도시를 건설하고자 했다. 그러나 청진의 도시계획은 폴란드의 도시계획가 피오토르 자렘바(Piotr Zaremba)에 의해 평양이나 함흥 등 북한의 다른 도시들과는 차별화되었다. 자렘바는 국가주도 사회주의 도시화의 원칙보다는 현실 논리에 더 충실하게 청진의 도시계획을 구상하였다. 그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사회주의 도시화를 무리하게 재건하기보다 일제가 수립한 도시계획의 골격을 근간으로 기존의 도시 인프라를 복구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그 결과 청진시에는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시가지의 형태와 도로망이 거의 복원되었고 전쟁 중에 파괴되지 않은 행정기관 등은 보수해서 재사용되기도 했다. 자렘바는 또한 기존의 사회주의 도시가 국가주도형 방식으로 계획되어 공업단지에만 공공 서비스가 집중되는 것을 비판하고, 청진의 도시계획에는 전망설계, 순

차발전계획, 최종계획이라는 세 단계를 적용했다. 이 세 단계의 핵심은 도시의 환경과 기후를 고려한 합리적인 시안의 선택, 도시 발전의 기간을 순차적으로 발전시킨 뒤 최종계획을 통해 사회주의 유토피아적 계획이 아닌 국가계획의 현실에 따라 도시를 짓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렘바의 도시계획을 통해 청진시는 민주지역에 도로망과 공공시설이 형성되었고 송평지역에는 대규모 공장들과 항만시설, 공항, 다가구 주택구역이 형성되었다. 또한 강덕지역과 나남지역에는 주택구역이 조성되었다. 탈 스탈린식 도시계획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렘바의 도시계획이 적용된 청진에는 중앙 광장에 문화시설, 학교, 공원과 같은 공적인 공간이 배치되었고 철도와 간선도로를 통해 4개 지역의 중심구역이 연결되었다(장세훈, 2004; 김종연, 정인하, 2020)

2. 청진시장의 발전양상

국가주도 사회주의 도시계획이라는 청사진 위에서 북한의 도시공간에는 사회주의 이념이 구현되었다. 도심의 중심에 위치한 기념탑과 정치행사를 하기 위한 대규모 광장, 공장과 기업소를 중심으로 배치된 살림집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도시에도 시장은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해 왔는데, 첫 번째가 바로 농민시장이다. 농민시장은 북한 당국이 사회주의 공급망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합법적으로 허용한 일종의 재래식 시장이라 할 수 있다. 청진에도 1950년대 말에 신암구역의 근화시장, 송평구역의 송평시장, 청암구역의 인공시장 등이 설치되었으며 이 시장들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기간에 주민들이 애용하던 공간이 농민시장으로 발전한 것이다.

사회주의 이념으로 채워진 북한도시에 출현한 또 다른 형태의 시장은 바로 장마당이다. 1990년대 전후 대기근 시기를 지나며 북한 전역에는 국가가 허용한 농민시장보다 암시장의 성격이 강화된 장마당이 빠르게 형성되었다. 장마당은 각 도시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을 했는데, 그중에서 청진의 시장은 북중 접경지역과 내륙에 위치한 대도시를 연결하는 경유의 역할을 하면서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청진에는 도시계획을 통해 4개 중심지역이 서로 연결되는 철도와 간선도로가 있어서 물자의 유통이 용이했다. 또한 청진은 무산, 회령-셋별, 두만강-라선지구로 나가는 삼각지의 중심에 위치했기 때문에 평양과 같은 북한의 내륙도시와 온성, 무산,



2013년에 촬영된 청진 시장의 모습(사진 출처: 아시아프레스)

〈그림 1〉수남시장 매대 위치



Google Earth 위성사진에 탈북민의 면접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해 들어오는 일본 선박의 수입물자들도 청진의 시장들을 활성화시키는 주요한 공급원이 되었다. 그 결과 현재 청진시에는 22개의 종합시장이 존재하며, 청진시의 시장들은 북한 전역에서 도매시장으로서의 압도적인 위상을 갖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청진에는 북한 최대의 도매시장으로 꼽히는 수남시장이 있다(홍민 외, 2022). 수남시장은 1990년대 초반~2004년을 지나면서 형성되었고, 초기에는 잡화, 가공식품, 식량, 조미료, 과일 등 생필품을 파는 종합시장의 형태였다. 이어서 수남시장에 2005년~2006년 사이 공업품목 매대가 추가되고 2006년에는 수산물 도매와 중고 옷 도매 매대로 규모와 품목이 추가되었다(홍민 외, 2016). 최근 촬영된 위성사진에 의하면 수남시장이 기존 재래시장의 모습을 탈피하고 현대화된 건물로 외관이 바뀌었으며 면적도 확장된 것을 알 수 있다²⁾. 필자는 〈그림 1〉과 같이 위성사진에 탈북민 면접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청진 수남시장의 매대 위치(2019년 기준)를 재구성하였는데, 수남시장의 매대는 크게 잡화시장, 공업품시장, 수산물 시장 등으로 구분되며 내부와 외부에 별도의 도매시장들이 있을 정도로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

3. 청진-회령에서 시장 상인 간 비공식 송금 네트워크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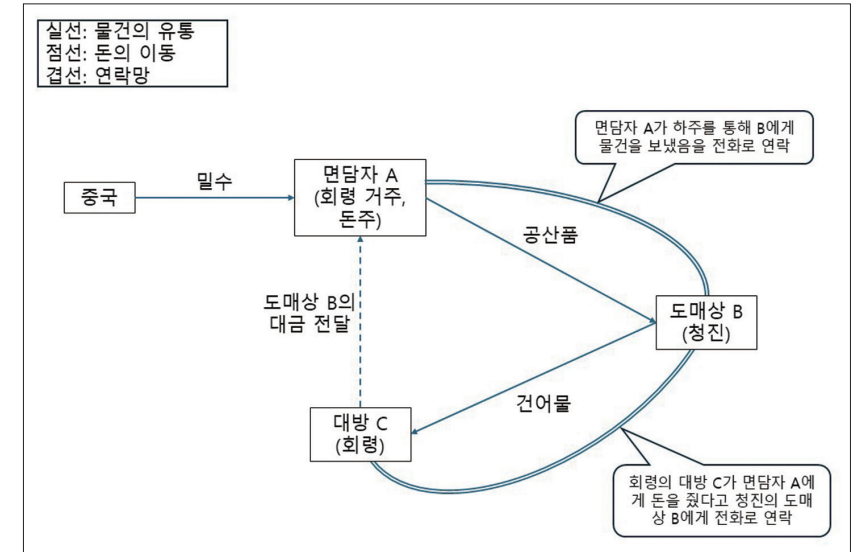
청진의 시장은 북중 접경지역과 북한 내륙을 연결하면서 성장해 왔는데, 이러한 시장의 발달은 사금융의 발달로도 연결된다. 청진시장을 비롯한 북한의 시장에는 타지역 상인들 간 원거리 송금을 가능하게 하는 촘촘한 메커니즘이

라선 등 북한의 접경도시의 연결고리가 되면서 상인들의 왕래가 증가했다(강은주, 2015). 이 과정에서 북한에 친척이 있는 화교들의 방문을 통해 외부 물자들이 청진으로 유입되었다. 육로를 통한 물자 이외에도 청진항을 통

존재한다. 북한에서 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은행이나 체신소를 통한 공식 송금 시스템보다 상인 간 사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비공식 송금(이관집)을 주로 이용하며, 비공식 송금은 시장 상인들 사이에 구축된 신뢰나 평판, 소문, 인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그림 2〉는 필자의 면접조사를 통해 청진과 회령의 시장 상인들이 신뢰와 인맥을 바탕으로 먼 거리에서도 송금을 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2〉에서 실선은 물건의 유통이며 점선은 돈의 이동, 겹선은 전화를 통한 연락망이다. 면담자 A는 회령시에서 돈주로 활동하면서 쌓은 인맥을 활용하여 청진을 대상으로 원거리 거래를 했다. 우선 면담자 A는 중국에서 사온 물건(공산품)을 하주(남한의 택배와 같은 개념)를 통해 청진의 도매상 B에게 보낸다. 그리고 면담자 A는 청진에 사는 B에게서 받을 물건의 대금을 제3자인 회령에 있는 대방 C에게서 받는다. 왜냐하면 청진의 도매상 B와 회령에 있는 대방 C는 또 다른 거래 관계이기 때문이다. 회령에 사는 C는 청진의 B에게 하주를 통해 물건(건어물)을 전달받고 그 물건값을 청진의 B가 아닌 회령의 A에게 주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회령의 돈주 A와 청진의 도매상 B는 대방 C를 통해서 물건값을 서로 주고 받으며 원거리 송금을 한다. 탈북민 면접에 의하면 북한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원거리 송금은 그 성공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 회령과 청진에 있는 상인들이 오래된 시장거래로 인해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고 상호 신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백명숙, 2019; 백명숙, 서문기, 2024). 이와 같은 청진-회령 상인들 간에 이루어지는 비공식 송금의 사례는 청진시장의 역동적인 면모를 잘 보여준다.

〈그림 2〉청진-회령 상인 간 비공식 송금의 작동 메커니즘



출처: 백명숙, 서문기(2024)의 그림을 일부 수정

2) [경제와 우리 생활] 북한 도매시장, 수남시장이 커지고 있다. RFA 2023년 9월 29일 기사.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acbdc81cc640-c6b0b9ac-c0ddd65c/nkeconomy-09272023151441.html



북한의 장마당(그림 출처: 세계일보)

4. 청진시장의 발전 가능성과 전망

청진시장의 발전 가능성은 청진의 지정학적 위치와 관련이 깊다. 청진은 중국과 러시아의 동해진출에 있어서 중요한 관문이자 중계무역의 거점지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 동북 3성 물류의 동해 진출,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연계한 아시아-유럽 간 물류 노선의 구축

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당국의 청진경제개발구 지정은 기존에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청진시장의 활기와 더해질 때 북한의 경제성장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기대는 대북 제재나 남북관계의 단절 및 러-우 전쟁과 같은 국제정치의 역학 속에서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청진 시장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외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당국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협조가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점진적 시장개방을 향한 북한당국의 제도개선이 필요하겠다. 🐟

참고문헌

- 강은주. (2015). 북한판 남대문시장, 청진 수남시장. 북한, (523), 75-83.
- 강진규. (2022, 7월 8일). 북한 “청진, 국제화물중계수송 결합한 경제개발구로 건설”. The NK Economy. <https://www.nk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75>
- 김종연, 정인하. (2020).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청진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 피오르트 자렘바의 도시계획 방법론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40(2), 274-277.
- 백명숙. (2019). 북한시장 작동의 제도적 기반에 관한 실증연구 : 7개 도시의 소비재 시장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백명숙, 서문기. (2024). 북한의 비공식 송금제도 ‘이관(移貫)’의 작동 패턴에 관한 연구 : 공식 및 비공식 제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제도와 경제, 18(2), 137-166.
- 송규진. (2013). 일제강점기 ‘식민도시’ 청진 발전의 실상. 사학연구, (110), 327-389.
- 이은상. (2020). 식민지 시기 조선 청진학교의 위상. 동양학, 78, 117-140.
- 장세훈. (2004). 북한 대도시의 도시화 과정 -청진, 신의주, 해산의 공간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65, 260-307.
- 정영. (2023, 9월 29일). [경제와 우리 생활] 북한 도매시장, 수남시장이 커지고 있다. RFA.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acbdc81cc640-c6b-0b9ac-c0ddd65c/nkeconomy-09272023151441.html
- 홍민, 차문석, 정은이, 김혁. (2016).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 홍민, 차문석, 김혁. (2022).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 통일연구원.

닫힌 문 너머의 청진(淸津) - 다시 국제도시를 꿈꾸다

전병길 (에스이노베이션 대표)

김만철 일가의 탈북 사건과 청진(淸津)

1987년 겨울, 북한 청진항에서 한 가족이 조용히 항해를 시작했다. 매서운 동해의 겨울바람을 가르며, 작은 목선 하나가 남쪽을 향해 나아갔다. 그들의 목적지는 단순히 남한이 아니었다. 그들은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꿈꾸었다. 그 배를 이끈 사람은 김만철. 그는 청진 의과대학병원에서 일하던 평범한 의사였다.

이 항해는 곧 분단 이후 최초의 ‘집단 탈북 사건’으로 기록되었고, 전 세계의 이목을 한반도로 집중시켰다. 그 출발지가 바로 북한 동해안의 항구 도시, 청진이었다.

김만철 씨와 가족 11명은 1987년 1월 15일 새벽 1시, 함경북도 청진항을 몰래 빠져나왔다. 청진은 북한 동해안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로, 한때 중공업과 조선업의 중심지였고, 동북아 국제무역의 거점으로 활약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며, 체제의 경직성과 자원 고갈로 인해 청진은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고, 주민들은 극심한 굶주림과 강압적인 통제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진은 항구 도시라는 지리적 특성 덕분에 바다를 통한 탈출이 가능한 몇 안 되는 지역 중 하나였다. 김만철 씨는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던 의사였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해 가족과 함께 고향을 떠났다. 그들은 일본과 대만을 거쳐 1987년 2월 8일 한국으로 귀순했다.

청진(淸津)은 단순한 북한의 지방 도시가 아니다. 이 도시는 한반도의 북동 끝자락에 자리잡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언제나 ‘세계와 만나는 창’ 역할을 해왔다. 항구에서 출항하는 선박, 철도를 따라 달리는 화물열차, 도크에서 출항을 기다리는 배들은 모두 이 도시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국제



[그림 1] 1987년 청진에서 해상으로 탈북하여 일본, 대만을 거쳐 한국에 입국하는 김만철씨 가족

교류의 무대였음을 보여준다.

이제 우리는 청진의 항만, 철도, 조선업, 교육을 중심으로 이 도시가 지닌 국제적 역사와 미래의 가능성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항구에서 시작된 세계와의 연결

청진항은 북한 동해안 최대 규모의 항만 중 하나로, 국제적 물류의 관문 역할을 해 왔다. 1908년, 일제에 의해 공식 개항된 청진항은 단순한 지역 기반 시설이 아니었다. 일본 제국주의는 이 항구를 만주, 러시아, 조선을 잇는 군사·경제적 전진기지로 활용하고자 했다. 이로써 청진항은 동북아 물류 네트워크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게 된다.

청진항의 위상은 철도와의 연결로 더욱 강화되었다. 청진에서 나진까지 이어지는 함경선 철도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복합 운송 체계였다. 이 노선은 일본이 블라디보스토크(러시아), 통화(만주), 조선 각지를 연결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수송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다.

해방 이후에도 청진항은 북한 경제에서 핵심적인 무역항으로 기능했다. 광물, 철강, 수산물, 목재 등을 중국과 소련으로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주요 통로였으며, 오늘날까지도 공식·비공식 경로를 통해 다양한 교역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진항은 단순한 물류 거점을 넘어, 북한의 국제 생존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창구로 여전히 작동 중이다.

철도 위를 달리던 국제교류의 흐름

청진을 국제도시로 만든 또 하나의 핵심 축은 바로 철도였다. 청진은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함경선 철도를 중심으로 교통망이 집중된 도시였다. 1940년대까지만 해도 청진은 하루 20편이 넘는 화물열차가 오가던 산업 중심지였고, 평양과 청진을 잇는 구간은 북한 동해안 산업벨트의 대동맥 역할을 했다.

해방 이후에는 북한이 소련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철도를 기반으로 한 산업 교류도 활발해졌다. 청진에서 출발한 열차는 러시아 국경 지대인 하산(Hassan)을 거쳐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연결되었으며, 이 노선은 21세기 들어서도 여러 차례 복구와 재가동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북한과 러시아는 청진~하산 구간의 철도를 현대화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2013년에는 시범 운행까지 성공했다. 그러나 국제 제재와 북핵 문제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상용 운행은 무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도 노선이 다시 운영된다면 청진은 유럽과 연결되는 '실크레일(Silk Rail)'의 출발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이 노선은 유럽에서 시베리아, 만주, 청진을 거쳐 부산까지 이어지는 대륙-해양 복합 물류망으로, 향후 통일 시대 동북아 경제 통합의 핵심 기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

조선업의 도시에서 기회의 도시로

청진은 한때 북한 조선(造船)산업의 중심지였다. 청진조선소는 1970~80년대만 해도 5,000톤급 화물선을 제작할 수 있는 대형 공장이었으며, 군함, 어선, 부유식 구조물 등 다양한 선박을 건조했다. 당시 이 조선소에는 소련과 동독에서 온 기술자들이 방문할 정도로 활발하게 운영되었고, 사회주의 경제권 내 선박 수리의 거점으로 활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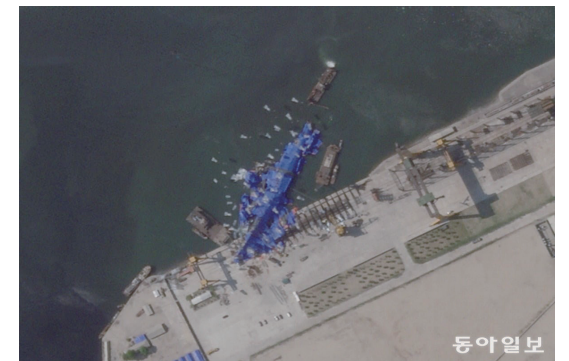
북한의 언론 매체들은 1985년, 청진조선소가 연간 20척 이상의 선박을 생산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며 조선소는 대부분의 가동을 멈췄고, 주요 설비도 노후화되었다. 현재는 일부 시설이 중국 어선의 수리나 선박 해체 작업을 맡으며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진조선소는 여전히 재건의 가능성을 지닌 산업 기반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통일 이후 한국의 기술력과 결합할 경우, 청진을 중·소형 선박 중심의 특화 조선단지로 재개발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특히 동해안의 항만들과 연계하여 '환동해 조선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면, 한국·일본·러시아를 연결하는 국제 협력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교류의 도시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청진은 지금도 다양한 외화벌이 활동이 이루어지는 도시다. 특히 해외에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 중 청진 출신이 많은 이유는, 이곳이 외국어 및 기술 교육

[그림 2] 2025년 3월 청진조선소를 방문한 김정은 (사진 출처: 뉴스1)



[그림 3] 2025년 5월 11일 청진조선소에서 진수 중 사고로 좌초된 구축함의 위성사진 (사진 출처: 동아일보)



[그림 4] 청진외국어학원(사진 출처: 평화문제연구소)

이 집중된 지역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외국어 교육은 철저히 엘리트 중심으로 운영된다. 평양외국어학원이 중앙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라면, 청진외국어학원은 북한 동북부의 국제 실무 인재를 길러내는 거점이라 할 수 있다.

이 학원에서는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등 실용 외국어 중심의 교육이 이뤄지며, 졸업생들은 외무성, 무역회사, 해외파견 근로자, 통역 담당 부서 등 실무 현장에 배치된다. 그들이 향한 곳은 평양의 관공서가 아니라, 청진항 부두, 중국과의 국경 무역시장,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건설 현장, 그리고 아프리카에 위치한 북한 대사

관의 행정 부서였다.

청진은 북한 내에서 상대적으로 국제교류가 활발한 도시다. 중국과 러시아 국경에 인접해 있고, 항만이 열려 있어 무역과 외화벌이 활동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청진외국어학원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도시의 국제 실무를 뒷받침하는 인적 인프라 역할을 해 왔다. 항만 노동자와 중국 상인 간의 통역, 수입 물자의 문서 처리, 러시아 파견 노동자들의 계약 업무 지원 등, 많은 실무를 이 학교 출신들이 담당해 왔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청진외국어학원이 북한 내에서 ‘국제화된 사고방식’을 경험할 수 있는 드문 공간이라는 것이다.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지 언어를 익히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외국의 문화, 사고방식, 제도 등을 간접적으로 접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런 경험은 청진이라는 도시가 외부 세계에 대해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유지하는 심리적 기반이 되었다.

청진외국어학원의 존재는 통일 이후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향후 남북 교류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곳은 남북 청년 공동교육 프로그램의 거점, 북방경제권 인재 양성 캠퍼스, 국제 관광 및 통상 영어 교육기관 등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 지역의 국제 감각과 언어 능력을 갖춘 인재들은 남북 공동경제특구, 다국적 NGO, 국제교류 관련 행정 기구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청진, 다시 문을 열 날을 기다리며

청진은 한반도에서 가장 국제적인 기억을 품은 도시 중 하나다. 항만과 철도, 조선소, 외국어학원이 어우러진 이 도시는 오랜 시간 세계와 연결되어 있었다. 일본 제국주의의 전진기지로 활용되던 시절부터,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교류하던 냉전 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청진은 언제나 세계의 공기를 한 발 더 가까이에서 마셔 온 도시였다.

지금은 국제 제재와 체제의 제약 속에서 청진의 문이 닫혀 있는 듯 보이지만, 그 문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도시 곳곳에는 여전히 항만 시설과 철도 노선, 조선소 도크가 남아 있고, 외국어에 능한 인재들이 그 가능성을 조용히 간직하고 있다.

청진은 남북 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축이 될 수 있다. 개성공단이 남북 접경지대의 상징이었다면, 청진은 북한 북부 지역의 평화경제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부산에서 시작해 울산, 포항, 동해, 속초를 거쳐 청진에 이르는 동해안 항만 벨트를 통해 ‘환동해 경제권’은 하나의 연결된 경제 지대로 확장될 수 있다.

또한 청진은 동북아시아 협력의 핵심 기착지가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중국의 훈춘,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 덕분에, 청진은 북·중·러 3국을 잇는 해상 및 철도 교통의 중심지이며, 장기적으로는 유럽과 연결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의 동쪽 관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청진은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 상징적인 ‘교두보’가 될 수 있다. 이 도시는 평양보다 덜 정치적이고, 서울보다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북한이다. 남북 청년 교류, 지방자치 협력, 국제도시 모델 시범 운영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가장 먼저 실험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청진이 다시 문을 여는 날은 단순히 북한의 개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반도가 다시 세계와 맞닿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통일은 단지 행정적인 결합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이뤄지는 교류와 상호 이해의 과정이며, 청진은 그 출발점이 될 준비를 해 왔다.

이제 청진은 더 이상 침묵 속의 항구가 아니다. 이 도시는 세계와 다시 대화할 준비를 마쳤다. 동해의 바람이 언젠가 그 닫힌 문을 다시 열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날, 청진은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돌아올 것이다. ☺

청진과 그 주변(함경북도 남부)의 교회를 찾아서

1. 캐나다 장로회의 함경북도 선교



1892년 함경도에 정착한 게일(James Scarth Gale, 기일)은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경성지방까지 탐사여행을 다녔다.



맥켄지 선교사, 1895년 캐나다 출신 맥켄지 선교사가 소래에서 소천한 후 그의 고향인 노바스코샤 장로교회는 수 많은 선교사를 조선에 파송한다.

1880년 원산의 개항 이후 일본인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원산 방문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1890년을 전후하여 선교사들이 원산을 방문하기 시작하여 1892년 게일(James Scarth Gale, 기일)에 의해 미국 북장로회의 선교본부가, 미감리회의 선교본부는 1893년 맥길(McGill, Willian B, 맥우원)선교사에 의해 각각 원산에 개척되었다. 선교사들의 기록에 따르면 미 북장로회 소속의 게일과 스왈른(Willaim L. Swallen, 소안론)이 원산에 정착한 후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경성지방까지 탐사여행을 다녔다고 한다. 게일과 스왈른은 차을경, 모학수, 고찬익, 전계은 등 조선인 전도자들과 함께 함흥, 영흥, 정평, 흥원, 단천, 갑산 등 주로 함경남도 지방을 다니며 전도를 하여 교회를 세웠다. 1898년 선교지 분할 정책에 따라 북장로회가 함경도를 캐나다장로회에 이양하던 당시 함경북도의 공식적인 성도수는 보고되지 않으며, 함경남도에는 14개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있다고 보고되었다.¹⁾

1898년 이후 함경북도 선교를 책임진 교단은 캐나다장로회이다. 1895년 캐나다 출신 맥켄지(William John Meckenzie) 선교사가 소래에서 소천한 후 소래교회 성도들의 편지를 받은 캐나다 노바스코샤(Nova Scotia, 맥켄지의 고향)의 장로교회가 조선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어 캐나다장로회 소속 그리어슨(Robert Grierson, 구례선), 푸트(W. R. Foote, 부두일), 맥레(D. M. McRae, 마구레) 등의 선교사 가정이 조선에 입국했다.

조선 연합선교사공회는 이들 캐나다 선교사들에게 함경도 선교를 맡겼고

1898년 북장로회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개척한 함경도 사역을 캐나다장로회 선교사들에게 이양하고 조선 내 다른 지역으로 임지를 옮겼다. 캐나다장로회는 북쪽으로 선교지를 확장하여 1901년에는 럽(A. F. Robb, 업아력) 목사 부부와 맥밀란(Kate McMillan, 맵미란) 선교사가 성진(현재의 김책)에, 1903년에는 맥레 선교사가 함흥에 선교지부를 개척한다. 성진은 1899년 5월에 개항한 이후 급속도로 발전하였으며 1901년 선교지부 설립 이후로는 함경북도와 간도, 연해주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다. 캐나다 선교부의 자료는 선교부 설치를 위한 그리어슨의 첫 성진 방문을 다음과 같이 그린다. “1901년 그리어슨 박사 부부는 어린 딸을 데리고 함흥 북쪽 145마일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성진항에 저택과 교회를 기대하고 도착하였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넓은 창고 하나와 의로운 교인 한 명 뿐이었다.”²⁾ 이후 1903년에는 럽 선교사와 그의 동생 럽(J. B. Robb, 업지내)이 성진에 합류하였고, 1909년에는 맥로드(J. M. McLeod)와 로저스(M. M. Rogers, 남존경)가 성진선교부에 합류한다.

함경도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한 캐나다장로회의 본국 선교부는 동부 분과와 서부 분과로 나뉜다. 한국은 영국령 기아나, 트리니다드와 함께 동부 분과에 속했고, 서부 분과는 대만, 인도, 중국을 담당했다. 1907년 한국에 대부흥이 일어나 더욱 많은 선교사가 필요하였음에도 재정난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하던 동부 분과는 서부 분과에 한국으로의 선교사 파견을 요청하였다.³⁾ 서부 분과는 1910년에서 1912년에 걸쳐 맨스필드(T. D. Mansfield), 바커(A. H. Barker), 맥도날드(D. A. McDonald) 등을 한국에 파견하여 이들에게 회령, 경성, 용정, 청진 등 8개 도시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회령, 경성 그리고 중국의 용정에 선교지부를 세운다. 1914년 동부와 서부 분과가 합병하며 캐나다장로회 한국 선교부는 원산, 함흥, 성진, 회령, 용정을 거점으로 사역을 이어간다.⁴⁾ 청진은 당시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었음에도 인근의 성진, 회령에 선교부가 위치한 관계로 독립된 선교부 없이 성진선교부의 관할하에 선교가 이루어졌다.

함경북도에서 처음으로 예배당을 갖춘 교회는 성진교회이다. 1901년부터



국내에 출판된 그리어슨의 일기

2) Our share in Korea (1931)을 함북노회, 『함북노회100년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함북노회, 2014) p. 65에서 재인용

3) 윌리엄 스코트, 『한국에 온 캐나다인들』 p. 154.

4) 윌리엄 스코트, 『한국에 온 캐나다인들』 pp. 162-167.

1) 윌리엄 스코트(William Scott), 『한국에 온 캐나다인들』 (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출판사, 2009) p. 111에는 “14가정의 그리스도교인들이 있다고 보고했다”고 기록이 나오나 같은 책의 137쪽(14개의 공동체)을 비롯한 과 여타 자료들을 보면 당시 14개의 기독교 공동체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어슨과 그의 어학선생 홍순국이 전도를 하여 1902년 이순창씨의 집에서 임시로 모임을 갖다가 30명의 성도들이 함께 헌금을 하여 예배당을 건축하고 성진 주변지역에 전도인들을 파송하기 시작했다.⁵⁾ 그리어슨은 여세를 몰아 당시 조선인 이주자들이 집거하는 간도에도 교회를 개척하였는데 1905년에는 북간도에 처음으로 용정시교회가 그리어슨과 조선인 전도자들에 의해 개척되었다.

함경북도선교의 개척자로서 함경북도 교계에 가장 오랜 기간 큰 영향력을 미친 인물은 캐나다장로회의 의료선교사 그리어슨이다. 그는 1898년 9월 7일 내한하여 함경북도 성진과 북간도 용정, 블라디보스톡 등 북방지역을 개척했다. 그는 성진에서 제동병원(濟東病院)을 설립 운영하면서, 남녀 보신학교를 설립하여 조선의 젊은이들을 키웠고, 옥정교회(旭町教會)로 불린 성진교회를 이끌며 병원과 학교, 교회의 세 축을 중심으로 성진지부의 기반을 다졌다. 목수인 아버지 존 그리어슨(John Grierson)도 한국을 방문하여 아들을 위하여 집 짓는 것을 도왔다. 그리어슨 부자는 집을 넓게 지어서 성경과 책자를 파는 서점과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병원시설을 갖추었다. 이 집은 러일전쟁 기간(1904-5)에는 러시아군 막사로 사용되기도 했으나, 그리어슨은 전쟁이 끝난 후 교회 옆 공터를 사들여 성진교회와 보신학교(普信學校), 성진 진료소를 지었다. 그는 조선최초의 공산주의자인 이동휘와의 깊은 인연으로도 알려졌다. 구한말 대한제국군의 간부 출신으로 군대해산 후 함경북도에서 국권회복운동을 하던 이동휘는 1908년 개종하여 기독교인이 되었다. 성진에 인접한 단천에 머물던 이동휘는 1909년 그리어슨을 찾아와 설교자로 임명해주기를 청원하였다.

그리어슨은 그를 전도인이 아닌 매서인으로 임명하여 성경 보급을 맡겼다. 이동휘는 성경책을 팔며 가는 곳마다 설교를 하였고 1910년 그리어슨은 이동휘를 한 교구를 맡는 전도사로 임명하였다. 이동휘는 1912년까지 그리어슨의 선교팀에서 함께 일했다.⁶⁾

1914년, 그리어슨은 선교위원회로부터 7천 달러를 지원받아 성진에 현대식 병원을 지었으며 1917년에는 이 진료소를 제동병원으로 확장했다. 이 병원에는 8명의 한국인 의사가 있었는데, 그중 4명이

보신학교와 성진 YMCA 간부 출신이었다. 캐나다 장로회가 오랜 기간 함경북도에서 이어 온 교육사업의 결실이었다. 제동병원은 1백명 이상의 입원환자와 1,700여 명의 외래 환자가 있는 큰 병원으로 발전했다. 그리어슨의 제동병원은 성진을 넘어 함경북도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리어슨의 회상에 의하면 그는 제동병원에서 거의 모든 부위의 수술을 했다고 회상한다. “눈에 관한 것 뿐 아니라 적출수술을 포함하여 귀에 관해서도 급성 유양돌기 수술까지 인간의 몸에 발생한 질병의 수술은 하지 않은 것이 없다. … 간농양, 요근농양, 늑골절제, 신장제거, 내장절제, 위장문합술… 남녀 생식기 수술 또 얼굴 부분 수술도 했는데, 성형수술도 했다.”⁷⁾ 위에서 말한 성형수술은 매독으로 윗입술과 인종이 혈어 없어진 여인의 수술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리어슨은 윗입술이 없어진 여성의 환부를 깨끗이 아물게 한 후 볼에서 가죽을 떼어 입술 부위에 이식하였다. 결과적으로 여인은 보기에 크게 흉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 그로 인하여 여인의 가족을 비롯한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이 감사장을 가지고 그리어슨을 찾아왔으며 이들 중 대다수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성진 출신의 기독교 지도자 중 함경북도와 간도지방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김계안 장로가 있다. 김계안은 원래 젊은 승려였다. 도를 깨우치기 위해 백두산에서 수련을 하던 중 어려움을 당하여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왔다. 이후 ‘하나님’이라는 말을 기독교인들이 쓴다는 것을 알게 되어 파계 후 고향 성진으로 돌아와 성진의 예수교회에 출석하게 된다. 그는 그리어슨 선교사와 교제하며 성경을 배우게 된다. 그리어슨은 김계안을 권서인으로 세워 주변지역의 전도를 맡기는 한편 본인의 중요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였다. 1914년부터 함경북도와 간도지역에서 활동한 스코트 선교사는 그리어슨이 김계안을 처음 만나던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가 지금까지 부처에게 바쳐 온 모든 헌신과 열정을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바치게 되었다. 그리스도교를 배우려는 열망으로 가득 찬 그는 이 초신자를 환대해 준 그리어슨 박사와 교제하게 되었다. 그리어슨 박사는 그를 새로 문을 연 소학교에서 공부하도록 했으나 김씨의 온유한 정신은 원기 왕성한 한국 젊은이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그



그리어슨 선교사와 성진 제동병원의 직원들(사진 출처: 국민일보)



● 무안강을 건너 북간도 해산위 일대까지 선교여행을 떠나는 구래선 목사 부부 (1910년대)

함경북도 성진에 거주하며 블라디보스톡을 향해 전도여행을 떠나는 그리어슨 선교사 부부

5) 차재명, 양전백 외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 상』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7) p. 144.

6) 도리스 그리어슨, 『조선을 향한 머나먼 여정, 로버트 그리어슨의 선교일화 일기』 (서울: 한신대학교출판부, 2014) pp. 90-93.

7) 도리스 그리어슨, 『조선을 향한 머나먼 여정, 로버트 그리어슨의 선교일화 일기』 pp. 175, 176

래서 그는 그를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관해서 좀 더 배우게 하려고 그의 집에서 요리사가 되도록 했으나, 부처에 대한 김 씨의 오랜 기도가 그에게 만성적인 감기와 콧물을 남겨주었다. 이제 김계안은 전도자로서 그리고 권서인으로서 종사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공부했다. 따라서 초기 한국 그리스도교인들 중에 가장 결실을 많이 맺을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는 불교의 스님으로서 돌아다녔던 같은 지역을 여행하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 있는 모범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 중 대다수는 그를 환영하였으며 북한 지역의 많은 교회가 김계안의 설교와 모범에 그 기원을 두게 되었다.⁸⁾

김계안은 1909년 길주군에 옥보동교회를, 명천군에 아간장교회를 개척하였으며 같은 해 함경대리회로부터 용정에 전도인으로 파송되었다. 그는 공적으로 간도에 파송된 최초의 상주 전도자였다. 1910년 명천군에 설립된 화태교회와 경흥군에 설립된 경흥읍교회도 당시 간도와 함경북도를 오가며 사역하던 김계안에 의해 개척되었다. 이후 그는 1913년 용정교회 장로로 피택된 후 1914년 1년간 신학공부에 매진하였고 1917년 간도 낙타하교회를 설립하였다. 김계안 장로를 가까이서 지켜본 스코트(William Scott, 서고도) 선교사는 영적으로 성숙한 그의 설교와 지도력, 신앙생활이 북간도를 포함하는 북한지역의 많은 교회들의 모범이 되었다고 하였다.⁹⁾

2. 청진과 그 주변의 교회들

1) 청진과 그 주변의 장로교회¹⁰⁾

청진의 교회들은 성진선교부의 선교사들과 전도인들을 통해 개척되었다. 청진 중앙교회는 1898년 청진시 신암동에 설립되어 바커, 맥도널드, 레이시(J. V. Lacy, 예시) 등과 목사 강두송(1918-21)이 시무하였다. 1921년 성도 수가 크게 증가하여 최수성, 김석홍 등 10여 명이 재산을 헌납하고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 신암동과 북성정 사이의 언덕에 예배당을 신축하였다. 이후 청진중앙교회는 수성동에 지교회를 설립하였다.

8) 윌리엄 스코트, 『한국에 온 캐나다인들』 p. 217.

9)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의 조사 김계안에 대한 연대별 기록, <http://www.ecumen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14>

10) 이 장의 내용은 기독교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 『기독교대백과사전』 (서울: 기독교문사, 1980)을 기초로 하여 작성됨

나남교회는 1904년 당시 경성군 나남읍(현재의 청진시 나남구역)에 설립되었다. 일본군의 나남 진주로 도시가 급성장하던 시기 나남으로 이주한 이화준의 모친, 김승오 등 23인이 경성읍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김승오의 집에서 모임을 갖기 시작하며 교회로 발전하였다.

청진동부교회는 설립

연대가 알려지지 않았다. 청진부 고사정에 있었으며 1940년 오문근 목사와 사철현 장로가 시무하였다. 청진서부제일교회 역시 설립연도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청진시 포항동에 위치하였으며 1940년에 목사 강두송과 장로 박성호, 장원석, 방창규, 유봉휘가 시무하였다.

경성읍교회는 1903년 그리어슨, 럽, 전도인 전훈석, 홍순국 등의 전도로 신창준 등이 믿기 시작하여 신창준의 집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성도가 늘어나 함일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후로 박동일의 집에서 예배를 했다. 매서인 김정현과 전도부인 김모니카가 전도에 힘썼다. 1911년 김영제 목사가 부임하여 성도가 크게 늘어났고 1919년에는 라대화 조사가 임명받는다. 라대화 조사는 경성읍교회 성도 장창일, 노춘섭과 함께 3.1운동을 주도하여 2년간 옥고를 치르게 된다. 1921년 출옥한 라대화 조사는 다시 교회 봉사에 열심을 내었으나 1922년 병으로 소천한다.

승암동교회는 경성군 경성면 승암동에 설립되었다. 1911년에는 전도인 박병수, 강두송을 청빙하여 사경회를 개최해 성도의 수가 급증하였다. 승암동교회는 1924년 함종흡과 장창일을 장로로 장립하여 당회를 조직함으로 조직교회로 발전하였다. 럽 선교사가 순회하며 당회를 관리하였다.

1902년 영원동교회가 친정에 방문한 김모니카에 의해 개척되어 최병진 등이 김나움씨의 집에서 예배를 하기 시작했다. 이후 로스(Ross, 노아력) 선교사가 금 10원을 헌금하고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 김나움씨의 집을 매수하여 예배당으로



아래의 자료들을 참고하여 필자 작성. 차재명 『조선장로회사기 상, 하』 (서울: 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7); 주승민 외, 『해방전 북한과 한국성결교회』 (고양: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북한선교위원회, 2019);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북한교회사 집필위원회, 『북한교회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 김진호, 『북선전도약사』 (서울: 삼필문화사, 2011)"



아래의 자료들을 참고하여 필자 작성. 차재명 『조선장로회사기 상, 하』 (서울: 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북한교회사 집필위원회, 『북한교회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 김진호, 『북선전도약사』 (서울: 삼필문화사, 2011)*

악을 장립하였으며 맥도날드, 베시 등이 사역하였다. 1923년에는 나남교회와 협력하여 전도인 박태섭을 경성군 주촌에 파송하였다.

경성의 사설교회는 신종악에 의해 설립되었다. 신종악은 경성지역의 유지로 술을 매우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부인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가 술과 담배를 끊자 그 동네 술집 두 곳이 문을 닫게 되었고, 그 뒤 신종악은 술과 담배를 사던 돈을 모아 작은 기도실을 지어놓고 매일같이 기도를 드렸다. 신앙이 성장한 신종악은 김귀손이라는 청년을 몇 년간 자신의 집 문간방에 데리고 살며 보살펴 주었다. 김귀손은 사회주의자로서 일제에 검거되어 심한 고문을 당한 후 정신에 이상이 생겨 경성 시내를 다니며 행패를 부리게 된 인물이었다. 김귀손은 신종악의 보살핌을 받으며 신종악의 말은 무엇이든 따르게 되었고 병세도 다소 회복이 되었다.¹²⁾ 신종악은 장로가 되어 교회에 봉사하던 중 1941년 김진호 목사와 함께 경성에 감리교회를 설립하고 한국보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한다.

2) 청진과 그 주변의 감리교회

1905년-1907년에 있었던 장로교와 감리교 간의 선교구역 분할협정은 초기에는 엄격하게 지켜졌으나 1930년대 말에 들어 유명무실화되기 시작했다. 1930년대 들어서는 청진을 비롯한 함경북도에도 감리교의 전도가 이루어져 교회가 세워

사용하기 시작한다.¹¹⁾ 1920년에는 3간 초가 예배당을 신축하고 주일학교를 조직하여 김성남, 김용국, 김용남 등의 청년들이 교육을 담당하였다.

포항교회는 1913년 김유보, 김하운, 김운용, 윤마리아 등이 포항동에 이주하여 예배장소를 마련하여 교회를 설립하였다. 1921년에 장로 최병

지기 시작하여 1940년 감리교의 정춘수 감독은 종로의 삼청교회와 궁정교회를 담임하던 김진호 목사를 청진으로 파송한다. 김진호 목사는 1873년 상주에서 출생하였으며 1914년 상동교회 전도사를 시작으로 배재학당 교사, 정동교회 전도사로 사역했으며 신민회 활동과 3.1운동 주도 혐의로 서대문감옥에 수감되었던 인물이다. 그가 청진에 부임한 1940년 6월 28일 당시 청진교회에는 전임 교역자가 없는 상태로 십 수명의 교인들이 분란중에 있었다. 김진호 목사 부임 후 청진교회는 안정을 찾고 부흥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여러 교회를 개척했다. 그가 개척하거나 정상화한 교회는 경성교회, 주을교회, 어항교회 등이 있다.

경성군 주을읍은 온천으로 유명하고 탄광이 가까우며 사기와 질그릇이 많이 제조되는 지역이었다. 1942년 감리교 전도사 김태옥씨가 만주로부터 주을에 들어와 철공업으로 생활비를 벌며 전도를 하여 교회를 개척하였다. 김진호 목사는 감리교 본부에 교회설립 인가를 얻어 주을교회가 정식 교회가 되게 하였고 이후로 교인이 20여 명으로 늘어났다. 주을교회는 주변에 있던 장로교회와 협력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다.¹³⁾

주을읍의 직동리에는 탄광을 중심으로 거주지가 형성된 생기령이라는 고개가 있었다. 생기령에는 질이 좋은 고령토가 생산되어 도자기의 원료로 쓰이고 있었다. 김진호 목사는 생기령에 900원의 돈을 들여 집을 사서 교회를 세워 30여 명의 성도가 모이게 되었다. 당시 장로교인으로 무산, 부령, 회령, 경성 등에 수많은 장로교회를 개척한 노춘섭 전도사가 65세로 생기령의 감리교회를 맡게 되었는데, 자녀의 비행과 가정 문제에 대한 구설수로 인해 희문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생기령교회도 문을 닫게 된다.¹⁴⁾

김진호 목사는 청진에 정착하는 시기부터 어항에 교회를 세우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생기령교회에 어려움이 생긴 이후 김진호 목사는 신종악 장로에게 경성교회를 맡기고 어항에 교회를 개척한다. 교회를 개척하며 경성교회에서 재정지원을 해줄 예정이었으나 경성교회의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아 지원이 오지 않았고, 김진호 목사는 사모가 빨래와 샷바느질로 번 돈으로 생계를 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어항교회는 성도가 30명까지 증가하여 성도들의 헌신으로 운



김진호 목사



1941년 김진호 목사와 청진교회, 경성교회 임원들

11) 차재명 외,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 상』 p. 145.

12) 김진호, 『북선전도약사』 (서울: 삼필문화사, 2011) p. 25

13) 김진호, 『북선전도약사』 p. 32

14) 김진호, 『북선전도약사』 p. 32

A large group photograph of the 1928-29 school class. The students are arranged in many rows, posing in front of a building with large windows. The photo is black and white and tilted slightly to the right.

女	男	職	會
李朴劉嚴崔崔李韓李金崔	李趙陳金	員	會
順袂寶成浩榮順敬秉明昌	冕念澤永		
愛禮明實性福愛變植炫完	熙九煥範		
教	會	書	校
師	計	記	長
金金韓朴趙韓李朴元金趙李	幼年主日學校職員		
仁明正南南敬冕容亨東仁秉			
國炫洛陽仁愛熙澤沃熙行植			
	教	書	
	師	記	
김리박김손김김강김조리조	음		
옥보죽연궁선옥귀춘영순춘경			
점금실분저명임덕광순애화옥			

북한지역연구 65

3. 해방 이후 현재까지 청진의 교회와 기독교 관련사건

1) 해방 직후 청진의 교회

해방 직후 북한지역에 위치한 신학교로 평양의 평양신학교와 성화신학교, 남포의 득신고등성경학교, 청진의 함북신학원이 학교를 재건하였다. 그러나 공산정권 수립과 함께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의 월남과 공산정권의 박해로 이들 학교들은 어려움을 겪는다. 득신학교는 1950년을 전후하여 강량욱의 조선기독교연맹의 인물이 주도권을 잡아 어용화되었고 장로교의 평양신학교와 감리교의 성화신학교 역시 조선기독교연맹에 의해 합병되어 1950년 봄 기독교신학교로 재편성되었다. 청진의 함북신학원은 위의 학교들에 비해 규모가 작은 학교로 관련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으나 6.25 직전까지 청진에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¹⁹⁾

청진과 관련된 순교자로는 이정심 목사가 있다. 이정심 목사는 1901년 7월 10일 부산에서 출생하여 3.1운동을 주도하여 1년 6개월간 옥고를 치른 인물이다. 그는 출소 후 승려가 되었으나 이후 예수를 믿고 개종하여 평양신학교에 입학, 1933년에 졸업한다. 이후 중국의 훈춘에서 사역하던 중 해방 후 귀국하여 청진중앙교회를 담임하였으며 기독교사회민주당 함북도당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이로 인해 1947년 12월 2일 공산정권에 의해 감옥에 수감되어 7일간 고문과 취조를 받았고 출소 후 2일 만인 12월 8일 고문의 후유증으로 소천하였다. 이정심 목사는 소천하기 직전 가족들에게 “나를 남쪽으로 앉혀다오, 아! 천당길이 보인다. 찬송 부르자”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고 전해진다.²⁰⁾

2)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청진의 교회

청진은 고난의 행군 시기 대량탈북이 발생한 지역으로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 중 청진 출신이 매우 많으며 청진과 관련된 소식도 쉽게 들을 수 있다. 청진의 기독교 관련 증언으로 청진 주변 오지의 비밀 신자 관련 정보와 수성교화소 수감 중 경험하거나 들은 소식들이 국내에 다수 보고되었다.

청진 출신의 지현아 작가는 1999년 청진 라남구역의 집결소에서 있었던 일을 회고한다. 그녀는 그곳에서 한 ‘언니’를 만났다. 당시 언니는 30대 중반 정도였고, 감옥의 한 방 수감자들을 책임지는 호실장을 했다. 언니는 자주 지 작가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힘들지만 한국을 위해 기도하자”고 했다고 한다. “고통받는 것은 우리인데 왜 잘 먹고 잘 사는 남한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지 작가의 물음에 언니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한국이 있어야 우리가 있다. 한국교회가 제대로 서야 우리가 있다”고 했다.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숨기지 않았던 언니는 어느 날 정치범수용구역으로 끌려갔다. 지 작가는 그 후로 언니를 다시 만나지 못했다.²¹⁾

2000년대 중반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 최○○는 친구의 모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 최씨의 친구 김○○(남, 함경북도 거주)의 어머니는 중국을 오가며 장사를 하다가 기독교를 믿게 되었다. 김씨는 평소 강을 잘 넘나들었는데, 마침 중국에 나갔다가 모친과 친분이 있는 조선족이 성경책을 어머니께 전해주라고 하여 한 권을 가지고 들어왔다. 김씨의 어머니는 북한에서 그 성경을 몰래 읽었다고 한다. 하루는 인민반에 안전부 사람들이 나와서 전파추적을 통해 핸드폰이 있는 집을 찾아서 가택수색을 하고 다녔다. 마침 김씨의 집에도 그가 사용한 핸드폰이 있었는데 전파추적을 통해 안전부 사람들이 그의 집을 수색하였다. 그 과정에서 집 안에 있던 성경책이 발견되었고, 성경책을 소지한 김씨의 어머니, 그리고 함께 있던 아버지도 덩달아 체포되어 수성 25호 관리소에 수감되었다. 2005년에 어머니 아버지 모두 관리소 내에서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고, 두 분의 시신도 찾지 못했다.²²⁾

2005년 1월경, 중앙비사그루빠에 의한 단속 과정에서 한 집에서 성경이 나와 온 가족이 수용소로 끌려간 사례가 있다. 중앙비사그루빠는 청진시 인근 **군에 사는 피해자의 집을 급습하여 강제 수색하였다. 당시 그루빠는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수색 중 성경책이 나와 피해자는 아내, 딸과 함께 정치범수용소로 이관되었다. 중국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은 가족의 구금 사실을 모른 채 북한에 들어왔다가 나중에 수용소로 잡혀 들어갔다.²³⁾

탈북민 ○○○씨가 2000년 함경북도 ***보위부에 구금되어 있을 때 ‘서안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서안 사건’은 많이 알려진 사건인데, 이는 탈북자 60명이 중국 서안에서 기독교를 공부하다가 체포된 사건을 말한다. 그중 우두머리 격에 해당하는 5명은 시범 케이스로 함경북도 **시에서 공개처형 당했다.²⁴⁾

2001~2002년경에 함경북도 **시에 사는 여자의 남동생이 중국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 때 남동생은 중국에서 성경책을 가지고 왔는데 그 책을 누나

21) [특별기획-북한 지하교회 리포트 8] 남한을 위해 기도하는 북한 지하 기독교인들, 펜n마이크, 2021. 12. 08.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9859> (검색일: 2025. 06. 02)

22) 윤여상 외, 『2011 북한종교자유백서』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12) pp. 161-162.

23) 윤여상 외, 『2011 북한종교자유백서』 p. 162.

24) 윤여상 외, 『2011 북한종교자유백서』 p. 167.

19) 사와 마사히코, 『남북한기독교사론』 (서울: 민중사, 1997) p. 243.

20) 대한예수교장로회 함해노회, 『함해노회 80년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함해노회, 1992) p. 243.

집에 가져왔다. 피해자의 누나는 종교를 아편처럼 무서운 걸로 생각해서 갈기갈기 찢었는데, 남동생이 자신이 태우겠다고 마당으로 가져가서 집안 구석구석에 성경책 종이조각을 숨겨두었다고 하였다. 어느 날 종이조각을 발견한 누나는 동생에게 “너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고 물었으나 남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도만 했다고 한다. 그 뒤 남동생은 보위부에 잡혀 죽었다.”²⁵⁾

2000년 12월 청진시 당국은 비밀 예배 도중 체포된 남자 11명을 본보기로 공개처형시키고 여자와 어린이들은 노동 교화소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며,²⁶⁾ 2013년에는 “청진의 한 지하교회의 예배”라는 영상이 국내에 공개되기도 했다.

미국의소리 방송에 따르면 2007년 9월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는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 정보기관의 정보 요원들과 이들의 사주를 받은 첩자들을 체포했다”고 보고했다. 보위부에 체포된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합법적으로 사진관 개업을 준비하며 북한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던 기독교인이었으며 체포된 사람들이 함경북도 온성군 출신의 허철, 장춘일, 진양수, 김명철, 강남석, 리영애와 회령 출신의 강상호, 청진 출신의 박미혜, 서석춘 등 남성 7명과 여성 2명으로 알려졌다.

청진 출신의 탈북민 주일용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있던 시절 부모와 함께 북한 청진의 작은 집에서 살면서 매일 라디오를 통해 남한 기독교 방송을 들곤 했다고 밝혔다. 주일용씨와 그 가족은 탈북의 희망을 갖고 무사히 남한에 도착했지만, 그의 친척들은 가족 중 한 명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됐고 모두 처형당했다고 전했다.²⁷⁾

2018년 청진시에서는 기독교 포교 혐의로 한 남성이 체포됐다는 보고가 있었다. 당시 남성이 체포된 후 가족들에게 보위부는 “이제부터 애에 대해 일체 말하지 말고 알려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해졌다.²⁸⁾

청진에 남아있는 교회의 흔적으로는 청암구역에는 ‘레배당마을’이라 불리던 곳이 있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있으며, 청진의 송평구역에는(예전 행정구역으로 경성군 농포동) 농포동교회 건물이 남아있다.²⁹⁾

나가며

청진을 중심으로 한 함경북도 지역은 산간오지가 다수 분포하여 한반도에서 가장 거친 지역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동부의 거친 땅으로 알려진 노바스코샤 출신의 맥켄지 선교사가 황해도의 소래교회에서 소천한 후, 그의 소식을 들은 수많은 노바스코샤의 젊은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와 배정받고 개척한 곳이 바로 함경도 지방이었다. 그중에서도 함경북도 성진선교본부에 주재한 그리어슨과 럽 선교사에 의해 청진의 방문 전도가 이루어졌으며 이들을 통해 신종악 장로, 노춘섭 전도사와 같은 조선인 교회 지도자들이 청진에 세워졌다.

성결교회의 전신인 동양선교회는 1927년부터 청진 선교를 시작하여 신암, 나남 등에서 크게 교세를 확장하였다. 동양선교회는 사경회 문화가 발달한 교단으로 정기적인 사경회를 개최하였는데, 동양선교회가 청진과 경성에서 개최하는 사경회에는 교단을 불문하고 지역의 모든 성도가 참여하여 큰 은혜를 나누었다. 1940년에는 종로의 삼청교회를 담임하던 김진호 목사에 의해 청진의 감리교회가 개척되어 단시간에 청진에 감리교회가 자리를 잡았다. 장로교 출신의 노춘섭은 65세의 나이로 김진호 목사를 도와 생기령에 교회를 개척하였고, 이후 노춘섭 전도사의 어려움으로 김진호 목사가 생기령 교회를 맡게 되었을 때 역시 장로교 출신의 신종악 장로가 경성교회의 사역을 도왔다. 원산과 회령에 본부를 둔 동아기독교(침례교의 전신)에 의한 사역이 청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동아기독교의 자료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1990년대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한 대규모 탈북사태가 일어나던 시기, 청진에서도 수많은 인원이 중국으로 탈북을 하였다. 당시 중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과 조선족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고 훈련을 받은 후 청진으로 들어간 인원들도 적지 않다. 특히 청진의 수성교화소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와 혁명화구역을 포괄하는 대형 교화소로, 북한이 적대계급으로 간주하는 기독교인과 북송 탈북자들이 수용되었다. 수성교화소에 수감되었다 풀려난 후 탈북하여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들에 의해 기독교인 수감자와 순교자들에 대한 간증이 국내에 다수 전파되었다. 우리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의 선교사들과 조선인 사역자들에 의해 교회가 개척되었으며 교단 간 선한 연합의 역사를 가진 땅, 그들의 후손들이 믿음을 지키며 그루터기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땅, 수많은 주민들이 탈북을 통해 복음을 듣고 돌아와 어려움을 겪고 그중 일부가 그곳에 남아서 믿음을 품고 생활하는 땅 청진을 기억하며, 그곳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다. 

25) 윤여상 외, 『2011 북한종교자유백서』 p. 167-168.

26) "北 공안 엔벤 조선족교회 급습, 탈북자 검거"〈SCMP〉연합뉴스, 2001.06.18. (검색일: 2025. 05. 29)

27) "잔혹한 박해에도 북한 내 기독교 성장하고 있어" Goodnews. 2025. 05. 31,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48125> (검색일: 2025. 04. 29)

28) "김씨 족속들 문제" 한마디에 사라져"...북 주민 실종사례 분석, 뉴시스, 2024. 10. 31, https://www.news1.com/view/NISX20241030_0002940257 (검색일: 2025. 04. 29)

29) 유관지, 『북녘교회 이야기』 pp. 124, 125.

동아기독교의 함경도 선교

안희열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
한국로잔위원회 중앙위원, 한국로잔교수회 회장)

해방 전 동아기독교(침례교)는 남한 동아기독교, 북한 동아기독교, 만주 동아기독교, 재러(시베리아) 동아기독교로 나뉘어 사역했는데 남한보다는 북한, 만주, 시베리아의 교세가 훨씬 강했다. 그 이유는 한국침례교의 창시자인 말콤 펜윅(Malcolm C. Fenwick)이 한반도 북쪽 끝자락에 있는 북한의 함경도, 중국의 만주, 러시아의 시베리아 세 지역을 ‘변방 선교’(frontier mission)의 요충지라 정하고 집중적으로 선교했기 때문이다.¹⁾ 그 결과 이 세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동아기독교 전체의 78%를 차지할 만큼 성장했고,²⁾ 특히 함경도는 선교와 항일운동의 중심지로 우뚝 서며 현대 선교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

동아기독교의 함경도 선교 시작

동아기독교의 함경도 선교는 1906년부터 시작되었다. 동아기독교의 전신인 대한기독교회가 1906년 10월 6일에 설립되자마자 대화회(총회)에서는 강경구역의 용안교회(龍安教會) 일꾼인 한태영, 이자삼, 이장운, 장봉이, 유내천 5명을 “함경도와 간도”로 파송했다.³⁾ 놀라운 사실은 이들을 파송한 지 몇 년

이 지나서 펜윅 선교사가 1910년 시베리아 1차 선교를 다녀온 후 9명의 순회 전도자를 함경도의 두만강 지역에 파송했는데, 10개월도 채 안 되어 평균 45명 출석교회가 무려 10개나 개척될 정도로 함경도는 복음의 옥토 밟이었다.

이처럼 동아기독교가 처음부터 함경도 선교에 집중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장로교와 감리교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선교지분할정책(comity) 때문이었다. 초기 한국교회는 장감이 주축이 되어 선교사역의 중복과 경쟁을 피하려고 1889년에 선교지 분할을 정했고, 1892년 6월 11일에 7개 항목의 선교지 분할 협정 초안을 작성해서 조인했는데, 군소 교단이었던 동아기독교(침례교), 동양선교회(성결교), 구세군 등은 제외되었다.⁴⁾ 사실 펜윅은 선교지 분할정책에 반대했다. 가장 큰 이유는 선교사 숫자에 따른 의결권과 지역분배를 반대했지만, 당시 대세에 따라야 했던 펜윅은 캐나다 출신이어서 함경도 선교에 집중했다.⁵⁾

동아기독교의 함경남도 선교⁶⁾

동아기독교의 함경남도는 원산 총부를 통한 선교정책의 센터였고, ‘교회-농장-과수원’을 3축으로 한 원산 선교기지의 중심지였다. 펜윅은 1889년 12월 11일에 내한한 이후 황해도 소래에서 언어 훈련받고 나서 1891년 가을에 원산으로 이주했다. 선교지분할정책에 따라 원산을 최적지라 여겼던 펜윅은 이곳에 동아기독교의 총부(總部)를 세워 선교정책과 행정에 관한 모든 것을 진두지휘했다. 19세기 말 원산은 조선의 3대 포구(開港地) 중 하나로서 북방 무역의 요충지였고, 인구가 급증하는 도시였고, 농장과 과수원 재배에 적합한 토양·기후가 있는 곳이어서 총부로 결정했다.

펜윅이 원산에 도착한 이후 먼저 한 일이 교회 개척이었다. 원산교회 창립 연도에 관해 세 가지 설이 있다. 첫째로 1891년 설로 펜윅이 1891년 가을 원산에 이주한 후 1893년 본국 귀국 전 첫 예배를 드렸다는 설이다.⁷⁾ 둘째로 1896년 봄 설로 펜윅이 1893년부터 1896년까지 미국과 캐나다를 3년간 방문하던 중 1894년에 목사안수를 받고 1896년 봄에 귀국한 후 교회 개척을

1) Malcolm C. Fenwick, *The Church of Christ in Korea: A Pioneer Missionary's Own Story* (New York: George H. Doran Co., 1911), 93.

2) 김용해, 「대한기독교침례회사」(서울: 성청사, 1964), 60; 이정수, 「한국침례교회사」(서울: 침례회출판사, 1994), 15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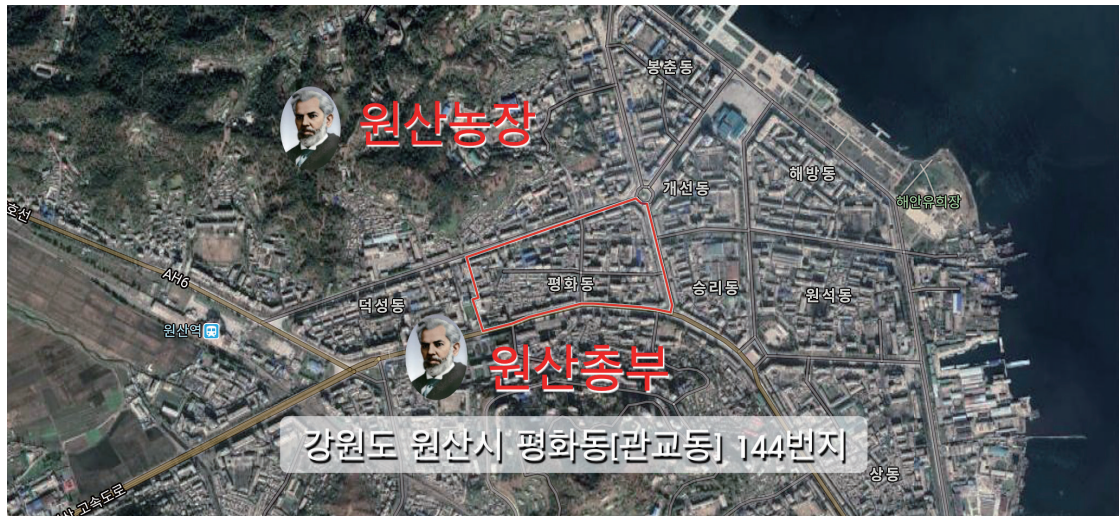
3) 김용해, 「대한기독교침례회사」, 15; 이정수, 「한국침례교회사」, 65; 조병산 엮음, 「용안침례교회 112년사」(익산: 용안침례교회, 2012), 76.

4)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1 (1784-1910)」(서울: 생명의말씀사, 2006), 600-7.

5) Malcolm C. Fenwick, *Life in the Cup* (Mesa Grande, CA: Church of Christ in Korea Extension, 1917), 215.

6) 본고(本稿)에서 함경남도는 해방 전 행정구역에 따른 것이어서 원산을 포함했다.

7) 장일수는 “편위익 씨는 [1891년 가을] 원산에 와서 조그만 초가를 얻어 예배를 보게 되었다”라며 1891년설을 주장한다. 장일수, 「한국침례교회사」(출판지 불명: 출판사 불명, 1961), 3.



원산총부와 원산농장

했다는 설이다.⁸⁾ 셋째로 1909년 설로 문서상 알려진 창립연도이다.⁹⁾ 필자는 1891년설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초기 동아기독교는 ‘건물’을 지닌 조직교회 보다는 ‘집’에서 예배드리는 가정교회 형식의 교회 개척이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장일수의 주장처럼 펜윅은 원산에 초가집을 짓고 살면서, 양아들로 삼았던 안대벽 일가와 함께 살며, 영재형(Lither L. Young) 선교사와 함께 교제했던 장소가 바로 펜윅이 첫 예배를 드렸던 초가집이기 때문이다.¹⁰⁾

무엇보다 펜윅이 세웠던 원산 선교기지는 독특하다. 초기 내한 선교사들은 일반적으로 ‘교회-학교-병원’을 3축으로 하는 선교기지를 세웠지만, 펜윅은 이들과는 달리 ‘교회-농장-과수원’을 3축으로 하는 선교기지를 세웠다. 첫째로 원산교회는 펜윅 자택에서 200미터 내려온 곳에 있었는데, 주로 역대 감목들이 목회했고, 이곳은 해방 전 대화회(총회)가 15차례(43%)나 열릴 만큼 중요한 장소였다. 둘째로 펜윅은 10만 평의 원산 농장을 구입했는데, 그가 본국을 방문(1893-1896)하고 귀국한 1896년 이후였다.¹¹⁾ 원산 농장에서는 호박, 옥수수, 밀, 기장, 귀리 등을 재배했고, 특히 호박은 세숫대야만큼 커서 지게에 올리려면 장정 두 명이 필요할 정도였다.¹²⁾ 셋째로 원산 과수원은 2천 평

규모로 이곳에서 사과, 앵두, 자두, 배를 재배했는데 성과가 좋았다.¹³⁾ 특히 원산 사과는 최고여서 외국에 수출될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펜윅은 초기 내한 선교사 중에서 “한국 개신교 최초의 산업 선교사”였다.¹⁴⁾ 펜윅은 원산 농장을 통해 비즈니스 선교의 성공 모델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바로 ‘BJC’ 원리를 실현했기 때문이다. ‘BJC’ 원리란 Benefit(이익), Job(일거리 창출), Church Planting(교회 개척)의 첫 영문 글자를 따서 만든 것이다. 첫째로 이익(Benefit) 창출을 보자. 원산 농장에서 재배했던 20가지 종류를 살펴보면 기장, 감자, 콩, 참외, 무, 당근, 쌀, 귀리, 보리, 근채류, 밀, 메밀, 참깨, 양배추, 오이, 옥수수, 호박, 셀러리, 돼지, 닭이 있었고, 원산 과수원에서 재배했던 과일 7가지는 사과, 앵두, 자두, 배, 구스베리, 건포도, 포도였는데 원산 농장과 과수원의 연 소득 2천 원은 현재 가치로 1억-1억 5천에 이를 만큼 소득이 높았다.¹⁵⁾

둘째로 일거리 창출(Job)을 보자. 펜윅의 제자였던 윤병수가 1929년에 2만 4천 평(8정보)의 과수원에 투입된 인부가 연 5천 명이라고 보고했는데, 펜윅의 과수원의 경우 2천 평이었던 것을 고려해 본다면 최대 650명에게 일거리 창출이 된 것으로 보인다.¹⁶⁾ 여기서 원산 농장 10만 평을 계산한다면 훨씬 많은 일거리 창출이 되었으리라 본다. 셋째로 교회 개척(Church Planting)을 보자. 펜윅은 46년간 선교사역을 하면서 200개 교회 개척과 250명의 사역자를 배출했는데, 자신이 원산 농장과 과수원을 통해서 얻은 모든 수익은 전도 사역비로 사용되어서 비즈니스 선교에 성공을 거두었다.

펜윅의 원산 과수원의 경우 ‘사과-배-포도’는 인기가 매우 좋았는데 일본인 농학자인 온다(恩田鐵彌)의 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로 원산 및 함흥지역의 캐나다인 선교사들(펜우빅크[펜윅], 하이지)이 가장 훌륭한 경영 성적을 거두었음을 확인하였다.”¹⁷⁾ 특히 펜윅이 『The Korean Repository』에 “한국의 농사법”(Korean Farming)을 기고하면서 이랑 경작법, 농작물의 윤작법, 곡물의 종류, 다른 곡물의 도입, 한국 농사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안한 것을 보면



펜윅의 자택 초가집

8) 김태식은 “[원산교회] 첫 예배는 그가 원산에 돌아와 몇 일 뒤에 드려졌는데, 그 자리에 한국인 7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며 1896년 봄 설을 주장한다. 김태식, “재만 동아기독교 선교 활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 1986), 21.

9)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두고 온 교회, 돌아갈 고향: 북한교회 역사 자료전」 (서울: 한들출판사, 2002), 201; 김용해, 「대한기독교침례회사」, 127; 이정수, 「한국침례교회사」, 135.

10) 허진, 「한국침례교회사」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00), 273; Malcolm C. Fenwick, 「말콤 펜윅」 (서울: KIATS, 2016), 506.

11) 안희열, “Malcolm C. Fenwick의 비즈니스 선교에 관한 평가,” 『복음과 실천』 71 (2024): 74.

12) Editorial Department, “Fruit in Wonsan,” 『The Korean Repository』 5/2 (February 1898):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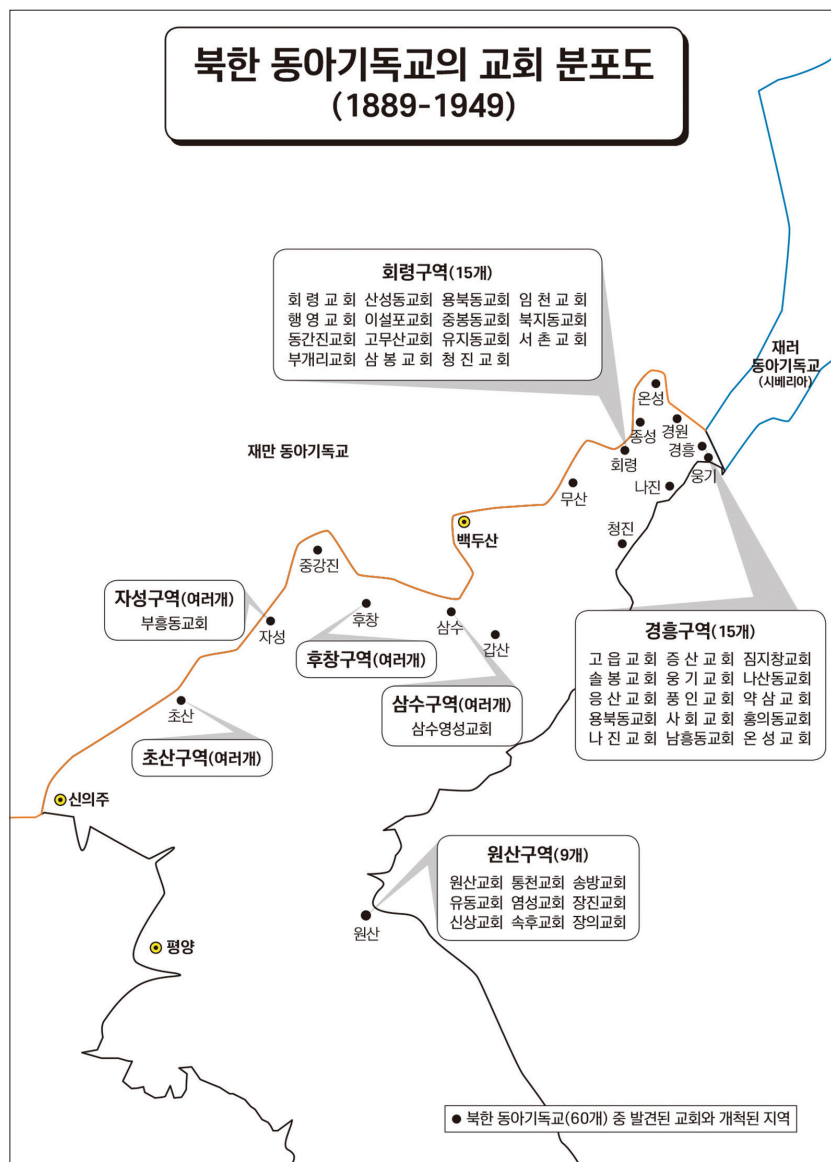
13) 이호철, “개화기 서양농금과 과수 재배기술의 수용,” 『농업사연구』, 창간호 (2002 12월): 24.

14) 안희열, 「시대를 앞서 간 선교사 말콤 펜윅」, 개정증보판 3쇄·특별판 (대전: 하기서원, 2019), 66.

15) “果樹收利,” 『황성신문』, 1902년 5월 29일.

16) 韓龍雲, “明沙十里行(六),” 『조선일보』, 1929년 8월 20일.

17) 이호철, “개화기 서양농금과 과수 재배기술의 수용,” 26.



북한 동아기독교의 교회 분포도 (1889-1949)

탁월한 농업 전문가였음을 알 수 있다.¹⁸⁾

펜윅의 비즈니스 선교가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로 선교사의 모범적인 물질관을 보여주었다. 펜윅은 원산 농장 10만 평, 강경 선교기지 4,732평, 공주 선교기지 1,124평을 소유할 만큼 부자 선교사였지만 초가집에 거주하면서 밥, 감자, 옥수수, 김치를 즐겨 먹었고, 돈을 자신을 위해 사용치 않을 만큼 물질에 깨끗한 자였다. 둘째로 기독교 세계관을 삶으로 실천하였다. 기독교 세계관이란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펜윅에게 기독교 세계관이 있었다는 것은 그의 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

다. 펜윅은 유서에서 자신과 함께했던 양녀 안덕가, 양녀 이양희, 양아들 전치규, 김재형에게 각각 천 원을 쥐서 돈을 사게 할 정도로 심복들을 챙겼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다.¹⁹⁾

셋째로 조선의 농업기술 진흥에 이바지했다. 펜윅은 공무원이었던 윤병수(尹秉秀)가 묘목 재배에 관심을 많이 두게 되자 그에게 과수 재배법을 전수해

주었다. 이후 윤병수는 1904년에 학농원(學農園)을 설립해 펜윅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자립하는 데 성공했다.²⁰⁾ 그 결과 윤병수는 펜윅으로부터 파종 기술을 배운 이후 성장을 거듭해 원산의 “평과대왕”(蘋果大王)으로 등극할 만큼 사과 재배의 일인자가 되었다.²¹⁾ 1929년 8월 20일 자 「조선일보」에 한용운이 기고한 “명사십리행”(明沙十里行) 기사를 보면 윤병수는 2만 4천 평(8정보)의 땅에 과일 1천 7백 주를 심었는데 사과가 9백 주였고, 배가 8백 주에 이를 만큼 원산 최고의 과일 재배자였다.²²⁾ 이처럼 펜윅은 과일 재배법을 제자에게 전수해 조선의 농업 발전에 공헌했다.

동아기독교의 함경북도 선교

동아기독교의 함경북도는 교회 개척과 선교의 중심지였다. 함경북도에서 가장 교세가 강한 곳은 경흥구역이었다. 경흥구역에 속한 고읍교회가 700명, 사회교회가 100명, 나산동교회가 70명, 솔봉교회가 20명, 증산동교회가 200명, 홍의동교회가 50명, 집지창교회가 70명, 웅상교회가 40명, 웅기교회가 70명, 나진교회가 700명, 약삼교회가 150명, 남흥동교회가 50명, 용복동교회가 120명, 풍인교회가 50명, 온성교회가 30명이었다. 총 15개 교회에서 2,420명이 출석해 평균 신자 수가 161명에 이를 만큼 교세가 활발한 곳이었다.²³⁾

두 번째로 교세가 강한 곳은 회령구역이었다. 회령구역에 속한 동간진교회가 70명, 산성동교회가 100명, 삼봉교회가 30명, 해영교회가 30명, 이설포교회가 60명, 임천교회가 25명, 중봉동교회가 70명, 북지동교회가 30명, 회령교회가 50명, 서촌교회가 30명, 고무산교회가 40명, 유지동교회가 50명, 부개리교회가 25명, 청진교회가 70명이었다. 총 14개교회에서 680명이 모여 평균 신자 수가 49명에 이르렀다.²⁴⁾ 세 번째는 삼수구역으로 교회가 여럿 있었는데 대표적인 교회가 삼수영성교회였다.

동아기독교의 함경도 선교 평가

동아기독교의 함경도 선교를 평가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함경북도의

20) “試實徧誌,” 「황성신문」, 1909년 3월 14일.

21) 觀相子, “咸興과 元山の 人物百態,” 「개벽」 54, 1924년 12월 1일, 109.

22) 韓龍雲, “明沙十里行(六),” 「조선일보」, 1929년 8월 20일.

23) 최성업, 「시베리아, 중국, 간도, 북한에 분포한 교회연혁」 (출판지 불명: 출판사 불명, 1959), 29-32.

24) 최성업, 「시베리아, 중국, 간도, 북한에 분포한 교회연혁」, 32-35.

경흥구역, 회령구역, 삼수구역이 최소 45개 교회를 개척해서 북한 동아기독교의 75%를 차지해 교세가 가장 강한 곳이었다. 둘째로 함경남도의 원산구역에는 9개 교회(원산교회, 통천교회, 송방교회, 유동교회, 염성교회, 장진교회, 신상교회, 속후교회, 장의교회)가 개척되어서 북한 동아기독교의 15%를 차지했다. 원산구역에는 원산 총부가 있는 곳이어서 선교정책의 중심지이었고, 원산 농장과 과수원이 지역사회에 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농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끼침으로 산업선교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셋째로 북한 동아기독교의 교세가 ‘함경북도→함경남도(원산)→평안도’ 순이어서 ‘동강서약’(東強西弱)의 지역별 교세를 형성하였다. 이런 교세 형성은 선교지분할정책의 영향 때문이었다. 평안도는 미국 북장로교회와 미국 북감리교회가 분할 지도하는 곳이어서 동아기독교의 교세는 약할 수밖에 없었다.²⁵⁾ 넷째로 경흥구역과 회령구역의 교회 개척은 1908년부터 1940년까지 지속해서 진행되었다. 반면 원산구역은 원산교회를 제외한 다른 교회는 하나같이 1910년에 교회 개척이 이뤄졌다.²⁶⁾ 다섯째로 북한 동아기독교에서 교세가 가장 큰 교회는 고읍교회와 나진교회였다. 고읍교회는 1908년 3월에 펜윅 선교사가 개척했고, 출석 교인 수가 700명에 이를 정도로 대형교회였다.²⁷⁾ 또한 나진교회는 1939년 봄에 박진덕, 박진손, 한병학이 늦은 시기에 개척했지만, 출석 신자 수가 700명에 이를 만큼 대형교회였다.²⁸⁾

여섯째로 함경북도의 웅기교회에서 1935년 5월에 달편지 발각사건이 발생해서 교단 지도자들이 큰 시련을 겪었다. 동아기독교의 원산 총부에서 사역하던 김영관 감목(총회장)은 1935년 10월 5일 자 달편지를 전국 동아기독교회에 발송해 신사참배와 황궁요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신사참배 거부를 권고했다.²⁹⁾ 이런 내용을 담은 달편지가 웅기교회에서 발각되어서 김영관 감목, 백남조 목사, 이종덕 목사, 전치규 목사, 노채천 목사 5명이 일경에게 붙잡혀 취조를 받았지만, 신앙을 지킴으로 원산형무소에서 5개월간 영어생활(圍圉生活)을 보냈다.³⁰⁾ 이처럼 원산 총부가 있던 함경도는 항일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했다.

25)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1 (1784-1910)」, 606.

26) 이정수, 「한국침례교회사」, 135.

27) 최성업, 「시베리아, 중국, 간도, 북한에 분포한 교회연혁」, 29.

28) 최성업, 「시베리아, 중국, 간도, 북한에 분포한 교회연혁」, 231.

29) 김영관, “광고,” 「달편지」, 1935년 10월 5일.

30) 허긴, 「한국침례교회사」, 282.

앞으로의 과제

1945년 해방 당시 북한교회의 교세는 3천 개 교회와 30만 신자 수를 지니고 있었다. 금년은 해방을 맞은 지 80년이 되는 해이다. 80년이 지난 현시점에 끊임없이 탄압을 받아왔던 북한교회가 완전히 소멸하여야 하지만 비밀 신자가 최소 10만, 최고 40만 명에 이르고, 지하교회가 5천 개에 이른다. 이들 대다수 비밀교회와 비밀 신자들이 함경도에 뿔뿔이 흩어져 사는 것으로 전해져 있다. 머지않아 복음 통일이 이뤄질 때 동아기독교의 신앙의 뿌리가 있던 함경도 지역에서 다시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 확산하길 간절히 소망해 본다. 

참고문헌

1. 단행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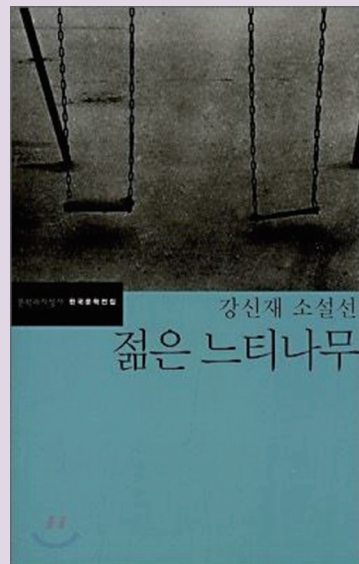
- 김용해. 「대한기독교침례회사」. 서울: 성청사, 1964.
-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1 (1784-1910)」.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6.
- 안희열. 「시대를 앞서 간 선교사 말콤 펜윅. 개정증보판 3쇄·특별판. 대전: 하기서원, 2019.
- 이정수. 「한국침례교회사」. 서울: 침례회출판사, 1994.
- 장일수. 「한국침례교회사」. 출판지 불명: 출판사 불명, 1961.
- 조병산 엮음. 「용안침례교회 112년사」. 익산: 용안침례교회, 2012.
- 최성업. 「시베리아, 중국, 간도, 북한에 분포한 교회연혁」. 출판지 불명: 출판사 불명, 1959.
-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두고 온 교회, 돌아갈 고향: 북한교회 역사 자료전」. 서울: 한들출판사, 2002.
- 허긴. 「한국침례교회사」.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00.
- Fenwick, Malcolm C. 「말콤 펜윅」. 서울: KIATS, 2016.
- _____. *Life in the Cup*. Mesa Grande, CA: Church of Christ in Corea Extension, 1917.
- _____. *The Church of Christ in Corea: A Pioneer Missionary's Own Story*. New York: George H. Doran Co., 1911.

2. 정기간행물 및 미간행물

- “果樹收利.” 「황성신문」. 1902년 5월 29일.
- 觀相子. “咸興과 元山の 人物百態.” 「개벽」 54. 1924년 12월 1일, 99-110.
- 김영관. “광고.” 「달편지」. 1935년 10월 5일.
- 김태식. “재만 동아기독교 선교활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 1986.
- “試實徧誌.” 「황성신문」. 1909년 3월 14일.
- 안희열. “Malcolm C. Fenwick의 비즈니스 선교에 관한 평가.” 「복음과 실천」 71 (2024): 69-100.
- 이호철. “개화기 서양능금과 과수 재배기술의 수용.” 「농업사연구」. 창간호 (2002 12월): 21-52.
- 韓龍雲. “明沙十里行(六).” 「조선일보」. 1929년 8월 20일.
- Editorial Department. “Fruit in Wonsan.” *The Korean Repository* 5/2 (February 1898): 76-77.
- Fenwick, Malcolm C. “Korean Farming.” *The Korean Repository* 5/8 (August 1898): 288-93.

청진을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

「파도」 강신재, 1972
강신재 소설선 『젊은 느티나무』 문학과 지성사, 2007에 수록됨



소설가 강신재는 1924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어린 시절을 청진에서 보낸 한국의 대표적인 여류소설가이다. 부친이 사망한 후 1938년 서울로 이주하여 줄곧 서울에 머물렀으나 그는 「파도」, 「C항 야화」 등 고향인 청진을 배경으로 한 여러 작품들을 남겼다. 그중 중편소설 「파도」는 일제강점기 청진의 평범한 소녀 영실을 중심으로 영실의 언니 신실, 청진의원 원장 딸 송아와 그 가정, 청진교회 목사의 손자인 경식과 그 가정, 정어리잡이로 일확천금하여 큰 재산을 쌓은 장달수의 가정 등 다양한 군상을 통해 이야기가 펼쳐진다.

영실은 타고난 미인인 언니 신실과는 달리 스스로도 박색하다고 여기는 소녀이지만 사교성이 좋고 매사에 적극적이어서 그의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모인다. 성아는 영실의 친한 친구이다. 그의 아버지 백원장은 청진의 명의로 모두의 존경을 받았으나 장거리 왕진에서 돌아오던 중 급사하여 성아네의 가세는 한순간에 기울게 된다.

또 다른 친구 순희의 아버지 역시 청진소방대장이었으나 화재 진압 과정에서 의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분열 증세로 퇴직하게 되고, 유일하게 자신의 말을 들어줄 백원장이 사망하자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경식의 아버지 기호는 청진교회 목사의 아들로 법학을 전공한 착실한 가장이었다. 그러나 고급 기생 애경을 만나 가정을 버리고 애경에게 눌러붙어 사는 신세가 된다. 결국 성아, 순희, 경식은 모두 아픈 가정사를 뒤로하여 청진을 떠나고 영실의 가정만 청진에 남는다. 영실의 언니 신실이 청진의 ‘정어리 갑부’ 장달수 가정의 며느리가 되어 영실의 가정은 하루아침에 신세가 폐게 된다. 결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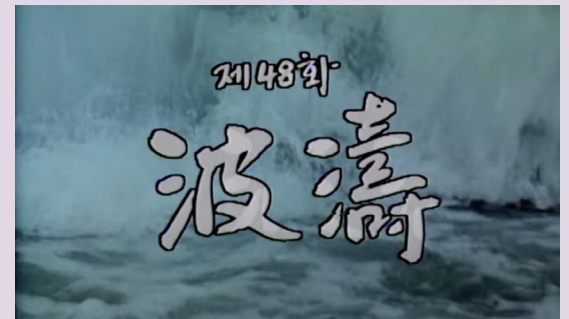
은 남부럽지 않게 성대하게 치루어지지만 신실의 결혼 잔치의 끝자락, 무언가 개운치 않은 분위기가 잔치집에 감돈다. 그 원인이 되는 씁쓸한 가정사의 이야기가 그려지며 소설은 끝을 맺는다.

「파도」는 1920-30년대 청진의 모습을 드러낸다. 교회는 봄철의 산예배(山禮拜)와 겨울의 성탄절 전야제로 인하여 기독교인들은 물론 믿음이 없는 영실과 같은 어린이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교회는 화제의 주인공들이 많이 나타나는 장소이기도 하다. 큰부자 영감에게 후처로 왔다가 영감이 앓아누워 안이 달아 있는 부산댁……. 그 밖에도 바보 귀동녀, 이발소의 병어리 아들, 그리고 경식 소년의 모친……”(225쪽) 영실을 비롯한 아이들도 해마다 있는 교회의 산예배와 성탄 전야제를 고대하며 교회에 출석한다.

신실의 시아버지가 되는 장달수는 정어리잡이로 하루아침에 청진 최고의 갑부가 된 인물이다. “장달수는 이 고장에서는 영웅이었다. 비록 눈에 일자가 없는 토박이 무식꾼이 틀림없을망정, 일본인 비서를 거느리고, 겨울이면 털외투를 입고 다니는 신분이었다. 그의 사무실은 일인 거리에 있다. 집에서 어디를 나가는 때마다 우편국 옆에 있는 ‘삼일택시회사’로 전화가 걸려가고, 그래서 털털거리고 달려온 검은 자동차를, 노상 타고만 다니는 것이었다.”(187쪽) 이는 당시 청진의 정어리 산업의 상황과 그 수혜자의 단면을 보여준다.

청진 부유층의 쉼터인 주을온천은 청진 시내에서 시내버스를 타려면 왕복 90전에 다녀올 수 있는 거리로 바다를 지나 산 속에 위치하고있다. 소설에서 그려지는 주을온천 가는 길은 “물에 씻은 듯이 맑은 산과 길, 곳곳에 펼쳐져 있는 넓은 하상(河床), 그 위에 궁구는 희고 둥근 바위들. … 차분하면서도 청명한 무엇이 있는”(252쪽) 곳으로 표현된다.

이 책에는 일제강점기 중반 청진 시내의 풍경과 상황이 생생히 그려진다. 또한 소설에 등장하는 영실, 신실, 성아, 순희, 경식을 통해 독자들은 1920-30년대 청진의 상황 그리고 청진의 평범한 조선인 가정과 청소년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다. 이 소설은 1982년 KBS TV문학관에 의해 동명의 드라마로도 제작되었다. 🐟



「파도」는 1982년 KBS TV문학관에 의해 동명의 드라마로 제작되었다.

청진의 대표음식



함경도 출신의 탈북민 자원봉사자들이 만든 명태순대 (사진 출처: 함경도 나그네 블로그, <https://blog.naver.com/wyg2006/222391122834>)

명태순대

명태순대는 함경북도 지역의 전통음식이다. 명태의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다양한 소를 채워 만든다. 주로 찹쌀밥, 숙주나물, 두부, 김치, 우거지, 당근 등 다양한 채소를 사용하여 소를 만들고 간장, 다진 마늘 등으로 양념하여 맛을 더한다. 완성된 순대를 약 20~30분 정도 찌내어 속까지 잘 익히면 명태순대가 완성된다. 함경도에서는 이를 겨울에 실외에 얼려두었다가 손님이 오면 별미음식으로 찌서 대접하곤 했다. 최근 들어 동해에 명태가 줄어들어 이제는 함경도에서도 명태순대는 귀한 음식이 되었다. 명태순대에 넣는 소를 오징어에 넣으면 오징어순대가 된다. 남한에서는 이를 ‘오징어순대’라고 부르지만 북한에서는 ‘오징어김밥’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섭국 (사진 출처: 위키백과)

섭국과 섭조개밥

섭조개는 홍합과에 속하는 조개의 일종이다. 함경도와 강원도의 해안에서는 섭조개가 많이 잡혀 섭조개를 이용한 요리가 발달하였다. 특히 청진을 비롯한 함경북도 북부에서는 섭국, 섭조개밥, 섭조개죽 등의 음식을 즐겨 먹었다. 그 외에도 섭조개로 장과 꼬치구이 등 여러가지 요리를 만들었다.

영채김치

갯김치의 한 종류인 영채김치는 영갈채갯김치 혹은 산갯김치라고도 불렸다. 영채김치의 재료가 되는 영채는 백두산 화산재에서 잘 자라는 식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함경북도, 양강도와 중국의 연변지역에서 많이 난다. 영채김치는 영채를 채취한 뒤 3~4일간 서늘한 곳에서 보자기를 씹워 색이 누렇게 될 때까지 띄워 담그는데 색이 누르스름하고 상쾌하고 매운 맛이 특징이다. 지금도 함경북도 북부지방은 물론 중국의 연변지역 조선족의 식탁에서는 배추김치 못지않게 영채김치를 자주 볼 수 있다. 🐟



영채김치 (사진 출처: 한식부 김치 홈페이지)

참고

위영금, 『밥 한번 먹자는 말에 울컥할 때가 있다』 (서울: 들녘, 2022)
 김양희, 『평양랭면, 멀리서 왔다고 하면 안되겠구나』 (서울: 폭스코너, 2019)
 [네이버 지식백과] 함경도 지방의 대표 전통음식 (그리움의 맛 북한전통음식)

청진의 이모저모

청진 6군단 반란 모의 사건



사진 출처: 데일리 디펜스

1990년대 이후 북한에서는 두 번의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 1992년 구(舊) 소련 프룬제 군사대학 출신 장교 쿠데타 모의 사건과 1995년 제6군단 쿠데타 시도 사건이다. 그중 6군단 쿠데타 사건은 청진에 주둔한 6군단의 지도자들이 1995년 김

정일 지도 체제에 불만을 품고 계획한 쿠데타가 사전에 발각된 사건이다. 함경북도를 방어하는 6군단은 청진시 라남구역에 사령부를 두고 예하에 보병 3개 사단, 포병 1개 사단, 방사포 4개 여단을 전투부대로 거느렸다. 병력의 절반은 군단 직할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지방군으로 충원하게 되어있었다.

북한 군부는 최상층에서 말단까지 군 책임자, 정치위원, 보위국이 서로 견제하는 3중 감시망 체제를 갖추고 있다. 군단 지휘 체계도 마찬가지다. 무력 통솔권을 장악한 군단장, 정치 책임자인 정치위원, 군단을 감시하는 보위부장이 있다. 이들은 3권분립이 철저하게 되어있어 군단을 움직이려면 3명이 뜻을 모아야 한다. 6군단 정치위원(중장)이 김정일 체제에 반기를 들고 체제 전복을 위한 쿠데타를 시도하였는데 정치위원은 보위부장을 포섭하는 데 성공하고, 정치위원과 보위부장은 1995년 설날 명절을 맞아 군단장을 찾아갔다.

이들은 군단장에게 조심스럽게 쿠데타 계획을 밝히고 동참을 요구했다. 군단장이 거절하자 미리 준비한 독을 술에 넣어 암살한다. 북한 노동신문에는 ‘6군단장이 오랜 지병으로 사망했다’는 부음기사가 떴다. 이런 움직임은 이미 북한 정보 당국에 포착된 상태였다. 라남구역 라성동을 담당하는 국가안전보위부는 한 여성 정보원으로부터 ‘6군단 쿠데타 음모설’을 입수했다. 보고를 받은

라남구역 보위부장은 이 사실을 상급기관인 함경북도 보위부장에게 보고했고, 반탐처장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김정일은 6군단장 대리인 군수총국장이던 김영춘 대장과 보위부 소속 원응희를 파견하여 두 사람은 쿠데타 음모가 실제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여기에는 정치위원을 중심으로 예하 부대 대대급 지휘관까지 참여하고, 함경북도 군당 책임비서, 행정일꾼, 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부(인민보안성) 부부장 이상 간부급이 대거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응희는 회의를 구실로 정치위원 등 주모자들을 함남 리원 비행장에 모이게 한 후 무장군인들이 달려들어 체포한다. 약 10개월에 걸친 내사 끝에 핵심 가담자뿐 아니라 단순 가담자, 이들과 가깝게 지냈던 행정간부들까지 모두 체포된다. 적극 가담자들은 가혹한 고문 후에 처형당하고 가족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 이후 김정일은 6군단을 북한군 편제에서 영구 삭제하고 ‘9군단’으로 명칭을 바꿨다. 이 쿠데타 모의사건을 진압한 김영춘은 후에 총참모장으로 진급했다. 프룬제아카데미 반란모의사건과 6군단 사건 수사를 맡았던 보위국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인민군 보위사령부로 승격되고, 이때 활약한 원응희는 초대 보위사령관을 맡아 상장을 건너뛰고 대장으로 승진했다.

쿠데타를 계획했던 익명의 고위급 군 간부와 함경북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으로 탈출하였으나 이후 북한의 공작원들에 의해 중국에서 납치 복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

참고

“북한 6군단 반체제 사건 연쇄 발생,” 연합뉴스, 1996. 03. 25.

“95년 김정일 제거하려 했던 북한군 6군단, 영원히 제거됐다,” 중앙일보, 2020. 10. 15.

“두 번에 걸친 북한 군부 쿠데타 기도…결말은 ‘참혹,’” 시사저널, 2024. 11. 03.

청진 출신의 유명인



장성택

장성택은 북한의 정치인, 김일성의 사위이자 김경희의 전 남편이며 동시에 2대 최고지도자 김정일의 매제이며 3대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고모부이기까지 한 인물이다. 생전 최종 직책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행정부 부장 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이다.

김정일 시대에는 굴곡이 있긴 했지만 명실상부한 북한의 권력 2인자로 군림한 실세 중의 실세였다. 김정일이 죽은 뒤에도 김정은의 후견인이 되어 막후에서 실권을 휘두르게 될 거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2013년 12월 12일에 갑작스럽게 숙청된 후 곧바로 처형당했다.



김정은과 함께 있는 이설주

이설주

이설주는 1989년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태어났다. 2005년 인천 아시아 육상선수권대회 때 북한 응원단으로 참여하여 남한을 방문한 적이 있으며 학창 시절 성악을 공부했다. 졸업 이후 김정은과 비공식적으로 결혼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부터는 '동지' 외에 '여사'라는 호칭을 혼용하기 시작했

고 처음으로 김정은과 별도의 독자적인 대외 활동에 나섰다. 독자적인 대외 활동을 보도할 때 "존경하는 여사"라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다. 김정은과 사이에 딸 김주애가 있으며 알려지지 않은 다른 자녀가 있다는 추정도 있다. 최근 들어 딸 김주애가 주목을 받으며 이설주에 대한 주목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

청진의 사람 사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자매님. 자기 소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진에서 태어나서 2010년대 중반까지 청진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온 김OO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 잠시 다른 도시에서 산 4년을 제외하고 청진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러시군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청진 사람에 대한 특별한 이미지가 있나요?

청진은 드세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억양도 드세고요. 그리고 청진이 함경북도 중심지이기도 하고

교류가 활발한 도시죠. 바다도 있고, 큰 공장도 있고, 청진에 있는 수남시장이 북한에서 제일 큰 시장이라 여기저기서 사람이 모이죠.

청진이 주변 도시들과 교류가 많군요?

해산에서도 중국 물건들이 많이 오고요, 신의주나 라선에서는 의류가 많이 들어와요. 특히 라선에서는 공산품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인지 청진에서는 옛날부터 중국돈을 썼어요. 북한에서 북한돈은 남한에서 동전 취급하는 거랑 같아요. 그리고 시장에 가보면 정말 10m마다 환전소가 있어요.

청진과 라선도 교류가 많나요?

라선은 라진과 선봉을 합쳐서 부르는 곳인데 제가 오기전까지는 라진이 많이 활성화되었고, 선봉은 아직 개발 중이었어요. 특히 러시아사람들이 많이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청진에서 라진 가는 길이 5시간쯤 걸리거든요. 라선 가까이 가면 시내 도착할 때까지 신분증 검사하는 곳이 10곳이나 돼요. 왜냐하면 라선에는 중국인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니까요. 물론 라선을 갈 때 신분증 없어도 뇌물로 중국돈 200원 주면 갈 수 있어요. 회령이나 무산 가는 길에도 초소가 있는데, 통과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라선사람들은 자기들이 부자라고 콧대가 높죠. 라선사람들은 기본이



청진시 지도, 출처: 평화문제연구소

쌀밥을 먹고 보통 사람들도 끼니마다 고기반찬을 먹어요. 경제적 수준만 보면 북한 다른 도시들과 라선은 완전 다른 나라죠. 길거리에도 어떨 때는 북한사람보다 중국사람이 더 많고 러시아 사람도 많아요. 중국사람들이 금요일에는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월요일에 다시 라선에 들어와요. 돈이 엄청 많이 도는 도시가 라선이에요.

2010년 즈음 청진에 개발 바람이 불고 청진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2010년 들어 발전한 건 화폐개혁이 영향이 컸죠. (화폐개혁이 발전에 영향이 있었다고요?) 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고난의 행군 거치면서 힘드니까 어떻게든 돈을 모으자고 했어요. 그런데 화폐개혁을 하면서 사람들이 ‘돈이 하루아침에 종이조각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돈이 아무리 많은 부자라도 하루 아침에 거지가 되는 걸 봤잖아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돈을 쓰기 시작했죠. 애들 교육에 투자하기도 하고, 피아노 과외도 시키고, 맛있는 음식 사먹기도 하고, 좋은 데 구경 하는 데 쓰기 시작했어요. 물론 화폐개혁 때

문에 사람들이 중국돈이나 달러에 집착하게 되기도 했구요.

청진의 각 구역별로 특징이나 차별성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수남으로 몰려요. 수남구역은 부자들이 많기도 하고요. 포항구역은 권력층이 많이 살아요. 함경북도 주요 기관이 포항구역에 모여있거든요. 신암은 바다가 끼어서 배를 가진 사람이 많고요. 송평은 제철소가 잘 돌아갈 때는 괜찮았죠. 지금도 살 만하긴는 하죠. 화교들은 송덕, 신암, 포항 그 사이에 있어요. 화교학교도 거기에 있고요. 중국영사관이랑 러시아영사관은 송평이랑 라남 사이에 있어요. 청진에 중국인들도 다녀서 저도 가끔 중국인들을 봤어요.

구역별로 직업적 특성은 어떻게 되죠?

라남이나 송평은 김책제철소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신암 쪽에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 많고, 장사하는 사람이 많고 그 밖에는 조선소 다니는 사람들이 좀 있죠.



2009년 북한에서 전격적으로 시행된 화폐개혁은 북한 사회 전반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

청진 주변에 사람들이 놀러다니는 곳이 어디죠?

바닷가에 많이 가죠, 시내 앞에 바닷가가 지저분하기는 한데 그래도 그렇게 놀러다녀요.

청진 시내에 7개 구역이 있죠? 각 구역간 이동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포항구역 중심에서 신암구역까지는 걸어서 한 시간반 걸려요. 그런데 중간에 언덕이 있어서 힘들고 오래 걸리죠. 포항구역 중심에서 라남 시내까지는 걸어서 세 시간쯤 걸리고 버스타고는 한 시간쯤 걸려요. 버스요금이 북한돈 10원밖에 안해요. 북한 대중교통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 차도 안좋고 느리기는 한데 가격은 싸요. 청진은 함경북도에서 그나마 평지가 많은 도시예요. 수남구역은 거의 평지고요 그 다음이 포항구역이 평지가 많죠.

청진에는 무궤도 전차가 다니죠?

궤도 따라 달리는 전차는 라북에서 김책제철소 강덕 못미쳐서까지 다녀요. 무궤도 전차는 포항까지 들어오고 거의 신암 주변까지 다니고요. 전차요금도 북한돈 5원 10원정도 하죠.



청진 시내를 달리는 무궤도 전차

청진청년역이 시내에 있지 않고 포항구역 끝에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포항구역이랑 신암구역 중간에 있어요. 산쪽으로 외곽에 있는데 크기는 커요. 청진청년역에서 수남시장까지는 걸어서 두시간반 걸려요. 거리도 멀지만 포항천, 수성천을 건너야 하거든요.

기차 상황은 어떤가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차는 느리죠. 그런데 개인이 운영하는 기차는 빨라요. 2016년도에 개인이 운영하는 기차로 평양까지 가려면 요금은 중국돈 200원이었어요. 평양까지 24시간이면 도착하죠.



청진시 신암구역에 위치한 청진청년역은 함경북도 철도의 중심이다.

청진에서 평양까지 24시간이 걸린다구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차타면 보통 3일 걸려요. 개인이 운영하는 기차타면 24시간이면 가고요. 버스도 다니는데 많이 타지는 않죠. 그리고 부자들은 비행기 타고 평양에 다니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장님은 어랑비행장에 가서 비행기 타고 평양 오간다고 들었어요. 비행기 타면 30분이면 평양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청진의 대표 기업소는 어디가 있죠?

김책연합제철소가 제일 크고 조선소도 크죠. 얼



김책제철연합기업소는 북한 최대의 제철소로 청진의 중화학공업을 위한 원료를 제공한다.

마전에 진수식 하다가 배가 넘어져서 김정은이 화냈었던 그 조선소 같아요. 그 다음에 화학섬유공장도 크고 버스공장도 커요.

김책제철소는 북한 뉴스에 매일 나와요. 그 안에 탄아소, 유치원, 제철소 학교 다 있거든요. 지금도 김책제철소 직원이 많죠.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가동된 공장이 김책제철소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아무리 어려울 때도 김정일이 김책제철소는 지원을 했어요. 돌아가는 공장이 김책제철소밖에 없으니까 뉴스에 계속 김책제철소만 나왔죠. 김책제철소가 송평구역에 있는데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다 김책제철소에 다녀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남자 직원이 수천 명이 될 거 같고 여자들은 거기서 물건 빼돌려서 장사하는 사람도 어마어마해요.

수남시장은 어떤가요?

북한에서는 제일 넓은 시장이죠. 그런데 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매대가 계속 이어지죠. 원래 화학공장이 있던 자리에 시장을 넓게 지었죠. 자릿세는 구역마다 다른데 제가 아는 분은 2010년도 전후에 좋은 자리를 7,000원 주고 샀고 관리비를 하루에 700원씩 냈어요. 관리원이 돌아다니면서 수금을 했죠. 수남시장은 도매시장

으로 유명하죠. 시장 공식 운영시간 오후 1시부터 저녁 7시까지의 소매 장사를 해요. 그런데 새벽 다섯시부터 오전에는 그 자리에 도매장이 서는 거죠. 수남시장 제외하고 다른 시장은 새벽시장이 없고 오후에 소매 장사만 해요. 수남시장이 화요일에는 문 닫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새벽 도매시장은 문 안닫아요. 닫을 수가 없는 게 다른 시장들은 화요일에 문을 열거든요. 그 장사꾼들이 도매 물건을 사야 하니까 새벽시장은 화요일에도 문을 못 닫죠.

수남시장은 소매 장사 시간 때도 다른 시장보다는 물건 값이 저렴하겠네요.

그렇죠. 많이 싸죠. 그럼에도 다른 시장도 잘 되는 건 집 가깝고 깨끗한 데서 물건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른 시장들도 잘 되는 거죠. 수남시장도 건물 안쪽은 깨끗한데 너무 복잡해요. 건물은 단층건물이고요. 수남시장은 입구 출구가 따로 없죠. 시장 주변으로 골목마다 매대가 펼쳐져 있으니까요.

길가에 파는 노점도 자리값은 다 내야 하나요?

다 내야죠. 10년전 기준으로 제일 비싼 데는 건물 안에 중국옷 파는 데가 제일 비싸요. 한자리에 6천원, 7천원했어요. 길가 나가면 2천, 3천원쯤 했고요. 그런데 아주 밖에는 자리값을 안받아요. 먼저 온 사람이 임자죠. 어떤 사람이 몇 년동안 그 자리에서 하고 있으면 그 권리는 암묵적으로 인정해줘요. 그런데 매일 관리비는 모든 매대가 다 똑 같아요. 바깥 맨마당 노점 자리도 하루에 700원이었는데 청소비랑 관리비 다 포함이에요.



2017년에 촬영된 청진시 포항구역에 위치한 수원시장의 모습, 사진 출처: 데일리NK

청진에서 수남시장 다음으로 큰 시장은 어떤 시장이죠?

포항구역에 있는 수원시장이 커요. 수원시장은 도로에 가까이 있다보니까 깔끔하고 정리가 잘돼 있어요. 수원시장은 수남시장에 비하면 백화점이에요.

라남에 아파트가 많이 생겼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남은 땅이 라남에 많아서 그런거죠. 수남, 포항 같은 시내에는 땅이 없고 송평쪽에는 제철소가 자리잡아서 옮길 수도 없고요. 라남에는 부지가 있어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라남이 한국의 신도시같이 발전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새 집이 생겼다고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사 갈 일도 없고요, 그 동네 살던 사람들이 아파트로 옮기는 거죠. 돈 있는 사람들은 수남구역으로 이사 가고 싶어하지 라남에 안살아요. 3층, 5층, 7층짜리 아파트들이 많은데, 북한은 엘리베이터가 운행 안하니까 고층을 선호하지 않아서 빈집이 많죠. 김책제철소 직원들을 라남에 새로 지은 아파트에 배정해서 많이 살게 했어요.

청진 시내에 강들이 흐르죠?

네 맞아요. 수성천은 크고 깊어요. 독도 엄청 높고요. 그나마 깨끗한 편이어서 저희 어릴 때 수성천에서 목욕하고 물놀이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강들은 다 너무 더럽죠. 아파트 정화조에서 나온 분뇨와 생활하수가 다 강들로 그대로 흘러들거든요. 그래서 “똥강”이라고 불러요. (수남천을 똥강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환경문제나 오염도 심한가 보네요?

네 그렇죠. 제철소나 섬유공장에서 화학물질이 엄청나게 뿜어져 나오는데 북한은 정화 시스템이 없잖아요. 화학폐기물도 그냥 쌓아두고 바람불면 폐기물이 가루가 돼서 날아다니고요. 수남시장은 화학폐기물 위에 바닥 포장도 없이 그냥 세운 거예요. 차라리 중국에서 오는 황사는 자연 모래라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청진 먼지는 화학폐기물 가루들이죠. 바람 불면 그런 가루를 다 뒤집어쓰고 눈에도 다 들어가요. 김책제철소가 제일 심하고 그 다음이 수남시장이 심하죠. 그리고 바다도 폐수가 쏟아져 나오고 배에서도 기름이 많이 새어나와서 물도 더러워요.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 중에 청진 출신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진에 계실 때도 주변에 가족 중에 탈북자가 있는 가정이었나요?

제가 아는 집 중에는 두 집이 있었어요. 아는 언니가 있었는데 그 엄마가 탈북해서 남한에 갔나 봐요. 이상하게 그 언니한테 계속 감시가 붙는 거예요. 그 언니는 감시 때문에 탈북도 못하고 아마 지금도 청진에 살 거예요.

누가 탈북했다는 소문도 자주 돌죠. 누군가 배

일본서 탈북자 9명 탄 배 발견



청진에서는 해상을 통한 탈북도 자주 시도된다. 탈북 과정에서의 사망사고 또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동아일보)

타고 탈북하면 그날부터 보름씩은 바다를 막아놓고 바다에 못나가게 해요. (그런 일이 자주 있나요?) 엄청 자주 있죠. 누가 탈북했다고 보름간 바다를 폐쇄하고, 열리면 또 누가 탈북해서 폐쇄하고 그게 계속 반복돼요. 일가족이 탈북하는 경우도 많아요.

고난의 행군 시기에 중국에 갔다가 청진에 돌아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중국에 갔다가 잡혀오는 사람도 보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 주변에는 그런 집이 없었어요. 산골 쪽에는 가족 중에 누가 중국에 가거나 남쪽으로 탈북한 집이 좀 있을 거 같고 바닷가 쪽에는 배타고 탈북한 사람들이 있죠. 바닷가 사람들은 남한 방송도 많이 들으니까요. 그런데 중국 갔다가 북한에 돌아와서 사는 사람은 제 주변에서는 못봤어요. 중국에서 살아본 사람은 무조건 중국으로 다시 나가요.

바닷가 사람들이 특히 남한방송을 많이 듣는군요?

배타는 사람은 날씨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남한에서 쓰는 라디오에서 일기예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 집마다 날씨 때문이라도 남한 라디오 들어야 해요. 단속을 해도 집집마다 다 숨겨놓고 들어요.

라디오를 같이 듣거나 들은 내용을 서로 공유하기도 하나요?

그러지는 않고 대부분 혼자만 들어요. 바닷가에 어떤 한집이 사라지면 ‘저집은 또 달아났구나’ 생각하죠. 배타고 탈북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소문이 돌죠. 제 친구네 오빠가 배를 탔는데 그 집 엄마는 매일 밤 열두시 되면 한국 라디오 들어요. 다 밤에 듣죠. 저도 라디오를 좀 들었는데 돌리다가 기독교 방송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 전혀 인식을 못했어요. 기독교라는 단어 자체가 워낙 생소하고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한국에 대한 인식은 어떻죠?

한국보다는 중국이 체감상 훨씬 가깝죠. 다들 중국 물건들을 쓰니까요. 한국에 대한 인식은 드라마를 통해서 생기죠. 그리고 한국 중고 옷이나 화장품들이 들어와서 인식이 좋기는 하지만 중국은 붙어있는 나라니까 더 가깝게 느껴져요.

수성교화소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네. 함경북도에 교화소가 회령에도 큰 게 있고 청진에도 큰 게 수성에 있어요. 수성역 지나서 송골 골짜기에 있는데 수성교화소는 청진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라 사방에서 와요. 그 주변에 산에 나무하러 자주 다녔거든요. 밧줄에 묶여서 수성교화

소로 잡혀가는 사람 자주 봤어요.

수성교화소에 대한 소문은 어떤가요?

정치범수용소라고 알고 있어요. 남조선 가다가 잡힌 사람들, 중국에서 잡혀 온 사람들이 많이 갇혀있다고 하더라고요.

청진에서 유명한 인물이 있나요?

북한은 남한처럼 지역감정이 없어요. ‘누가 우리고장 출신이다’라는 거에 관심도 별로 없고요. 청진 시내에서 제일 관심 많이 받는 사람은 수남시장 관리소장이죠. 남한에서는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무슨 비리가 있네, 무슨 스캔들이 있네, 누구랑 친하다...’는 식으로 구설수에 오르잖아요? 청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저 수남시장 관리소장이 ‘처벌받았네’, ‘총살당했네’, ‘아니 살아있네’ 그렇게 구설수에 오르죠. 김정은 아내 이설주가 청진사람인 거는 사람들이 다 알죠. 이설주가 입은 옷이 북한에서 유행하고 옷장사들도 이설주가 입은 것과 비슷한 스타일 옷을 구비해 놔죠.

청진에서 선호하는 중고등학교가 있나요?

라남구역에 영재학교가 있고 포항구역에 함경북도 제1중학교가 있어요. 교육열이 있으면 그런 학교 보내려고 하겠죠.

북한은 이주의 자유가 없는데 주변에 작은 도시들에서 돈벌려고 청진으로 이사 오는 사람들도 있나요?

도시 내에서 이사는 큰 어려움이 없고요, 주변 도시에서 청진으로 올 때는 절차가 조금 복잡하죠. ‘돈벌려고 이사한다’고 말하지는 못하고 ‘딸이

청진에 살아서 주변에 살려고 이사한다.’ 그런 식으로 적당한 명분만 만들면 다른 도시에서 청진으로 이사 오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청진에서 유명한 음식은 뭐가 있죠?

인조고기가 북한에서 다 먹기는 하는데, 청진에 인조고기 공장들이 있어요. 청진에서 만든 인조고기들이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요. 그리고 바닷가다 보니까 해산물이 있죠. 오징어김밥이라고 했는데 남한 말로는 오징어순대라고 하더라고요. 겨울에는 가자미식해 많이 사먹죠.



북한에서 생산된 인조고기. 인조고기는 콩에서 기름을 짜내고 남은 찌꺼기를 문쳐 만든 일종의 대두 단백질이다. 청진에 대규모 인조고기 공장이 있다.

청진에서 정어리, 명태가 많이 잡혔다고 하던데 지금도 많이 잡히나요?

옛날에는 엄청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많아서 다 못먹고 말려서 두들겨서 먹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 옛날얘기죠. 90년대 이후로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오징어는 많이 잡히고요. 여름이 되면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일을 많이 해요. (나라에서 하는 공장인가요?) 아니요. 다 개인이 하는 공장이지요, 오징어 배를 따서 밤새도록 차곡 차곡 포장해서 얼리죠. 청진에는 냉동창고가 엄청

많아요. 외화벌이 회사마다 냉동창고는 하나씩 다 있어요. 외화벌이 회사가 많기는 한데 특별히 유명한 회사는 없어요.

북한에서는 소소한 일 처리할 때 뇌물로 담배 한 막대기(보로)를 준다고요?

네 맞아요. 병원갈 때도 담배 한 막대기 가져가서 의사한테 주죠. 의사한테 갈 때는 “고양이”라고 비싼 담배 가져가야 해요. 10년 전에 한 막대기에 4만원 정도 됐죠. 당시에 쌀이 1kg에 5,000 - 6,000원이었어요.

뇌물로 마약을 준다는 말도 있던데요?

그렇게는 못하죠. 상대방이 신고하면 어떻게 해요? 뇌물 받는 사람을 잘 알고 그 사람이 마약 필요하면 뇌물로 마약을 줄 수도 있는데 그런 건 특별한 경우예요.

마약 하는 사람들도 많죠?

한집건너 한집에는 하는 사람이 있을 거 같아요. 마약은 함흥에서 오는데 “뽕”이라고 불려요. 낙태도 많이 하죠. 낙태는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간호사 경력 있는 집에 가서 하죠.

끝으로 청진을 위해서 기도할 독자 여러분에게 “청진은 이런 도시다” 한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청진은 정말 개방된 도시예요. 외부인들 왕래가 워낙 많고 외국인들도 들어오는 도시죠. 북한에서 둘째 셋째가는 대도시이기도 하고요. 청진이 북음화되면 함경북도 다른 도시들 선교는 훨씬 쉬울 겁니다. 청진에 북음이 들어가도록 기도해주세요. ☺

언론에 비친 청진의 모습들

북한, 청진에서 좌초했던 구축함 ‘강건호’ 다시 진수

북한이 지난달 2025년 5월 21일 청진조선소에서 진수식 도중 넘어져 좌초한 신형 5천t급 구축함을 수리해 진수식을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조선인민군해군 구축함 진수기념식이 6월 12일에 라진조선소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구축함의 건조와 원상복원에 공헌한 함선공업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을 만나시고 격려해 주셨다”고 이번에 진수식을 가진 구축함이 사고 선박임을 확인했다.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이 함정의 함급은 2025년 4월 진수한 ‘최현급’이라고 밝혀 5천t급 구축함임을 확인했고 함명은 ‘강건호’로 명명됐다. 강건호는 일제 강점기 때 만주에서 항일무장투쟁을 했으며 정권 수립 후 초대 인민군 총참모장 겸 민족보위성 부상을 지냈고 6·25전쟁 때 전사한 인물이다.

북한 구축함은 지난달 21일 청진조선소에서 열



지난 21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새로 건조한 5000t급 구축함 진수식을 열었으나 함정을 제대로 물에 띄우지 못하고 크게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촬영된 청진조선소에서 건조를 마치고 진수 준비 중인 구축함의 위성사진.

린 진수식 도중에 배 뒷부분이 물에 먼저 들어가고 뱃머리가 육지에 걸리면서 넘어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사고를 직접 목격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고 6월 말까지 수리를 마치라고 지시했다. 당시 청진조선소의 직원 3명이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중앙통신은 구축함의 상태를 진단한 후 라진 배수리 공장에서 세밀한 복구 작업이 7~10일간 이어질 것이라고 6월 6일 보도했는데, 최초 사고 발생 23일 만에 복구를 마친 것이다.

(참고, 사진: 연합뉴스, 2025. 06. 13)

북한 주재 중국 공사 청진, 나선 시찰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 공사가 북중 교류의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북한 청진시와 나선시를 잇달아 방문했다. 2025년 5월 16일 주북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평춘타이(冯春台) 주북 중국공사가 이끈 중국 대표단이 5월 11일 함경북도 청진시를 찾았다.

이곳에서 공사는 중국고등학교를 방문해 화교 어린이들의 교육 상황을 알아보고 북한 교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염분진혁명사적지를 방문해 현지 경제사회 발전과 관광 발전 상황을 시찰했다.

5월 12일에는 북한 나선시의 선도종합가공공장, 맥주 생산 작업장을 둘러보고 생산 및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또 중국 지린성 훈춘과 연결된 나선시 원정도 찾아 조사·시찰을 했다고 한다. 모든 일정에는 청진시 주재 중국 총영사 진연광과 북한 측 외무성 아시아1국 연구원 김명일, 함경북도 외무국 부국장 김성철이 동행했다.



청진과 나선은 북중 경제·관광 협력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이다. 청진시는 북한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중국은 1987년 청진시에 총영사관을 개설했다. 나선은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경제특구로 평소 중국인의 왕래가 잦다.

(참고, 사진: 뉴스1, 2025. 05. 16)

함경북도에서 컴퓨터·IT 기술 배우려는 청년 급증

2024년 7월 29일 데일리NK는 “최근 청진시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에서 컴퓨터나 정보통신 기술을 배우려는 청년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면서 “국가가 외부 정보 접근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이 그 배경”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고 보위, 안전, 검찰 등 법기관을 내세워 한국 드라마와 영화, 노래 등의 콘텐츠를 포함한 외부 정보의 유입과 유포를 단속하며 강하게 처벌해 오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 특히 호기심이 강한 청년들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한다. 한국 영화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10~20대 청소년들이 중형을 선고 받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당국의 엄격한 통제 분위기 속에서도 한국을 비롯한 외국의 콘텐츠와 새로운 문화, 정보를 접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욕구는 여전히



높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남조선(남한) 영화 등 불순녹화물을 시청했다가 발각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청년들이 본인의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경험이 최소 2번 이상은 될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청년들은 국가의 통제를 피해 남조선 영화를 시청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한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컴퓨터나 정보통신 기술을 배워 안전하게 외부 정보를 접하려는 청년들이 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이 최근에는 하나의 열풍처럼 일고 있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이는 일부 컴퓨터 전문가들이 단속을 피하며 남조선 녹화물을 즐기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생겨난 현상”이라고 했다.

그는 “기술을 익히거나 전문성을 가지게 되면 국가가 승인하지 않은 프로그램(프로그램)을 내려받을(다운로드) 수도 있고, 불순녹화물을 보고 난 후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아 단속을 피해 외국 문화를 즐길 수 있다”며 “청년들이 컴퓨터나 정보통신 기술을 배우려는 것은 단순한 학습을 넘어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참고, 사진: 데일리NK, 2024. 07. 29)

청진에서 성 착취, 살인사건 발생

2025년 3월 28일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초 청진시에서는 시 검찰소 소속 30대 중반의 A검사가 20대 중반 여성 B씨를 흥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부남인 A검사는 수년간 미혼인 B씨에게 관계를 강요해 왔는데, B씨가 다른 남성과의 결혼을 준비하자 이를 배신으로 여겨 한밤중에 불려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단속 권한이 있는 자가 생계를 위해 불법적인 장사에 나선 주민의 뒷배를 자처하며 권력과 위계를 이용해 성적·물질적으로 착취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식통은 “사실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안전원이나 검사가 휘두르는 권력에 눌려 살아가고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억눌렸던 분노가 폭발한 주민들 속에서는 ‘세상이 아무리 무법천지라고 해도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사법기관 사람들이 더 무섭게 법을 어긴다’는 말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사망한 피해자 B씨의 어머니는 딸이 수년간 검사에 의해 성 착취를 당해왔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폭로하며 A검사의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여기(북한)서 검사가 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인 데다, A검사 아내의 집안 배경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B씨 어머니의 걱정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다”며 “실제로 A검사의 뒷배가 든든하면 사형 선고는 안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다”고 말했다.

(참고, 사진: 데일리NK, 2025. 03. 28)

청진에서 송금 브로커로 활동한 화교, 간첩 혐의로 체포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2024년 9월 24일 밤 11시경 함경북도 보위국이 40대 초반의 남성 A씨 집을 급습해 그를 체포했다. 그는 중국 국적을 가진 화교로, 그의 아버지가 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국에 있는 아버지를 통해 한국에서 보낸 돈을 전달받아 북한에 있는 탈북민 가족들에게 전해주는 송금 브로커로 약 10년간 활동해 왔다고 한다.

그런 그가 보위부의 수사망에 오른 것은 지난달 중순 함북조선소연합기업소에 근무하는 노동자 B씨에게 거래의 돈을 송금하면서다.

북한의 주요 조선소 중 하나로 청진시 수남구역에 위치한 함북조선소연합기업소는 잠수함을 생산하는 군수산업 기지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 보위국은 A씨에게 한국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B씨가 제공한 북한의 잠수함 기술과 관련된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주민들은 이번 사건을 외부에서 돈, 물건, 정보를 북한 내부로 유입하는 일선에 있는 화교들을 소탕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계획적인 수사로 보고 있다.

소식통은 “실질적인 증거도 없이 간첩 혐의를 씌워 화교를 잡아간 것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막으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화교들이 돈이나 물건을 들여오면서 바깥 정보도 전달하는 문제를 막겠다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참고: 데일리NK, 2024. 10. 24) 🐼

청진의 각종 개발 소식

청진 중평온실농장, 5년간 채소 생산...2024년에도 수천톤 증산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24년 12월 7일 "중평온실농장에서 지난 5년간 남새(채소) 생산을 끊임없이 장성시켰으며 올해 들어와서도 계획보다 수천 톤의 남새를 더 생산하여 청진시와 도안의 인민들이 그 덕을 단단히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참고, 사진: 뉴스1, 2024. 12. 07)

청진시 포항구역 도시미관 개선 사업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25년 6월 12일 고층 건물에 외벽타일붙이기가 진행되고 많



은 봉사건물이 이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변모돼 함경북도 청진시 포항 중심부의 면모가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선전했다.

(참고, 사진: 뉴스1, 2025. 06. 12)

北, 청진시 청암구역에 '새살림집' 건설...“행복의 보금자리”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24년 8월 22일 "청진시 청암구역 부거농장에서 새집들이가 진행됐다"라면서 새로 지어진 살림집(주택)들을 "인민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행복의 보금자리"라고 선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월 13일에는 '북방의 철의 도시' 청진시 근동남새(채소)공장, 농포남새공장에서 새살림집 입사모임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참고, 사진: 뉴스1, 2024. 08. 22)

북한, 청진시에 새형 '무궤도전차' 운행

북한 청진시에서 성능이 개선되고 외형이 일신된 새형의 무궤도전차가 곧 운행에 들어간다고 재



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2024년 6월 5일 보도했다. 청진버스공장에서 생산된 이 무궤도전차는 충전변환기와 전자전력조종부를 창안 도입하고 노선알림판과 햇빛가리개를 새로 설치해 성능과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고 전했다.

(참고, 사진: 연합뉴스, 2024. 6. 5)

라남탄광기계공장, 합금강 생산과정 확립.

함경북도 청진시 라남탄광기계공장에서 자체 기술과 원료로 합금강을 생산할 수 있는 공정을 확립했다고 [노동신문]이 2024년 11월 9일 보도했다.

신문은 "지난 8월 웅근 하나의 공장건설과 맞먹는 합금강 생산공정을 훌륭히 일떠세운데 이어 수십일간의 시험생산을 원만히 보장하여 각종 합금강생산의 공업화를 실현하는 뚜렷한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전했다.

"이번에 새로 일떠세운 합금강 생산공정은 대량설비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고탄소강, 공구강, 형타강은 물론 내열강, 내산강까지 생산하는 공정으로서 기계공업의 주체화수준을 더 높은 단계에 끌어올릴 수 있게 하는 자랑할만한 성과"라고 소개했다.

대부분 가공공구에 사용되는 합금들이다.

'고탄소강'은 탄소가 0.83%이상 들어있어 단단하고 탄성이 좋은 강철로 공구용 탄소강, 고속도강, 용수철강 등이 있다. '공구강'은 높은 온도에서도 쇠를 깎을 수 있는 공구를 만드는데 쓰이는 강철이며, '내산강'은 규소가 13~16% 들어있는 철합금으로 주물품을 비롯해 화학공업용 기계설비를 만드는 재료로 쓰인다. '내열강'(열견딜강)은 높은 온도와 압력이 작용하는 고압보일러, 터빈 등의 부분품을 만드는 데 쓰이며, '형타강'은 시계 부속, 메달, 훈장 등 프레스로 눌러 생산하는 데 쓰인다.

그동안 라남탄광기계공장에서는 △형건조는



물론 ‘소둔’(燒鈍, 변형점 보다 약간 높은 온도까지 가열한 다음 천천히 식히는 열처리)도 할 수 있게 대형건조로 기술개조 △연소모형기술에 의한 주물 및 주강품생산공정 확립 등 자립적 발전 토대를 강화해 왔으며, ‘우리식 새로운 합금강생산공정’을 자체로 확립할 목표를 세운 뒤에는 공업기술연구소 소장을 책임자로 수십차례의 기술 협의회와 참관, 문헌자료연구 등을 진행해왔다고 한다.

공장설계를 두달만에 마치고 고주파유도로(유도가열의 원리를 이용해 금속을 가열, 녹이는 전기로 중 고주파를 이용), 중주파유도로 등 많은 설

비를 제작하고 종합분석실과 종합조종실 등을 마무리했다.

합금강 생산공정을 확립하는 과정에서는 “특히 슬라크재 용해로와 수천℃의 열에도 견디어야 하는 결정기 제작은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첨단 기술에 의거해야 하는 것으로 하여 실패에 실패가 거듭되었다. 합금강의 재질에 따르는 소모전극의 용해속도와 기계부분들의 호상연계가 잘 맞물려지지 않아 기술집단은 무진 애를 먹었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참고, 사진: 통일뉴스, 2024. 11. 09) 

북한지역연구 호별 자료 목록

2023년 여름, 창간호, 평안북도 신의주

- 권두언 - 북한지역연구지 발간의 의의와 연구 방향성, 김성태 이사장
- 북중 관문 도시로서 신의주의 특징과 도시 구조, 편집부
- 신의주의 교회를 찾아서, 편집부
- 단동-신의주 초국경도시협력에 대한 단상, 예동근 (부경대)
- 북중 접경지역의 두 도시 개발 이야기, 김성배 (숭실대)
- 선교를 위한 신의주 연구, 하충엽 (숭실대)
- 신의주의 경제 그리고 미래, 전병길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
- 북한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신의주, 강동완 (동아대)

2023년 가을, 통권 2호, 강원도 원산

- 권두언 -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며, 그분의 열매는 영속적이다. 김성태 이사장
- 해양관광도시 원산의 특성과 공간구조, 편집부
- 원산의 교회를 찾아서, 편집부
- 관광도시 원산의 과거와 현재, 진희권 (부산대)
- '강원도정산'과 원산의 기업, 전병길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
- 신 복음선교의 길, 북한 원산지역에서 찾다, 김병욱 (북한개발연구소)
- 원산, 그리고 원산대부흥, 김철성 (목원대)
- 나의 아버지 조희렴 목사, 원산의 순교자, 조용규 (조희렴 목사 차남, 전 국회의원)

2023년 겨울, 통권 3호, 라선특별시

- 권두언 -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하나님의 구속 역사, 김성태 이사장
- 북·중·러 국경도시 라선의 공간구조, 편집부
- 라선(경흥, 경원, 온성)의 교회를 찾아서, 편집부
- 라진 하산 프로젝트와 북러협력, 박종수 (전 러시아 공사)
- 조선장로교의 블라디보스톡 선교, 정호상 (전 블라디보스톡 선교사)
- 사회주의국가 경제특구에서의 비즈니스선교, 이찬욱(IBA 총무)
- 라선의 산업과 시장, 김병욱 (북한개발연구소)
- 해방후 북한의 동이기독교와 라선의 교회들, 안희열(침신대)

2024년 봄, 통권 4호, 개성특별시

- 권두언 - 개성지역 교회의 신앙적 유산, 김성태 이사장
- 신해방지구 접경 도시 개성의 발전과 공간구조, 편집부
- 개성의 교회를 찾아서, 편집부
- 만남과 교류의 장, 접촉 지대로서 개성공단의 공간성, 백일순 (서울대)
- 개성공단에서 일했던 남북한 근로자들은 어떻게 친해졌나?, 김유연(한반도평화연구원)
- 개성시 공간구조와 공간 격차, 이시호 (숭실대)
- 소망의 언덕에서, 개성공업지구와 개성협력병원, 김정용(전 개성병원 원장)
- 남감리교의 개성 선교와 윤치호의 모범촌 구상, 강명숙(역사학 박사)
- 개성의 문화유산 연구 - 박성진(문화재청)
- 박완서 문학에 나타난 개성의 로컬리티, 편집부

2024년 여름, 통권 5호, 양강도 해산

- 권두언 - 여호와 이레와 닛시의 하나님, 김성태 이사장
- 북·중 국경도시 해산의 공간구조와 초국경 협력, 편집부
- 해산의 성결교회, 이한복 (서울신대)
- 해산시 부동산 거래, 김병욱 (북한개발연구소)
- 양강도의 관광자원 현황과 개발 가능성, 강동완 (동아대)
- 해산-장백 초국경 협력, 김성배 (숭실대)
- 코로나 이후 해산 농민시장의 변화, 강미진 (엔케이투자개발)

2024년 가을, 통권 6호, 남포특별시

- 권두언 - 하나님의 선교전략과 그분의 인도하심, 김성태 이사장
- 남포특별시의 역사와 공간구조, 편집부
- 남포의 교회를 찾아서, 편집부
- 남포의 공간구조와 주민들의 삶 - 이시호 (숭실대)
- 남포의 산업시설 현황 - 김영희 (남북하나재단)
- 남북교류 거점도시(후포지)로서 남포시의 잠재력 분석 - 남근우 (인천연구원)
- 평양의 외항 남포의 발전과 특징 - 전병길 (에스이노베이션)
- 남포의 기독교 독립운동가들 - 유관지 (북녘교회연구원)

2024년 겨울, 통권 7호, 함경남도 함흥

- 권두언 - 교회설립, 다음 세대 교육 및 의료선교의 모범 함흥지역 선교, 김성태 이사장
- 북한의 대표화학공업도시 함흥의 역사와 공간구조, 편집부
- 함흥과 그 주변의 교회를 찾아서, 편집부
- 1960-1980년대 북한의 함흥시 공간 개발전략, 박희진 (동국대)
- 사회주의적 화학공업도시 함흥, 흥남의 기원, 형성, 발전, 위영금 (정치학 박사)
- 함흥시 건축물의 공간구조 형성과 산업시설, 김병욱 (북한개발연구소)
- 함흥-흥남은 어떻게 마약 생산지가 되었는가? (함흥 출신 탈북민)
- 함경남도 함흥지역의 성결교회 이야기, 이한복 (서울신대)
- 북한 화학산업 대표기업, '흥남비료연합기업소' 김미연 (산업은행)
- 그리스도의교회 중심지 함경남도 북청과 동석기, 전인수 (강서대)

2025년 봄, 통권 8호, 황해남도 해주

- 권두언 - 나무가 베어져도 그루터기를 보존하시는 하나님, 김성태 이사장
- 황해남도 중심도시 해주의 역사와 공간구조, 편집부
- 해주의 교회를 찾아서, 편집부
- 해주 도시공간과 일상, 이시호 (명지대)
- 북한 황해남도 중심도시, 해주시의 공간정보, 김병욱 (북한개발연구소)
- 해주의 이 교회들, 있던 곳은 어디일까?, 유관지 (북녘교회연구원)
- 황해남도에 설립된 성결교회들의 이야기, 이한복 (정선교회)
- 셔우드 홀과 해주 구세요양원, 김철성 (목원대)



Mission
Bible
College

성경대학시리즈

성경이 말하게 하라!

셀프 스터디에서부터 국내 목회 현장,
해외 선교 현장까지

성경대학시리즈는 성도들이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사명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수년간 사역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성경교육프로그램입니다.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현지인 성도를 영적 리더로 길러내고자 하지만
훈련과 자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교현장**,

각종 이단과 불건전한 신학의 홍수 속에서 성경으로
균형잡힌 건강한 성도들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목회현장**,

그리고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지만
어려운 훈련 프로그램은 부담스럽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평신도**를 위해

성경대학시리즈(Mission Bible College)의 특징

1. 성도들이 복음의 기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성경을 깊이 있게 접하고 영적 리더로 도약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 교사가 앞에서 직접 가르쳐주는 스타일로 구성되어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고, 개인 묵상과 소그룹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질문과 묵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성경 자료가 부족한 선교지를 위해 성경 본문과 참고 자료들을 한데 모아 정리하여, 한 권의 책만으로도 깊이 있는 성경 공부가 가능합니다.

미션 바이블 칼리지는 4개 과정, 40여개 과목으로 계속 개발, 발간될 예정입니다.

※ 교재 구입 관련 자세한 문의는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